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 · 중 음식 속담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세초

한 · 중 음식 속담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of Victualage Proverbs of
Korean and Chinese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세초

한 · 중 음식 속담 비교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서 세 초

서세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이상원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강희숙 (인)

2017년 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1.3. 선행 연구 검토	3
2. 한·중 음식 속담의 개념 및 특성	6
2.1. 속담의 개념 및 특성	6
2.2. 음식 속담의 개념 및 범주	12
2.3. 음식 속담의 특성	14
3. 한·중 음식 속담의 형식과 의미	27
3.1. 동형동의(同形同意) 속담	27
3.2. 동형이의(同形異意) 속담	31
3.3. 이형동의(異形同意) 속담	33
3.4. 이형이의(異形異意) 속담	37
4. 한·중 음식 속담 비교 분석	46
4.1. 한·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	46
4.2.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점	48

5. 결론52

<참고문헌>55

<부록 1> 한국 음식 속담58

<부록 2> 중국 음식 속담112

표 목 차

<표 1> 사전별 한국 속담의 개념	6
<표 2> 사전별 중국 속담의 개념	9
<표 3> 한국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	14
<표 4> 중국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	16
<표 5> 한·중 음식 관련 어휘가 포함된 속담의 비율	19
<표 6> 한·중 음식 속담의 소재 분류	21
<표 7> 동형동의(同形同意) 음식 속담	27
<표 8> 동형이의(同形異意) 음식 속담	31
<표 9> 이형동의(異形同意) 음식 속담	34
<표 10>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	37
<표 11>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	4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of Victualage Proverbs of Korean and Chinese

Xu Shichao

Advisor: Prof. G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is communication. To do the communication well, we should understand that country' s culture, history, and customs as well as learn their language. I think we can understand more about a country' s culture by studying on proverbs. Proverbs are important parts of language and a corporate body of language and culture.

In this aspect, this study was to compar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ppeared in proverbs by classifying forms and meanings of proverbs related to Korean and Chinese food. a

Both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ries with long history and have had close relationship in various way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lthough both countries have lots of similarities, there are evident differences as they have their own ethn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Food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eople in the process of living and, though it, we can deliver vivid meanings that a language holds. Thus, this study limited the study subject to the proverbs related to food with the close relation to people' s daily lives. The subjective study contents are as follows. At first, it looked a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both

countries' proverbs, suggested the exact concept and category of food proverbs, and then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food proverbs. Then, it divided into the same shape-same meaning, the same shape-different meaning, different shape-same meaning, and different shape-different meaning and compared them. Through these, it figured out the culture included in the food proverb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their languages. Lastly, it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ir cultures which were the cause of their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the food proverbs of Korea and China.

Until now, Korea and China have exchanged influences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each other. In the global times that the exchange between countries gets vivid, the study on the cultural difference and language learning of Korea and China has an important meaning.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through the comparison of food proverbs also have the same meaning as well.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는 음식¹⁾의 시대이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도 대중매체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지역은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우리가 왜 특정한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주영하 2011: 11).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먹방’²⁾이니 ‘쿡방’³⁾이니와 같은 용어가 유행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은 인체의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가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정신적 차원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도 한다. 음식과 관련된 각종 풍속은 바로 음식 문화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장서·장범성 2007: 38).

음식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금강산도 식후경.” 또는 중국의 “民以食爲天(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이라는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찍부터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속담에서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속담은 사람들의 생활, 문화, 풍속, 사고방식을 담고 있음은 물론 사람들과 밀접한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의 언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 언어 영역에 속하는 속담은 시공을 초월하여 의의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속담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및 민족의 정신세계를 알 수가 있다. 이외에 속담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음식(飮食)을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 또는 “음식물(飮食物: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로 정의하고 있다.

2)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200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이다.

3) ‘쿡방’이란 요리하다는 뜻의 ‘쿡(cook)’과 ‘방송’의 합성어로, 단순히 맛있게 먹기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는 방송이다.

에서는 한·중 양국 속담에서 문화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 속담에 주목하였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한 음식 속담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개별적인 속담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 가운데 특히 음식에 관한 속담을 비교하여, 두 나라의 속담에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식생활과 관련된 한·중 음식 속담으로 한정하였다. 한국 음식 속담은 주로 송재선(1998)의 《음식 속담 사전》에 실린 것을 자료로 하고 정종진(2006)이 지은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게재된 것을 참고 자료로 하였다. 중국 음식 속담은 유은중(2011)의 《중한성어속담대사전》과 溫端政(2007)의 《中國俗語大詞典》 및 王緒前(2008)이 지은 《飲食諺語集成》 등에 실린 것을 분류하여 이용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 다음에 음식 속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연구 과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속담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음식 속담의 개념과 범주를 정확히 제시한 다음 음식 속담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음식 속담의 형식과 의미를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이형이의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 음식 속담을 언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속담에 내포된 문화까지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 3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발생 원인인 양국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은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다룬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음식 속담의 형식과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주요 자료에 나온 음식에 관련된 속담들을 찾아내고 분

류해서 형식과 의미면에서 정리하였다.

둘째, 한·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음식 속담의 표면적인 의미와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한·중 식생활 문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1.3. 선행 연구 검토

한·중 속담에 대한 비교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지만 음식 속담에 관한 비교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한·중 속담을 통해 본 음식 문화의 연구와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한·중 속담을 통해 본 음식 문화의 비교 연구는 曹勇(2010), 彭素芳(2010), 쥬원원(2014) 등이 있다.

曹勇(2010)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중 음식 속담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언어학적 연구 방법과 사회학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을 음식 문화, 사회 문화, 생태 문화, 어휘 비교의 네 가지로 나누어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양국 문화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더불어 속담에 사용된 어휘의 비교를 통해 양국 속담의 언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음식 속담에 관한 교재를 제시하고 교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彭素芳(2010)에서는 한·중 음식 문화에 대해서 속담에 관한 비교를 통해 3가지 유형을 고찰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소재와 의미가 동일한 음식 속담(동형동의), 소재가 똑같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는 음식 속담(동형이의),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일한 뜻을 지니는 음식 속담(이형동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음식 속담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쥬원원(2014)은 ‘조화(調和)’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음식문화를 고찰하였다. 양국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속담, 즉 음식문화와 관련된 속담을 통해 음식문화의 본질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양국 음식 문화의 공통점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정의 공유, 인간과 사물의 ‘조화’를 중시하는 약식동원(藥食同源)⁴⁾, 사물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곡물 중시를 제시하였

다. 양국 음식문화의 차이점으로는 한국은 예절 중시의 음식 문화, 자연 친화의 음식문화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맛과 향을 중시하는 음식 문화, 속식을 중시하는 음식 문화를 지적할 수 있었다.

한편, 음식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로는 왕수기(2008), 殷淑英(2014), 유순익(2014) 등을 들 수 있다.

왕수기(2008)은 한국어 문화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음식 관련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그 속담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중국 속담을 상호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음식 관련 속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 관련 속담 중에서 떡에 관련된 속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속담을 다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도 방안을 작성하였다. 이 지도 방안은 ‘제시-설명-연습-활용-보충·심화’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형식으로, 각 단계별로 나름의 가중치를 두었다.

殷淑英(2014)에서는 한국어 속담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기출문제 제7~30회에 나타난 속담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속담을 분석하였고 중국인 학습자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제시-의미설명-연습단계-활용단계-보충·심화의 5단계로 진행하는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순익(2014)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먼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고 학습자의 속담의 이해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언중 음식 속담 사용 빈도, 한국어교사의 경험적 판단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 속담 교육의 방안을 초급, 중급, 고급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모색하였고, 음식 속담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4) 약식동원(藥食同源): 한국과 중국 음식문화의 동질성 가운데 하나가 ‘약식동원(藥食同源)’이다. 잘 선택한 음식은 약과 같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과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의 근원이 동일한 것이다. 허준의 《東醫寶鑑》에서 “병이 난 곳을 알아서 음식으로 치료한 후에도 낫지 않으면 다음에 약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의 《閨閣叢書》에서도 “음식으로 의약을 삼아 나날이 좀 부치듯 하게 먹어야 한다.” 라든가, “좋은 약으로 알아 형상의 괴로운 것도 고치게 하라.” 고 했다. 이 사상은 중국 당나라 때의 《黃帝內經太素》에도 나온다. 주나라 때는 식의(食醫)제도가 시행되어 한국에 전해졌다. 이것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고 음식을 약과 같은 위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보양식이나 양생음식이 발달하였고, 조선시의 허준의 《東醫寶鑑》, 이창정의 《수양총서류집》 등 한방에 관한 여러 서적들에는 식품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시키려는 영양학과 같은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종원원2014: 30).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음식 속담을 통해 본 문화적 특징의 비교 연구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음식 속담의 구성 특징을 비교하는 데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曹勇(2010)은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의 비교연구를 위해 각국의 속담 사전을 한 개씩만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彭素芳(2010)은 속담에 관한 내용을 문화적 관점에서 깊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음식 속담의 구성상의 특징을 통하여 속담 속에 나타난 두 나라 간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한·중 음식 속담의 개념 및 특성

2.1. 속담의 개념 및 특성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므로 그 문화의 바탕이 유사하며, 생활습관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속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속담의 개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중 양국의 속담의 범주 및 용어에서는 두 나라가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속담(俗談)’이라는 말은 17세기 초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15세기 중엽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이미 ‘언(諺)’이라는 기록이 있는 만큼 오늘날의 ‘속담(俗談)’은 이 시기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자에 따라서는 문헌상의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인 삼국시대에도 이미 ‘속담(俗談)’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이가연 외, 2000: 399).

영조 때(1725-1776) 편찬된 중국어 어휘집인 《동문유해(同文類解)》에서는 ‘속담’이라는 한글 표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정조 때(1777-1800) 문헌인 《명의록언해(明義錄諺解)》에서도 ‘속담’이라는 한글 표기가 발견되고, 이 ‘속담’이라는 어휘가 ‘속담’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속담’이라는 말은 일찍이 영·정조 때, 즉 18세기 무렵 정식적으로 민중들에게 들어가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속담(俗談)’과 관련된 한자어는 ‘속언(俗言), 이언(俚諺), 도언(圖諺), 이담(耳談), 방언(方諺), 상언(常諺)’ 등이 있다고 하였다(쫘원원 2014: 13~14).

속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송재선 1998). 한국 속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선 각 사전에 나오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별 한국 속담의 개념

사전	내용
----	----

<p>《우리말 속담 큰 사전》 (1990: 3)</p>	<p>광의 (廣義)</p>	<p>어떤 말이라도 일정한 형을 가지고 항간(巷間)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속담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의 형용사(形容詞)라 할지라도 일정한 형을 구비(具備)하게 되면 언제나 어떤 종류의 사물(事物)을 형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중들이 이것을 애용하게 되면 이것을 속담이라고 하게 된다.</p>
	<p>협의 (狹義)</p>	<p>어떤 종류의 교훈(教訓), 기지(機知), 상상(想像), 경계(警戒), 비유(比喻), 풍자(諷刺), 또는 모든 관찰 경험(觀察經驗)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표현하는 말로서, 즉 인간 생활에 관한 진리(真理)를 말할 목적으로 쓰이는 말을 의미한다.</p>
<p>《국어대사전》 (1994: 2113)</p>	<p>옛적부터 내려오는 민간(民間)의 격언(格言)으로 교훈·풍자·경험·유희(遊戱) 등의 뜻이 담긴 짧은 말. 세언(世諺). 이언(俚諺). 속언(俗諺).</p>	
	<p>속된 이야기. 속설(俗說). 속어(俗語).</p>	
<p>《세계 속담 대사전》 (1998: xi)</p>	<p>속담은 오랫동안 민중의 일상 경험을 통하여 태어나서 널리 퍼져 나간 보배로운 말로서 온 겨레나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각기 나라말로 간직되어 전해오는 인류 공동 문화유산이다. 그중에는 지혜, 교훈, 일깨움, 풍자 등 갖가지 지적 요소가 번득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흐뭇하고 구수하고 감칠맛을 풍겨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아로새겨 주어 사람 운명의 그늘을 실감케 하기도 한다.</p>	
<p>《표준국어대사전》 (1999: 3562)</p>	<p>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연속(言俗).</p>	
	<p>속된 이야기, ≡세언(世諺)·속설(俗說).</p>	
<p>《우리말 속담</p>	<p>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연속</p>	

사전》(2006: 머리말)	(言俗).
	속된 이야기. = 세언(世諺) · 속어(俗語) · 속설(俗說). 속언(俗諺) · 속어 · 속언(俗言) · 속언 · 속화(俗話).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속담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문(1980)에서는 “俗談은 한두 사람의 意見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一·二十年에 成熟된 것이 아니다. 數萬年(或은 數十萬年)을 내려오며 거의 無數한 우리 祖上들이 無盡藏으로 우리말을 驅使하는 동안에, 共通되는 真理 · 共通되는 表現效果, 共通되는 語感의 「에끼스」로써 成立된 것이다. 이와 같은 方法과 過程으로 어떠한 民族이든지 俗談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이을환(1971)에서는 “속담은 내용적으로 보면 예로부터 민중이 생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생활의 지식이자 철학이요, 교훈이며, 행동 규범의 표현이고 형식적으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압축된 짧은 구절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사엽(1982)에서는 “속담이란 민간에 널리 분포된 구비적 잠언으로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오래 세월을 두고 인간 대중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소산으로 우수한 문장이며, 시가이며, 철학이며, 처세훈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기초로 할 때 한국 속담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교훈, 풍자, 경험, 유희 등의 뜻이 담긴 말인 동시에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진리가 담겨 있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 대중의 지혜와 경험을 기반으로 일정한 형(形)을 가지는 짧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팽소방 2010: 7).

한국에서는 흔히 ‘속담’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속담’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에 대응하는 용어로 성어(成語), 속어(俗語), 언어(諺語), 험후어(歇後語), 격언(格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唐 · 顏師古注《漢書 · 五行志》：“諺者，俗所傳言也。” (諺은 俗에서 전해 내려온 말이다.)
- ㄴ. 宋 · 朱熹《禮記大學》：“諺，俗語也。” (諺은 속어이다.)
- ㄷ. 南朝梁 · 劉勰《文心雕龍·書記》：“諺者，直言也。” (諺은 直言이다.)

ㄹ. 漢語 · 許慎《說文解字》：“諺，傳言也，從言，彥聲。”（諺은 전해 내려온 말이다. 彥을 의미로 삼고 彦을 소리로 따른다.）

위와 같이 중국의 古典(고전)에 의하면, ‘언어(諺語)’는 고대부터 ‘속어(俗語)’, ‘속언(俗言)’, ‘속론(俗論)’ 등 ‘속’과 관련된 뜻으로 해석되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속담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전별 중국 속담의 개념

사전	본문	번역
《辭海》 (1977: 1145)	<p><熟語>語中定型的詞組或句子，使用時一般不能任意改變起組織，包括成語，諺語，格言，歇後語等，熟語中有許多屬於勞動人民鬥爭經驗的總結或對自然規律的認識，有一些願意消極的熟語在後人沿用的過程中給其賦予了新的含義，可以古爲今用.</p>	<p>속어(熟語)는 언어 가운데 고정된 형태의 사조나 어구로서,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조직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여기에는 성어(成語), 언어(諺語), 격언(格言), 험후어(歇後語) 등이 포함된다. 속어(熟語) 중에는 민중의 투쟁경험의 종결 또는 자연규율에 대한 인식, 경험에서부터 생성된 것이 주가 된다. 원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부분적인 속어(熟語)들은 시간의 흐름과 후세 자손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옛것을 시대맥락에 알맞은 형태들로 취하여 사용하고 있다.</p>
《諺語歇後語概論》 (1980: 6)	<p><諺語>是通俗簡練，生動活潑的韻語或短句，它經常以口語的形式，在人民中間廣範地沿用或流傳，是人民群眾表現實際生活經驗或感受的一種“現成話”.</p>	<p>언어(諺語)는 통속적이면서도 간결한 형식으로 생동적이고 활발한 운어(韻語), 혹은 단구(短句)로 되어 있다. 흔히 구어의 형식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전해 내려왔으며, 민중들의 실제 생</p>

		활 속 경험 또는 느낌을 표현한 일종의 현성화(現成話)이다.
《中國俗語大辭典》(2011: 前言)	<俗語>俗語是群眾所創造的, 並在群眾口語中流傳, 結構相對定型的通俗而簡練的語句.	속어(俗語)는 민중들이 창조하고, 민중들의 구두로 전해 내려온 통속적이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간결한 어구이다.
《現代漢語辭典》(2004: 467)	<慣用語>慣於使用, 經常連用.	관용어(慣用語)는 습관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일상회화에 자주 사용되는 어구를 이루는 말이다.
《中韓大辭典》(2007: 2614)	<歇後語>是俗語的一種, 大部分由詼諧形象的語句構成. 原則上分前後兩部分, 前面如謎語問題進行比喻, 後面如謎語的答案進行比喻說明.	헨후어(歇後語)는 속어(俗語)의 일종으로 대부분이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로 되어 있다. 원칙상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수수께끼 문제처럼 비유하고 뒷부분은 수수께끼 답안처럼 그 비유를 설명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속담에서는 속어(熟語)의 범위가 제일 넓고 ‘속어(俗語)’, ‘언어(諺語)’, ‘관용어(慣用語)’는 다 이에 속하는 것이다. ‘언어(諺語)’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이 ‘속어(俗語)’, ‘관용어(慣用語)’와 구별된다. ‘속어(俗語)’와 ‘관용어(慣用語)’의 공통점은 비교적 강한 서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있으나, ‘속어(俗語)’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관용어(慣用語)’와 구별된다. ‘관용어(慣用語)’ 중에도 완전한 의미를 표현하는 문구가 다소 있지만 문어보다는 구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완전한 의미를 가지는 철자조합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헨후어(歇後語)’가 지니는 특수한 형식과 사용상 분할 가능한 특징은 이러한 견해의 정확성이 없다고 말해준다(평소방 2010: 9).

속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들고 구비적으로 전해지는 간결한 어구로서 선

인들의 지혜와 경험 등이 함축된 것이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속담도 있지만 고유한 민족적 특징을 가지는 속담도 많다. 중국 속담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전설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그리하여 중국의 독특한 민족특색을 가지고 있다.

한·중 양국의 속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형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우선 속담의 특성에 대한 한·중 양국 연구자들의 견해를 알아보려고 한다.

崔希亮(2005)에서는 속담의 특성에 대해 형식상의 응고성(凝固性)과 내용상의 특정성(特定性)을 들고 있다. 형식상의 응고성이란 속담은 고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용상의 특정성은 속담에서는 대개 사회적으로 약속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종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자만 보고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상진(1995)는 속담의 특성을 간결한 표현, 비유적 표현, 수사상의 다채로운 기교, 도덕적·교훈적·통속적이라는 내용으로 요약하였으며 격언에 비해 언어 유희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처세·교도적인 것, 조롱·비판적인 것, 보편적 진리를 언술한 것, 주관적 판단을 언술한 것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속담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간결하고 짧게 표현된다.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짧은 형식을 가지고 깊은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명쾌한 인상을 제시해 준다.

둘째, 속담에는 비유적, 대구적, 과장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수사법의 사용을 통해서 사물이 내포하는 의미를 뚜렷하고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리하여 속담은 대중들이 구두(口頭)로 전하게 된다.

셋째, 속담은 교훈, 지혜, 진리와 경계의 뜻 등 민중들의 생활 철학을 담고 있다. 속담은 예로부터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며, 사람들에게 처세의 방법을 가르치는 깊은 철학이다.

넷째, 속담을 통해 지역성을 반영한다. 지역마다 풍습이 다르고 사고방식, 가치관, 민족정신, 사회 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속담은 생성된 지역에 따라 고유한 향토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속담은 그 생성된 시대성을 반영한다. 속담은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가치관, 사회 풍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속담은 그것이 생성되던 당시의 시대성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속담은 그 시대에 대한 민속과 문화를 표현할 수 있다.

2.2. 음식 속담의 개념 및 범주

음식 속담은 말 그대로 음식과 관련된 속담이다. 다시 말하면 속담이 갖고 있는 경험, 교훈, 철학, 지혜를 바탕으로 음식이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개체를 통해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특정한 말이 음식 속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송재선(1998)에 따르면 먹는 행위와 관련된 속담 및 음식맛과 관련된 속담도 음식 속담에 속한다. 예를 들면, “만승천자(萬乘天子)⁵⁾도 먹는 것을 큰일로 삼는다(부귀를 누린 사람도 먹는 것을 가장 큰일로 삼듯이, 사람에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이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간도 모르고 짜다 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짜다는 사람 있고, 싱겁다는 사람 있다(사람의 성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비위를 다 맞추지 못한다.)” 등과 같이 음식 소재가 나오지 않아도 먹는 행위나 음식맛과 관련이 있다면 음식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을 토대로 음식 속담의 범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리 재료로 쓰이거나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음식 속담이다. 예를 들면 쌀, 조, 보리와 같은 곡식류, 양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의 어육류, 감, 사과, 오이 등의 과일 및 채소류, 고추장, 설탕, 깨, 꿀 등을 포함한 양념장 및 조미료 등을 포함한 음식 속담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 ㄱ. 남의 밥 쌀이 더 좋아 보인다(물욕이 있는 사람은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인다).
 ㄴ. 거지 꿀 얻어먹기다(거지가 꿀을 얻어먹듯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ㄷ. 等米下鍋(밥 지을 쌀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여유 없는 가난한 생활을 비유하는 말).
 ㄹ. 白糖加蜂蜜, 話上加話(백설에 꿀을 넣어, 단맛에 단맛을 더 한다는 뜻으로 생활은 매우 행복하다는 말이다).

둘째 조리된 요리가 등장하는 음식 속담이다. 한국 음식을 예로 들면 밥, 반찬,

5) 천자를 존칭하는 말.

떡 등으로 주식, 부식, 후식류를 모두 포함한다. 중국 음식은 밥, 면, 고기, 과일 등으로 주식, 부식, 후식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ㄱ. 밥 위에 떡(좋은데다가 더 좋은 것을 주니 다 바랄 것이 없다).
- ㄴ. 누룽지 굶다가 술 깬다(작은 이득을 탐내다가 큰 손해를 당한다).
- ㄷ. 白吃包子嫌面黑(남의 만두를 거저먹고도 밀가루가 검다고 탓한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공짜로 얻어먹는 주제에 트집까지 잡는 행위를 야유한다).
- ㄹ. 沒有好果子吃(맛있는 과일이 없다는 뜻으로 좋은 결과가 없다는 말이다).

셋째, 물을 포함한 주류(酒類), 음청류⁶⁾ 속담이다. 물은 음식이 아니지만 구강으로 섭취한다는 큰 의미에서 음식으로 포함하였다. 주류(酒類) 및 음청류도 같은 의미에서의 음식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4) ㄱ. 고래 물마시듯 한다(술이나 물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을 두고 비유하는 말이다).
- ㄴ. 거지 술 상 같다(잔칫집에서 거지에게 술을 대접할 때는 먹던 안주에 술도 잔을 채우지 않고 주듯이, 대접을 박하게 한다).
- ㄷ. 吃水不忘掘井人(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행복의 내원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ㄹ. 吃酒三年沒有錢, 戒酒三年也沒錢(삼 년 술을 먹어도 돈이 없고 삼 년 술을 끊어도 돈이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저축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한다).

넷째, 음식의 맛과 관련된 속담이다.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 맛은 음식이 아니지만 음식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맛과 관련된 어휘가 포함된 속담도 음식 속담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5) ㄱ. 당장 먹기는 곱감이 달다(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먹기는 곱감이 좋다).
- ㄴ. 먹질 것 없는 음식이 짜기만 하다(변변치 못한 음식이 짜기만 하여 먹고 싶지 않다).
- ㄷ. 吃香的, 吃辣的(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니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ㄹ. 吃慣梅子不怕酸(매실을 즐겨 먹으면 신 줄을 모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습관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알지 못함을 비유한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관련된 행위 및 몸의 상태와 관련된 속담이다. ‘먹다’,

6) 보통 차게 마시는 전통 음료로서 오미자물, 꿀물 등에 과일을 썰어 만든 화채 종류와 생강을 끓여 만든 배숙, 수정과 등이 있으며 옛기름으로 밥알을 식혀서 만든 식혜 등이 있다.

‘마시다’, ‘끓다’와 같은 동사는 음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로 음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어휘이다. 그리고 포만감과 관련된 ‘배부르다’, ‘끓주리다’ 등의 어휘는 ‘먹다’, ‘마시다’, ‘끓다’와 같은 행위가 선행된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이 음식 소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 또한 음식 속담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6) ㄱ. 배부른 놈에게 고량진미를 주어도 별 맛을 모른다(배부른 사람은 먹을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맛을 모르게 마련이라는 뜻).
- ㄴ. 끓주리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끓주린 사람은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먹는다는 뜻).
- ㄷ. 吃飽了混天黑(배불리 먹고 진중일 빈둥거린다는 뜻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함).
- ㄹ. 守著幹糧挨餓(앞에 떡을 놓고도 배를 굶는다는 뜻으로, 이미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줄 모름을 의미함).

이상으로 음식 속담의 개념 및 범주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 속담의 범주는 매우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요리 재료로 쓰이거나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음식 속담이다. 둘째 조리된 요리가 등장하는 음식 속담이다. 셋째, 물을 포함한 주류, 음청류 속담이다. 넷째, 음식의 맛과 관련된 속담이다. 다섯째 음식과 관련된 행위 및 몸의 상태와 관련된 속담이다.

2.3. 음식 속담의 특성

일상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과 음식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므로, 한·중 두 나라의 기호 식품이나 대표적 음식을 살펴보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다. 한국과 중국은 음식과 관련된 속담은 그 수도 많고, 소재 또한 매우 다양하다. 두 나라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

순서	소재	개수	백분율
----	----	----	-----

1	밥	633	24.02%
2	술	556	21.10%
3	떡	437	16.58%
4	죽	165	6.26%
5	국	150	5.69%
6	장류	127	4.82%
7	물	101	3.83%
8	반찬	81	3.07%
9	소금	57	2.16%
10	엿	44	1.67%
11	면류	39	1.48%
12	곡식	35	1.33%
13	꿀	32	1.21%
14	고기	30	1.14%
15	과일류	22	0.83%
16	송농	18	0.68%
17	기름	17	0.65%
18	생선	15	0.57%
19	메주	12	0.46%
20	누룽지	10	0.38%
21	사탕	10	0.38%
22	안주	9	0.34%
23	식혜	7	0.27%
24	채소	6	0.23%
25	약과	6	0.23%
26	깨	4	0.15%

27	식초	4	0.15%
28	인삼	2	0.08%
29	밤	2	0.08%
30	계란	2	0.08%
31	고춧가루	1	0.04%
32	고춧가루	1	0.04%
한국 음식 속담에서 나타나는 음식 소재 총수		2635	100%

<표 4> 중국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

순서	소재	개수	백분율
1	飯(밥)	214	14.17%
2	菜(채소)	183	12.12%
3	酒(술)	128	8.48%
4	水果(과일)	127	8.41%
5	肉(고기)	104	6.89%
6	面食(면식)	78	5.17%
7	水(물)	64	4.24%
8	米(쌀)	59	3.91%
9	豆腐(두부)	51	3.38%
10	鹽(소금)	48	3.18%
11	雞蛋(계란)	46	3.05%
12	五穀雜糧(곡식)	39	2.58%
13	海鮮(선생)	38	2.52%
14	菜(요리)	37	2.45%
15	油(식용유)	37	2.45%

16	茶(차)	25	1.66%
17	蜂蜜(꿀)	24	1.59%
18	芝麻(참깨)	24	1.59%
19	醋(식초)	23	1.52%
20	湯(국)	22	1.46%
21	粥(죽)	20	1.32%
22	蒜(마늘)	16	1.06%
23	糖(설탕)	16	1.06%
24	薑(생강)	15	0.99%
25	核桃(호두)	10	0.66%
26	醬(된장)	9	0.60%
27	人蔘(인삼)	8	0.53%
28	瓜子(해바라기씨)	6	0.40%
29	玉米(옥수수)	5	0.33%
30	奶(우유)	5	0.33%
31	香油(참기름)	4	0.26%
32	栗子(밤)	4	0.26%
33	咸菜(장아찌)	3	0.20%
34	糕(떡)	3	0.20%
35	粽子(쫄즈)	2	0.13%
36	醬油(간장)	2	0.13%
37	凉粉(묵)	2	0.13%
38	芥末(고추냉이)	2	0.13%
39	鍋巴(누룽지)	1	0.07%
40	胡椒(호추)	1	0.07%
41	辣椒面(고춧가루)	1	0.07%

42	地瓜(고구마)	1	0.07%
43	月餅(월병)	1	0.07%
44	燕窩(제비집)	1	0.07%
45	麻花(과배기)	1	0.07%
중국 음식 속담에서 나타나는 음식 소재 총수		1510	1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음식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 소재로는 ‘밥, 술, 떡, 죽, 국’ 등이 있다. 중국 음식 속담에서는 ‘밥, 채소, 술, 과일, 고기’ 등이 자주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밥’ 과 ‘술’ 은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떡’ 과 ‘죽’, 중국의 ‘채소’ 와 ‘과일’ 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바, 이러한 소재들이 한·중 양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소금’, ‘기름’, ‘장’ 등 조미료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음식의 맛과 풍미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 건강에 좋은 ‘죽’, ‘꿀’ 과 영양이 많은 ‘계란’ 등도 자주 나타난다.

양국 음식 소재에 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에 나타나는 음식 재료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물이다. 예를 들어 “가는 밥 먹고 속 편하게 살렸다.” 와 “心急吃不了熱豆腐(마음이 급하면 따뜻한 두부도 못 삼킨다)” 에서 ‘밥’ 과 ‘두부(豆腐)’ 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둘째, 옛날부터 두 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중시하여 몸에 좋은 음식 소재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는 고기보다 채소류를 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冬吃羊肉賽人參” 은 겨울에 양고기를 먹으면 인삼을 이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건강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중 두 나라의 고유한 음식 소재는 양국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도 크다.” “김치는 반양식이다.” 에 등장하는 한국의 고유한 음식 ‘떡’ 과 ‘김치’ 는 한국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이

다. 특히 ‘떡’은 한국의 명절 등 중요한 날에 반드시 등장하는 음식이고 ‘김치’는 한국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고리고 “沒有葦葉, 不敢包粽子(대나무 잎이 없으면 쫄쫄을 못 싣다)”, “大年初一吃餃子, 沒外人(설날에 교자를 먹는 것은 외간 사람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에 나오는 중국의 고유한 음식 ‘교자(餃子)’와 ‘쫄쫄(粽子)’는 중국의 명절음식이며 중국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서 양국의 음식 소재에 관한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면, <표 3>에서 한국의 음식 소재 종류는 32개를 포함하고 <표 4> 중국의 음식 소재 종류는 45개이다. 이는 중국은 땅이 넓어 식품 종류도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한, 5순위로 나타나는 한국 음식 소재는 ‘곡’이고 중국 음식 소재는 고기다. 이것은 양국 사람의 기호 음식과 평소애 자주 먹는 음식이 서로 다르면 또한 식습관 역사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밥은 주식으로 많이 먹고 중국에서는 밥뿐만 아니라 면식(面食)도 많이 먹는 편이다.

이상으로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에서 나타나는 음식 소재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 속담에서 나타나는 음식 소재를 보면 두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두 나라 음식문화의 유사점과 고유한 음식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위 표에 나타나는 음식 소재 총수와 부록에서 나타나는 음식 속담의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음식 맛과 관련된 속담과 ‘먹다’, ‘마시다’, ‘배부르다’, ‘굶주리다’ 등과 관련된 속담은 음식 속담에 속하지만 음식 소재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음식 속담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중 음식 관련 어휘가 포함된 속담의 비율

한국			중국		
	개수	백분율		개수	백분율
먹다	1198	39.15%	먹다	398	27.07%
마시다	16	0.52%	마시다	52	3.54%

음식 맛	189	6.18%	음식 맛	146	9.93%
배부르다	21	0.69%	배부르다	32	2.18%
배고프다	16	0.52%	배고프다	30	2.04%
굶주리다	7	0.23%			
총수	1447	47.29%	총수	658	44.76%

<표 5>에 따르면 ‘먹다’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식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도, 전체 음식속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음식과 ‘먹다’라는 동사가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먹다’ 이외에 ‘마시다’와 같은 동사는 음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포만감과 관련된 ‘배부르다, 굶주리다’ 등의 어휘는 ‘먹다, 마시다’와, ‘굶다’와 같은 행위가 선행된 다음에 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먹다’를 비롯한 ‘마시다’, ‘굶주리다’ 등의 어휘가 포함된 속담을 본 연구에서 음식 속담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음식 속담 중 위의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47.29%, 중국 44.76%를 각각 차지하여 음식과 관련된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가 빈번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한국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조미자 외(1998)에서는 주식류 및 부식류 두 가지로만 분류하였다. 정해옥 외(1999)에서는 주식류, 부식류, 조미료류로 나누고 있으며, 이지효·이규봉(2003)은 한국 음식의 종류를 주식류, 부식류, 떡과 한과류, 음청류로 네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정해옥·김재숙(2001)에 따르면 한국 음식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밥, 죽, 면, 만두’ 등이 속한 주식류, ‘국, 김치, 장’을 포함한 부식류, 주식류와 부식류를 제외한 ‘떡, 조과, 음청, 술, 차’ 등의 후식류 및 기타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옥·김재숙(2001)의 분류 기준에 따라 4장의 양국 음식 속담의 차이점을 주식류, 부식류, 후식류 및 기타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김문주 외(2011)에 따르면 중국 음식의 종류는 전채(前菜), 두채(頭菜), 주채(主菜), 탕채(湯菜), 면점(面點), 첨채(拈菜), 주수(酒水)로 나눌 수 있다. 전채(前菜)는 주로 냉채 요리로 구성되며 식욕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역할을 한다. 예

로부터 4개 세트 접시에 각각 다른 종류로 4~8가지 요리를 담아내는데 큰 연회에서는 꽃, 새, 바람, 달을 본떠서 예술적으로 화려한 전채를 만들기도 한다. 두채(頭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맑은 탕 요리로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어시석(魚翅席), 제비집 요리는 연채석(燕菜席), 전복요리는 포어석(鮑魚席)이라 한다. 주채(主菜)는 중심 요리를 말하며 해물, 고기, 두부, 야채를 튀김, 볶음, 류채, 찜, 조림으로 요리하며 고기구이는 고채(烤菜) 중 몇 가지를 내는 단계를 말한다. 탕채(湯菜)는 국물요리를 말하며 연회에서는 다른 요리를 다 낸 후 연회 후반부에 면점에 앞서 낸다. 면점(面點)은 쌀, 쌀가루, 밀가루를 주재료로 만든 음식을 말하는데 판으로 부르는 밥, 면류, 만두, 포자(包子) 등이 포함된다. 침채(楮菜)는 달콤한 것과 짠맛이 나는 후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는 한국의 음식 분류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 소재를 크게 3 가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중 음식 속담의 소재 분류

한국			중국		
분류	개수	백분율	분류	개수	백분율
주식류	872	33.09%	주식류	410	27.15%
부식류	418	15.86%	부식류	447	29.60%
후식류 및 기타	1345	51.04%	후식류 및 기타	653	43.25%
총수	2635	100.00%	총수	1510	100.00%

<표 6>을 보면 양국 모두 후식류 및 기타 항목의 비율이 가장 크지만 그것은 음식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기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식류가 부식류의 두 배에 달한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주식류와 부식류가 비슷하다. 그 이유는 주식류의 하나인 밥이 속담 어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밥이 쌀밥, 보리밥과 같은 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식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밥이 주식류를 비롯하여 식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면, 빵, 빵 등의 다양한 주식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류로 음식에서 나타난 양국의 유사한 문화와 차이를 알아보았다.

음식은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불가결한 생활습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가 상이한 한·중 음식 속담을 검토해 보아도 공통적인 것이 있기 마련이다(평소방 2010: 14). 이를 통해 음식 속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음식 속담은 두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음식 습관과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반영한다. 김사엽(1982)이 “속담은 한 민족정신의 소조(小照)”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음식 속담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정신, 풍속, 제도, 향토 음식, 생활 습관 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보다 국토가 좁지만 지역마다 기후 특성이 달라 음식도 다양하다. 한국에서도 쌀밥이나 보리밥을 주식으로 한다. 또한 한민족 고유의 음식인 김치, 장, 장아찌, 젓갈 등의 발효 음식이 속담에 많이 나타난다. 떡은 제사 및 명절 때 없으면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떡도 한국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떡보 메고 배부르다 한다(실속도 없으면서 허언만 한다).” “보리밥에는 고추장이 제격이다(무엇이나 서로 격이 맞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다).” 등이 있다.

중국 음식문화는 중국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다. 긴 세월동안 동서남북 각 지역의 지리나 기후에 따라 식생활 문화도 다르게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의 지역 특징은 “남쪽 음식은 달고 북쪽 음식은 짜며, 동쪽 음식은 맵고 서쪽 음식은 시다(南甜北鹹東辣西酸).” 7)라고 말한다.

남침(南甜)은 중국 팔대요리 중 하나인 강소요리(회양요리)의 대표적인 맛이다. 중국 남쪽 사람들은 단맛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대추 등 여덟 가지 과일을 얼음 사탕과 섞어 지은 찹쌀밥인 팔보반(八寶飯), 제비집 수프인 연와갱(燕窩羹), 달달한 떡 음식인 당고(糖糕) 등의 음식은 모두 단맛이 강한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이 상징하는 단맛은 생활이 감미롭고 행복하길 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남쪽에 위

7) 중국의 요리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종류 또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각 지역의 지리나 기후 환경이 다르고 생산물도 달라서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 각각의 음식 맛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중국 각 지역의 맛에 대해 '남침(南甜), 북함(北鹹), 동달(東辣), 서산(西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남쪽지방은 달고, 북쪽은 짜고,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신맛의 요리 등으로 대략적인 특징이 지어진다. '남침(南甜), 북함(北鹹), 동달(東辣), 서산(西酸)'과 같은 분류는 개괄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 뿐이다. 중국은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고 다민족 다문화권을 포함한 나라여서 음식습관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국지적으로 음식 맛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음식 맛의 차이는 각 지역의 경제발전이나 민족 습관 혹은 개인적 습관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한 광둥성(廣東省)·저장성(浙江省)·윈난성(雲南省) 사람들은 대부분 단 음식을 좋아한다. 남쪽은 비가 많고 더운 날씨로 인해 사탕수수가 많이 자라나고, 야채 또한 일 년에 몇 번씩 거두어들이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남쪽 지역 사람들에게 설탕은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조미료이므로, 자연스럽게 남쪽 지역 사람들은 단맛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짠맛은 북방지역인 산둥(山東)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산둥요리는 중국의 오래된 대표적인 지역 요리이다. 북쪽 음식은 전통적으로 비교적 짜고 장(醬)을 선호하여 소금으로 절인 고기나 생선요리가 많다. 따라서 북쪽요리는 짜다는 뜻의 ‘북鹹(北鹹)’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교통이 발달되기 이전에 북쪽 사람들은 신선한 야채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북쪽지역은 일 년 동안 기온차가 심해 채소를 겨울을 넘겨 재배하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북쪽지역에서는 채소가 귀한 음식이었기에 소금에 절여 오랜기간 동안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하였다. 이런 이유로 북쪽 사람들은 점차 짠 음식을 먹는 식생활이 형성되었다.

동랄(東辣)은 주로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장시(江西), 구이저우(貴州), 쓰촨(四川) 그리고 동북 조선족들을 지칭한다. 중국에서는 “湖南人不怕辣, 貴州人辣不怕, 四川人怕不辣(호남 사람은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귀주 사람은 매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천 사람은 맵지 않을까 두려워한다)8)” 라는 말도 유행한다. 매운 음식은 다습한 기후 혹은 추운 기후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동부 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습도가 높고 봄에 흐린 날이 많고 다습하다. 일 년 사계절 동안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매운 맛과 다습한 기후의 관계는 쓰촨성(四川省)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쓰촨성(四川省)은 중국의 동부 지역은 아니지만, 분지(盆地)가 많아 다습할 뿐만 아니라 안개도 많이 생기는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땀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어려워 몸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쉽게 땀을 흘리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중국의 동북지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인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추위를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서산(西酸)은 산시(山西) 사람을 상징한다. 산시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식초부터 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맛을 좋아한다. 산시성(山西省) 사람

8) 여기에는 호남요리와 사천요리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쓰촨성(四川省)은 중국의 동부 지역은 아니지만, 분지가 많아 다습할 뿐만 아니라 안개도 많이 생기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땀을 배출하기 위해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된다.

에게는 초루자(醋藁子)라는 별명도 있다. 서쪽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식초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식초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고粱으로 만든 식초, 옥수수로 만든 식초, 좁쌀로 만든 식초, 감으로 만든 식초 등 온갖 식초가 있다. 그래서 산시성(山西省)을 식초의 고향이라고도 부른다. 이와 같이 음식 습관에서 보면 사람의 입맛은 지역 환경과 문화에 따라 차이에 달려 있다.

한편, “南人吃米北人吃面(남쪽 지방 사람들은 쌀을 먹고, 북쪽 지방 사람들은 면을 먹는다.)”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에서는 남쪽 사람들은 쌀을 먹고 북쪽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이는 한족(漢族)들 주식(主食)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행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면 생활이 다양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중국 남북 두 지역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주식(主食)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국 남쪽 사람들은 주로 쌀을 먹지만 지역에 따라 죽을 먹거나 혹은 쌀로 만든 떡 종류를 먹는 등 다양한 식사 풍속이 형성되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절음식을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죽을 만든다. 예를 들면, 봄에 야채가 들어간 죽을 먹고, 여름에 녹두죽을 먹고, 가을에 연근을 넣은 죽을 먹고, 겨울에 양고기를 넣은 죽을 먹는다. 이외에도 갈비를 삶아 만든 죽, 각종 곡식이 들어간 팔보죽(八寶粥), 발효시킨 오리 알인 ‘피단(皮蛋)’을 넣은 피단죽(皮蛋粥) 등등 다양하게 먹는다. 뿐만 아니라 남쪽지역 사람들은 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이 가운데 유명한 것은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의 ‘탕위안(湯圓)⁹⁾’, 윈난성(雲南省)의 ‘귀초우미선(過橋米線)¹⁰⁾’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먹거리이다.

중국 북쪽 사람들은 주로 ‘찐빵(饅頭)’, ‘교자(餃子)’, ‘국수(面條)’, ‘전(餅)’, ‘만두(包子)’ 등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선호한다.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교자(餃子)는 중국 북쪽지역 사람의 명절음식으로 동지(冬至)나 춘절(春節) 등 주요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즐겨먹는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동짓날에 교자(餃子)를 먹으면 귀뿌리가 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국수는 면이 길어 생일날 먹으면 장수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남방 지역에서 차(茶)는 중국 사람들에게 일상생활과 떨어질 수 없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식문화이다. 중국 속담에는 “開門七件事: 柴, 米, 油, 鹽, 醬, 醋, 茶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7가지 있는데 바로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9) 찹쌀가루 등을 새알 모양으로 빚은 것으로 대부분 소를 넣어 만든다. 또는 이것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

10) 윈난(雲南)풍의 쌀국수.

차를 말한다)” 라는 말을 통해 차가 생활필수품처럼 논의되는 것을 보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두 나라 음식 속담의 예에서 속담은 한 민족의 음식 문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중 양국 식생활의 차이점을 통해서 민족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 한·중 음식 속담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교훈, 지혜 등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 음식 속담에서 “밥값보다 고추장 값이 더 비싸다.” 는 비싸야 할 것이 싸고, 싸야 할 것이 비싸다는 뜻으로, 주체가 되는 것보다 부수적(附隨的)인 것이 더 많거나 비용(費用)이 크게 날 때를 의미한다. 또 “가는 떡이 하나면 오는 떡도 하나다.” 는 남에게 대우를 잘 받고 못 받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말이다. 즉 한국인들은 남을 잘 대우해 주어야 자기도 남에게서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서 흥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는 노력하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을 빗대는 말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얻은 교훈적 내용은 각 음식 속담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음식 속담 “吃別人嚼過的饅不香(남이 씹어준 떡은 맛이 없다.)” 은 남들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부족하므로 직접 다시 알아보아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吃多味不美, 話多不值錢(많이 먹으면 맛이 없고, 말이 많으면 값이 없다.)” 은 음식을 먹든 말을 하든 적당히 하라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一口吃不成胖子(한 술을 먹어 똥보가 되지 않는다.)” 는 무슨 일이나 첫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뜻으로, 성과를 조금하게 바라지 말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송재선(1998)이 엮은 《음식 속담 사전》 음식편에서 “가만히 먹는 음식이 체하기 쉽다.” “먹어도 굶어죽는다.” “보고도 먹지 못한다.” 등 ‘먹다’ 와 관련된 속담들은 음식 속담에 속한다. 따라서 음식 속담은 음식물이 들어 있지 않아도 ‘먹다’ 라는 것이 나타나면 음식 속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 음식 속담에서 “가만히 먹으라니까 뜨겁다고 한다.” 는 동정하여 주는 사람의 체면도 모르고 눈치 없는 짓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끓주리면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먹는다.” 는 끓주린 사람은 맛을 따지기보다는 우선 배를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나타난다. “먼저 먹은 후 답답.” 은 욕심을 내어 먼저 먹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쉽거나 안타깝다는 것이다.

중국 음식 속담에서 “吃飽了撐的(배 터지게 먹었다.)” 는 배가 불러서 숨이 가빠 못 견딜 지경이라는 뜻으로서 배불리 먹고 할 짓이 없으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한다는 것이다. “坐吃山空(앉아서 먹기만 하면 산이라도 밑창이 난다.)” 는 일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산처럼 많은 재물도 다 거덜이 난다는 말이다. 또 “吃不了, 兜著走(먹지 못하면 싸가지고 가라.)” 는 일을 저질렀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넷째, 음식 속담 중에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속담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 속담 “끓어도 찻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 는 오래 삭혀 만든 찻국이 맛있듯이, 더불어 오래 살면서 쓴맛 단맛 다 본 남편에게 느끼는 정이 깊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을 귀하게 기르려면 객지 밥을 먹이겠다.” 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객지에서 온갖 고생을 겪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으로 음식 속담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 속담은 시대성, 지역성, 생활철학 등이 묻어난 간결한 말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음식 속담은 생활의 일부인 음식문화에서 생겨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음식 속담은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대중들의 생활에서,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3. 한 · 중 음식 속담의 형식과 의미

속담은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민족의 생활 습관, 지리 환경, 사고방식이 담긴 언어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음식 속담 사전》, 《한국의 속담 대사전》, 《중한성어속담대사전》 및 《中國俗語大詞典》에 수록된 음식 속담이다. 이러한 사전들에는 각각 3371개, 3174개, 1128개, 1345개의 음식 속담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복된 속담을 제외하면 한국 음식 속담은 3060개이고 중국의 음식 속담은 1470개이다. 이를 정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 · 중 두 나라의 속담을 동형동의, 동형이의, 이형동의 그리고 이형이의 등 4가지로 나누어 비교하기로 한다.

3.1. 동형동의(同形同意) 속담

동형동의(同形同意) 속담이란 형식과 의미가 같은 속담을 말한다. 이는 한 · 중 양국이 지리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언어상으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 · 중 동형동의(同形同意)의 음식 속담

한국 음식 속담	중국 음식 속담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	酒後吐真言. (술을 마시면 참말이 나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種瓜得瓜種豆得豆. ¹¹⁾ (오이 심은 데서 오이 나고 콩 심은 데서 콩 난다.)
한 술밥 ¹²⁾ 을 먹는다.	一個鍋裏吃飯的人. (한 술밥을 먹는 사람이다.)
술에 일의 성패가 달렸다.	酒能成事, 酒能敗事. (술은 일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술잔은 작아도 빠져 죽는다.	酒杯雖小淹死人。 (비록 작은 술잔이라도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酒杯裏醉死的人，比大海裏淹死的人還多。 (술잔에 빠져 죽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
꽃은 반개가 좋고, 술은 반취가 좋다.	花朵半開正豔，酒過半酣正好。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곱다, 술은 반쯤 취하면 딱 좋다.)
술 마실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군자다.	酒中不語真君子。 (술 마실 때 말이 없는 사람이 진짜 군자다.)
박한 술이 차보다 낫다.	薄酒勝茶湯. ¹³⁾ (박한 술이 차보다 낫다.)
양 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掛羊頭，賣狗肉。 (양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수박 잃고 깨알 줍기.	丟了西瓜揀芝麻。 (수박을 잃고 깨알을 줍는다.)

<표 7>의 한국 속담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는 취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춰 두었던 말까지도 내놓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속담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ㄱ. 취중에 진담한다.

- 11) 《涅槃經》：“種瓜得瓜，種李得李。”《呂語集粹存養》：“種豆，其苗必豆，種瓜，其苗必瓜。”
- 12) 이규태 《선농의식》：“한 술밥을 먹는다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큰 뜻을 부여했던 민족은 없을 것이다. 생사고락이나 희비애로를 더불어 하는 동심일체의 결속의식이 바로 한 술밥이다.”
- 13) 蘇軾《薄薄酒二首(並敘)》：薄薄酒，勝湯茶；粗粗布，勝無裳；醜妻，餓婦勝空房。

- ㄴ. 취중에 진정 말.
- ㄷ. 취중에 진정 발이라.

중국 속담에 “酒後吐真言”은 술에 취하면 속마음을 말한다는 뜻으로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도 술에 취하면 대담하게 말하게 되는 경우를 가르키는 말이다. 여기서 두 속담은 형식과 의미가 거의 같고 다 술에 취하면 제 진심을 속임 없이 털어 놓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8) ㄱ. 醉后吐真情(술 취한 후에 진정이 나온다).
- ㄴ. 醉漢嘴里出真言(술 취하는 사람 입에서 진실이 나온다).
 - ㄷ. 醉語見真情(취해서 하는 말이 진정이 나온다).

이어서 두 번째 속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 속담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중국 속담의 “種瓜得瓜, 種豆得豆”는 두 가지 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빗대는 말이다. 좋은 시작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시작이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두 속담에서 사용된 음식 종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양국의 음식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 형식과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9) 한: ㄱ. 콩 심은 데서 팥 나올 리 없다.
- ㄴ. 콩 심은 데 콩 나고, 조 심은 데 조 난다.

- 중: ㄱ. 種果得果, 種瓜得瓜(과일 심은 데 과일 나고 참외 심은 데 참외 난다).
- ㄴ. 種麻得麻, 種豆得豆(삼 심은 데 삼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다음으로 한국 속담 “한술밥을 먹는다.”와 중국 속담 “一個鍋裏吃飯的人”은 다 ‘한 집안에서 한술밥을 먹는 친한 사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형식 또한 거의 같은 속담이다.

한국 속담 “술에 일의 성패가 달렸다.”와 중국 속담 “酒能成事, 酒能敗事”는 술은 일을 망칠 수도 있으니 늘 경계하라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 일이 잘 되면 ‘양약(良藥)’이 될 수 있고 잘 안 되면 ‘독약

(毒藥)’ 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두 속담은 완전히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속담인 “술잔은 작아도 빠져 죽는다.”와 중국 속담인 “酒杯雖小淹死人”은 술잔은 작지만 여러 잔을 먹게 되면 술에 취하여 망신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 속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와 중국 속담 “酒杯裏醉死的人，比大海裏淹死的人還多”는 술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뜻을 빗대는 속담이다.

한국 속담 “꽃은 반개가 좋고, 술은 반취가 좋다.”와 중국 속담 “花朵半開正豔，酒過半酣正好”는 어떤 것이든 완성된 것이나 꼭 찬 것보다는 어떤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신비감이라든지 참신성을 준다는 뜻을 빗대는 말이다.

한국 속담 “술 마실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군자다.”와 중국 속담 “酒中不語真君子”는 술을 마시면서 함부로 지껄이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한국 속담 “박한 술이 차보다 낫다.”와 중국 속담 “薄酒勝茶湯”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좋은 차 한 잔보다 값싼 술 한 잔이 더 낫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 속담 “양 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는 겉으로는 좋은 허물을 썼으나 실제 속은 좋지 못하여 음흉한 짓을 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 속담 “掛羊頭，賣狗肉”은 겉으로는 좋은 체하나 속으로는 음흉한 짓을 함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 한: ㄱ. 양 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판다.

ㄴ. 양 대가리 걸어놓고 쇠고기를 판다.

중: ㄱ. 懸羊頭，賣狗肉(양 개가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한국 속담 “수박 잃고 깨알 줍기.”는 큰 손해를 보고 하찮은 이익을 찾는다는 뜻을 빗대는 말인데 중국 속담 “丟了西瓜揀芝麻”도 마찬가지로 큰 밀천을 들여 아주 작은 이익밖에 얻지 못하거나 큰 손해를 보고나서 조그마한 이익에 급급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한국과 중국 속담은 의미부터 표현 형식에 이르기까지 서로 같거나 유사한 속담

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음식 속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상으로 보면 이웃나라이며, 문화상으로 보면 같은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였고 이와 동반된 문화적인 경향과 음식에 대한 이해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팽소방 2010: 66).

3.2. 동형이의(同形異意) 속담

동형이의 속담이란 표현 형식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의미와 용법이 다른 것을 말한다. 한·중 음식 속담 중에서 동형이이의 속담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언어 표현방식과 사고 방식 차이에 따라 이러한 속담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8>와 같다.

<표 8> 한·중 동형이이의(同形異意)의 음식 속담

한국 음식 속담	중국 음식 속담
냉수 먹고 이 썩신다.	喝口涼水都塞牙. (냉수를 마셔도 이에 낀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다.	酒不醉人人自醉. ¹⁴⁾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
꿀 먹은 병어리.	啞巴吃黃連, 有苦說不出. (병어리가 황련을 먹고도 쓰다는 말을 못한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雞蛋裏面挑骨頭. (달걀 속에서 뼈를 고른다.)
한 밥그릇에 두 술 ¹⁵⁾ 이 없다.	一碗飯二匙難並. (밥 한 그릇을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없다.)

<표 8>에서는 “냉수 먹고 이 썩신다.” 라는 속담은 하찮은 일을 해놓고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이고 중국 속담 “喝口涼水都塞牙”는 ‘재수가 없어 일이 자꾸 꼬인다는 것을 비겨 이른다’ 라는 뜻이다. 두 속담은 표현이 거의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1) 한: ㄱ. 냉수 먹고 이빨 썩신다.
 ㄴ. 냉수 먹고 주정한다.

- 중: ㄱ. 喝口涼水也要塞牙(냉수를 한 모금만 마셔도 이에 낀다).
 ㄴ. 喝涼水塞牙(냉수 마셔 이에 낀다).

한국 속담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다.”와 중국 속담 “酒不醉人人自醉”는 모두 표면적인 의미가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층적인 의미를 보면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다.”는 술은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것이고, 제멋에 취할 뿐이라는 뜻인 반면, “酒不醉人人自醉”는 주위환경이 사람의 심정을 도취하게 만드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즉,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적 원인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속담은 표현 형식이 거의 같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한국 속담 “꿀 먹은 병어리.”는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중국 속담 “啞巴吃黃連”은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애를 태우며 걱정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속담으로

14) 明·施耐庵《水滸傳》第四回：“酒中賢聖得人傳，人負邦家因酒覆。解嘲破惑有常言，酒不醉人人自醉。”
 清·醉月山人《狐狸緣全傳》：“茶亦醉人何須酒，書自香我何須花。酒不醉人人自醉，花不迷人人自迷。吟成白雪心如素，醉倒梅花香也清。昔日浣沙今日恨，玉人如許願相親。”
 錢鍾書《圍城》：“酒不醉人人自醉，色不迷人人自迷。今朝有緣來相會，明日你東我向西。”

15) 술06: <의존명사> 밥 따위의 음식물을 손가락으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
 밥 두어 술.
 【술<구방>】.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2) ㄱ. 啞子吃黃連, 有苦說不出(병어리 황련을 먹고 쓰다는 말을 못한다).
 ㄴ. 啞巴吃黃連, 口里說不出(병어리 황련을 먹고 말을 못한다).
 ㄷ. 啞巴吃黃連, 有口難言(병어리 황련을 먹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ㄹ. 啞子夢見娘, 有苦說不出(병어리가 어머님을 꾸었는데 힘든 것은 말을 못한다).

여기서 한국 속담에서 나온 음식은 꿀이고 중국 속담에서 나온 음식은 황련이지만 속담의 표현 형식이 비슷하다. 따라서 두 속담의 심층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 형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속담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운수 좋지 않은 사람이 모처럼 기회를 얻었다 싶었는데 그것마저 불행하게 되었다’는 속담이다. 중국 속담인 “雞蛋裏面挑骨頭”는 ‘없는 흠집을 억지로 찾으려 함을 비겨 이른다’는 뜻이다. 두 속담의 표현 형식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속담인 “한 밥그릇에 두 술이 없다.”는 한 남자에 두 여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비유한 말인 반면에 중국 속담인 “一碗飯二匙難並”은 한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두 속담의 표면적인 의미는 모두 한 밥그릇에 두 손가락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속담은 표면적인 의미가 비슷하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다.

이상은 한·중 양국의 형식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속담들이다. 이러한 동형이의 음식 속담이 생성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음식 속담은 중국 음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 속담의 형식과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둘째, 한·중 두 나라의 음식 문화가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결국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다. 이처럼 문화가 다른 두 민족은 사물을 판단할 때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각자의 견해와 가치관이 존재한다.

3.3. 이형동의(異形同意) 속담

이형동의 속담은 말 그대로 의미가 같고 표현 형식이 다른 속담을 말한다. 즉, 형식으로만 보아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일치된 속담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중 이형동의(異形同意)의 음식 속담

한국 음식 속담	중국 음식 속담
다 된 죽에 코 푼다.	煮熟的鴨子飛了. (삶아 익힌 오리가 날아갔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를 터뜨린다.	偷雞不成蝕把米. (닭은 못 훔치고 쌀만 한 줌 손해 봤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天上掉不下餡餅來.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수 없다.)
끓기를 밥 먹듯 한다.	等米下鍋. (밥 지을 쌀을 기다린다.)
첫술에 배부르랴.	一口吃不成個胖子. (한 술을 먹어 뚱보가 되지 않는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心急吃不了熱豆腐. (마음이 급하면 따뜻한 두부도 못 삼킨다.)

<표 9>에서 한국 속담 “다 된 죽에 코 푼다.”는 표면적인 의미가 다 된 죽에 코를 풀어서 못 먹겠다는 뜻을 지닌다. 심층적인 의미는 잘 되어 가는 일에 심술궂게 망쳐 버린다는 말이다. 중국 속담 “煮熟的鴨子飛了”는 표면적으로 보면 익힌 오리가 기어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심층적인 의미 측면에서 보면 일이 성공을 앞둔 마지막 무렵에 낭패를 보게 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두 속담은 모두 손에 들어왔던 이익을 다시 놓쳤다는 뜻을 나타낸다. 두 속담은 형식이 다르지만 뜻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3) 한: ㄱ. 다 된 죽에 재 뿌린다.
 ㄴ. 다 된 죽에 코 빠졌다.
 ㄷ. 다 된 죽에 코 떨어뜨렸다.

ㄹ.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중: ㄱ. 煮熟的鷄爬起來跑了(다 익힌 닭이 일어나서 도망친다).

한국 속담 “콩 볶아 먹다가 가마를 터뜨린다.”는 콩을 볶아 먹으려다가 가마솔이 깨진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심층적인 의미는 하찮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중국 속담 “偷雞不成蝕把米”는 닭을 훔치려고 쌀 한 줌 뿌렸는데 닭을 붙잡지 못하였으니 쌀만 손해 보았다는 뜻으로서 이익을 얻으려다가 도리어 손해 보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두 속담은 모두 이익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4) 한: ㄱ.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솔 깨뜨린다.

ㄴ. 콩 볶아 먹으려다 가마솔만 깬다.

중: ㄱ. 偷雞不着蝕把米(닭을 훔치지 못하고 쌀만 손해 본다).

ㄴ. 偷雞不着白蝕米(닭을 훔치지 못하고 괜히 쌀만 손해 본다).

ㄷ. 偷雞不成白搭上几把米(닭을 훔치지 못하고 괜히 한 줌 쌀만 손해 본다).

ㄹ. 偷雞不到蝕把米(닭을 훔치지 못하고 쌀만 손해 본다).

한국 속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어떤 상황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우연히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이다. 중국 속담 “天上掉不下餡餅來”는 심층적인 의미를 두 가지 지니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는 뜻으로서 공짜를 바라거나 요행을 바라지 말 것을 권고하여 이르는 말이다. 두 속담의 형식이 전혀 다르지만 모두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5) 한: ㄱ.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ㄴ. 감나무 밑에 누워 연시 입 안에 떨어지기 바란다.

중: ㄱ. 天上掉餡餅(하늘에서 전이 떨어진다).

한국 속담 “끓기를 밥 먹듯 한다.”는 끼니를 무척 자주 끓는다는 뜻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중국 속담 “等米下鍋”은 밥 지을 쌀을 기다린다는 표면적인 의미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여유 없는 가난한 생활을 비겨 이르는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속담은 표현 형식이 같지 않지만 다 가난한 생활을 형용한다.

한국 속담 “첫술에 배부르랴.”는 처음 한 번 한 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을 빗대는 말이다. 중국 속담 “一口吃不成個胖子”는 무슨 일이나 첫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두 속담의 표현 형식이 전혀 다르지만 심층적인 의미는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6) 한: ㄱ.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중: ㄱ. 胖子也不是一口吃的(똥보가 한 입만 먹으면 될 수 없다).

한국 속담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는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 빨리 해내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 실패한다는 뜻이고, 중국 속담 “心急吃不了熱豆腐”는 일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두 속담은 심층적인 의미가 비슷하지만 속담에서 나온 음식,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양국 속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7) 한: ㄱ.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

ㄴ. 급히 먹는 밥은 똥이 거칠다.

중: ㄱ. 心急喝不得熱黏粥(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국을 못 먹는다).

ㄴ. 心慌喝不得燙奶茶(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밀크 티를 못 마신다).

ㄷ. 心急吃不了爛米飯(마음이 급하면 뜨거운 밥을 못 먹는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민족이며, 서로 다른 생활환경, 세시 풍습 그리고 음식 문화 등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 속담의 형식과 의미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한·중 양국의 음식 속담에

나오는 음식 소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배경에서 생성된 속담은 형식이 같지만 표현하는 음식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 속담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의미가 서로 같게 될 수도 있다.

3.4. 이형이의(異形異意) 속담

이형이의 속담은 형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속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속담은 한·중 두 나라의 고유한 속담에 속하는 것들이다.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한국에만 존재하고 중국에서는 대응하는 표현 방식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속담은 중국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중국 음식 속담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한국인의 문화, 역사, 생활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싼 게 비지떡이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등 중국인들이 이 속담을 이해하려면 먼저 ‘김치국’, ‘비지떡’ 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한국 음식 속담은 한국인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의 문화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다음과 같다.

<표 10>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	의미
부잣집 떡개는 작다.	부자일수록 더 인색함을 비겨 이르는 말.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남에게 큰 도움을 자기도 남에게 그만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
가는 밥 먹고 가는 똥 누렸다.	욕심을 조금만 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맛이라.	속 깊이 있는 참맛을 알려면 겉으로만 핥을 것이 아니며, 말도 할 말이면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사소한 것이 방해한다고 해서 큰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빗대는 말.
금강산도 식후경.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누워서 떡 먹기.	어떤 일이 무척 쉽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옳지 못한 짓을 하고는 숨기려고, 다른 것을 남에게 보이는데 그 숨씨가 서투름을 이르는 말.
당장 먹기엔 껏감이 달다.	당장은 좋지만 나중엔 해가 된다는 말.
	뒷일은 생각지 않고 당장 먹기 좋거나 하기 좋은 것만을 하는 것은 유익하거나 이로운 것이 못 된다는 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평소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필요한 물건을 보게 되면 그를 이용하여 일을 쉽게 하는 경우에 이르는 말.
	하려고 생각하던 중 마침 본 김에 해 버린다는 뜻.
명태와 여자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¹⁶⁾ .	명태는 빨랫방망이로 두드려야 먹기에 좋고, 여자는 성교를 통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	일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될 때에 심술을 부려 훼방함을 이르는 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일이 극히 무미(無味)함을 이르거나 아무리 가공을 하여도 본바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노력을 들여야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빛 좋은 개살구.	겉보다 그럴 듯하지만 속내는 형편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이 좋다.	술은 어떠한 여자라도, 여자가 따를 때 제 맛이 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싼 게 비지떡이다.	값이 싼 것은 그 품질도 당연히 나쁜 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콩을 팔이라고 해도 곧이듣는다.	콩과 팔을 가리지 못할 만큼 우매하고 무지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남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를 잘하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평 먹고 알 먹는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뜻.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	남의 것을 이용해서 생색을 내거나, 제 할 일을 해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	주(主)가 되어야 할 것보다 오히려 부수되어야 할 것이 많다는 말로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두부 먹다 이 빠진다.	방심하는 데서 실수가 생기기 쉬우니 항상 조심하라는 말.
	틀림없을 자리에서 뜻밖의 실수를 한다.
떡국이 농간(弄奸)한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에서, 나이 먹은 값으로 제법 그럴듯하게 재간을 부림을 이르는 말.

	재질은 부족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오랜 경험으로 일을 잘 감당해 나감을 이르는 말.
두부살에 바늘 뼈.	몹시 허약하여 조금만 아파도 몹시 염살 부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성미가 매우 급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이상으로 한국 고유의 음식 속담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중국에만 존재하고 한국에서는 대응하는 표현 방식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속담은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응하는 한국 음식 속담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중국인의 문화, 역사, 생활 등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好吃不如餃子(맛이 있어도 물만두만 못하다)”, “好茶不怕細品(좋은 차는 꼼꼼히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酒逢知己千杯少(막역한 친구를 만나 마시는 술은 천 잔도 적다)” 등이 있다. 이처럼 중국 음식 속담은 중국인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의 문화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	의미
吃人飯, 拉狗屎. (사람의 밥을 먹고 개똥을 썬다.)	심보가 고약함을 비겨 이르는 말.
酒肉朋友 柴米夫妻. ¹⁷⁾ (친구는 술과 고기로 유지되고 부부는 쌀과 쌀나무로 유지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쌀과 쌀나무가 술과 고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狗肉不上桌. ¹⁸⁾	자격이나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 축에

16) ‘명태는 빨랫방망이로 두드려야 하고, 여자는 가축방망이로 두드려야 한다’ 는 말과 같다.

(개고기는 상에 오르지 못한다.)	끼지 못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好茶不怕細品, 好事不怕細論. (좋은 차는 꼼꼼히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훌륭한 일은 세세히 평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한다면 그 어떤 비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好吃不如餃子, 自在不如倒著. ¹⁹⁾ (맛이 있어도 물만두만도 못하고 편안해도 누워있는 것만도 못하다.)	물만두가 제일 맛있고 누워있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뜻으로서 먹고 노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茶喝多了養性 酒喝多了傷身. (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차는 건강에 좋고 술에 건강에 나쁨을 의미.
肉不如雞 雞不如魚. (고기는 닭보다 못하며 닭은 생선보다 못하다.)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맛과 영양, 가격 면에서 좋다는 것을 뜻하며 생선이 가장 좋음을 뜻함.
叫花子不嫌陳稀飯, 餓老鴉不嫌臭泥鰱. (거지는 식은 죽을 싫어하지 않고 배고픈 오리는 냄새 나는 미꾸라지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무나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기뻐한다는 뜻이다.
吃米不知米貴. (쌀밥을 먹으며 쌀밥이 귀한 줄 모른다.)	주변사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을 비유한다.
南人吃米北人吃面. (남쪽 지방 사람들은 쌀을 먹고, 북쪽 지방 사람들은 면을 먹는다.)	지역마다 식생활의 차이가 있다.
吃百家飯, 得百家福. (백 집의 밥을 먹으면, 백 집의 복을 얻는다.)	길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여러 집의 밥을 먹으면 복이 있다는 뜻이다.
沒雞蛋也做糕. (계란이 없어도 떡을 만든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不下高粱本, 得不著老酒喝. (가래떡을 만들려면 고구마를 많이 넣어야 한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원

(고양을 넣지 않으면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비유한다.
看見豬頭肉，趕緊要還俗。 (돼지고기를 보면 중노릇을 그만둔다.)	의지가 강한 중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돼지고기 맛이 좋다는 의미.
做一世和尚，吃壞了一餐狗肉 (한평생 중노릇하다가 한 끼 개고기를 먹고 잘못되었다.)	한 번의 실수로 하여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되어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冬吃羊肉賽人參。 (겨울에 먹는 양고기는 인삼을 이긴다.)	양고기는 몸 보양에 좋은 음식으로 특히 가을, 겨울철에 먹으면 몸에 좋다.
再大的烤餅，也大不過烤餅的鍋。 (아무리 크게 구운 빵이라도, 빵을 구운 솥보다 크지 못하다.)	지위는 변할 수 없으며, 영원히 다른 사람의 관할에 속해 있음을 뜻한다.
薑是老的辣，茶是後來釀。 (생강은 여운 것이 맵고 차는 모래 탄 것이 진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打一巴掌，給個甜棗吃。 (따귀를 때리고는 대추를 먹으라고 준다.)	남을 해치고는 그를 챙기는 체함을 비겨 이르는 말.

17) 明顧起元《客座贅語諺語》：“南都 閩巷中常諺，往往有龕俚而可味者，漫記數則。如曰……柴米夫妻，酒肉朋友，盒兒親戚。”

18) = 狗肉包子上不得席. 이 속담은 중국의 역사와 풍습이 담겨 있어 문헌과 전설에 따라 달라짐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① 남북조(南北朝)시대는 유목(遊牧) 민족이 많고, 그들은 사냥하는 도구격인 개를 위주로 하여 방목(放牧)하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식한다. 게다가 그 때는 불교가 번창하는 시대였으니 불교 전적에서 개는 더러운 존재로 보아서 금식한다.

② 송나라 때 휘종(徽宗)이 “崇寧初，範致虛上言，‘十二宮神狗戍位，為陛下本命，今京師有以屠狗為業者宜行禁止’.” 라는 말을 듣고 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황명을 내렸다.

③ 청나라 때 만족(滿族) 사람은 개와 까마귀가 천명제(努爾哈赤)의 목숨을 살려낸다는 전설을 믿어 개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개고기는 술상에 오르지 못한다.

④ 사람들은 개가 똥을 먹는 동물이라서 천하고 건강하지 않고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⑤ 옛날부터 개를 때리고 헤어진다는 말이 있으니 개고기를 먹으면 헤어진다는 뜻을 의미해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 개고기를 안 먹는다.

위의 표에서 “吃人飯, 拉狗屎(사람이 밥을 먹고 개똥을 썬다.)”는 사람이 일을 할 때 믿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심보가 고약함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酒肉朋友 柴米夫妻(친구는 술과 고기로 유지되고 부부는 쌀과 땀나무로 유지된다.)”는 술상 친구와 동고동락하는 부부 사이를 대비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데는 쌀과 땀나무가 술과 고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狗肉不上桌(개고기는 상에 오르지 못한다.)”은 보통 손님이 오면 술상을 마련하는데 고대의 중국 사람은 개고기를 천한 음식이라고 여겨 상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다. 지금은 자격이나 지위가 낮으면 사람들 축에 끼지 못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好茶不怕細品, 好事不怕細論(좋은 차는 꼼꼼히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훌륭한 일은 세세히 평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은 좋은 것이라면 품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일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한다면 그 어떤 비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好吃不如餃子, 自在不如倒著(맛이 있어도 물만두만도 못하고 편안해도 누워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중국의 전통 음식을 담고 있으며, 물만두가 제일 맛있고 누워있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뜻으로서 먹고 노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茶喝多了養性 酒喝多了傷身(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은 차는 건강에 좋고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밥 먹듯이 볼 수 있다. 여기선 중국인의 음식 문화, 풍습, 일상생활을 담고 있다.

“肉不如雞 雞不如魚(고기는 닭보다 못하며 닭은 생선보다 못한다.)”는 음식 영양을 보면 닭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맛과 영양, 가격 면에서 좋다는 것을 뜻하며 생선이 가장 좋음을 뜻한다.

“叫花子不嫌陳稀飯, 餓老鴉不嫌臭泥鰱(거지는 식은 죽을 싫어하지 않고 배고픈 오리는 냄새 나는 미꾸라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아무나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만 보아도 기뻐한다는 뜻이다.

“吃米不知米貴(쌀밥을 먹으며 쌀밥이 귀한지 모른다.)”는 어떤 사람이 주변사

19) = 好吃不如餃子, 舒服不如躺著

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것이다.

“南人吃米北人吃面(남쪽 지방 사람들은 쌀을 먹고, 북쪽 지방 사람들은 면을 먹는다.)”은 지역마다 식생활의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중국은 지역에 따라 음식 습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吃百家飯, 得百家福(백 집의 밥을 먹으면, 백 집의 복을 얻는다.)”은 길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여러 집의 밥을 먹으면 복이 있다는 뜻으로 중국의 육아 풍습을 알아볼 수 있다.

“沒雞蛋也做糕(계란이 없어도 떡을 만든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不下高粱本, 得不著老酒喝(고粱을 넣지 않으면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看見豬頭肉, 趕緊要還俗(돼지고기를 보면 중노릇을 그만둔다.)”은 의지가 강한 중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돼지고기 맛이 좋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做一世和尚, 吃壞了一餐狗肉(한평생 중노릇하다가 한 끼 개고기를 먹고 잘못 되었다.)”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되어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이다.

“冬吃羊肉賽人參(겨울에 양고기는 인삼을 이긴다.)”은 양고기의 효능을 보면 양고기는 몸 보양에 좋은 음식으로 특히 가을, 겨울철에 먹으면 몸에 더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再大的烤餅, 也大不過烤餅的鍋(아무리 큰 구운 빵이라도, 빵을 구운 솥보다 크지 못한다.)”는 지위는 변할 수 없으며, 영원히 다른 사람의 관할에 속해 있음을 뜻한다.

“薑是老的辣, 茶是後來釀(생강은 여문 것이 맵고 차는 모래 탄 것이 진하다.)”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打一巴掌, 給個甜棗吃(따귀를 때리고는 대추를 먹으라고 준다.)”는 남에게 해를 입힌 뒤에 그를 챙기는 체한다는 뜻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상으로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보면 중국 고유의 음식 속담은 중국의 역사, 문화, 풍습, 음식 습관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好吃不如餃子, 自在不如倒著”에 나오는 음식물인 교자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에

먹는 전통음식이다. 또한 “南人吃米北人吃面”에서는 중국 땅이 넓어 지역에 따라 음식 습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식 속담을 통해서 언어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다.

4. 한 · 중 음식 속담 비교 분석

4.1. 한 · 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

한 · 중 양국은 이웃나라인 관계로 옛날부터 교류가 빈번하였다. 두 나라 모두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유교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봉건적인 농업 사회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에 공통점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두 나라의 음식 속담도 대응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속담은 비유와 풍자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생생하고 유익한 교훈을 전달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중에서 한 · 중 음식 속담은 두 나라 국민의 언어생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 · 중 음식 속담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국의 고유한 음식 소재, 먹는 방법 등의 음식 문화와 언어 습관,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 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 중 음식 속담은 양국 민족의 음식 문화를 반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 (18) ㄱ. 누워서 떡 먹기.
 ㄴ. 心急吃不了熱豆腐(마음이 급하면 따뜻한 두부도 못 삼킨다).
 ㄷ.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ㄹ. 吃人飯, 拉狗屎(사람의 밥을 먹고 개똥을 쏜다).

(18ㄱ)은 누워서 떡을 먹듯이 일이 매우 쉽다는 뜻이다. (18ㄴ)은 일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이다. (18ㄷ)은 제 잘못에 대해 시치미를 떼는 뜻이다. (18ㄹ)은 심보가 고약함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한 · 중 음식 속담에서는 대인관계와 공공관계를 다루고 있다. 음식 속담에서 음식 소재는 대부분 쉽게 얻을 수 있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택된다.

- (19) ㄱ. 한술밥을 먹는다.

- ㄴ. 飯後三碗茶(밥을 먹은 후에 차를 세 잔 마신다).
- ㄷ.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 ㄹ. 酒肉朋友 柴米夫妻(친구는 술과 고기로 유지되고 부부는 쌀과 쌀나무로 유지된다).

(19ㄱ)의 속담은 함께 생활하며 지낸다는 말이다. (19ㄴ)은 중국 사람의 음식 습관이 담겨 있다. 중국 요리는 기름기가 많아, 이 기름을 배출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차를 마시는 풍습이 형성되었다. (19ㄷ)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정을 충분히 베풀어야 나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몫이 되 돌아온다는 뜻이다. (19ㄹ)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쌀과 쌀나무가 술과 고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셋째, 한·중 음식 속담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행위나 타고난 뒤 그 원인이 되어 결과로 나타난다.

- (20) ㄱ.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ㄴ. 省了柴草, 吃了生飯(쌀감을 아끼다가 선밥을 먹는다).
- ㄷ. 주색에 빠지면 도리를 잃는다.
- ㄹ. 不下高粱本, 得不著老酒喝(고粱을 넣지 않으면 술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20ㄱ)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콩 심은 데서 팥 나올 리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조 심은 데 조 난다”와 같은 말이다. (20ㄴ)은 작은 것을 아끼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그르쳐 손해 봄을 비유한 말이다. (20ㄷ)은 주색에 빠져들면 예의엄치를 잊게 된다는 뜻이다. (20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한·중 음식 속담은 경계와 교훈 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중시한다는 점 또한 포함한다.

- (21) ㄱ.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 ㄴ. 偷雞不成蝕把米(닭은 못 훔치고 쌀만 한 줌 손해 봤다).
- ㄷ. 떡국이 농간(弄奸)한다.
- ㄹ. 做一世和尚, 吃壞了一餐狗肉(한평생 중노릇하다가 한 끼 먹은 개고기에 탈난다).

(21ㄱ)은 다른 사람에게 정을 충분히 베풀어야 나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몫이 되 돌아온다는 뜻이다. (21ㄴ)의 속담은 이득을 얻으려다가 도리어 손해 보는 경우를

말한다. (21ㄷ)은 재주는 없어도 나이 먹은 경험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빗대는 말이다. (21ㄹ)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오랫동안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되어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다섯째, 한·중 음식 속담에는 건강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건강한 신체는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한·중 음식 속담에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속담이 있다.

(22) ㄱ. 고기 한 점이 귀신 천 마리를 쫓는다.

ㄴ. 冬吃羊肉賽人參(겨울에 먹는 양고기는 인삼을 이긴다).

ㄷ. 적게 먹으면 약주(藥酒)요, 많이 먹으면 망주(亡酒)다.²⁰⁾

ㄹ. 茶喝多了養性 酒喝多了傷身(차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고,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22ㄱ)의 속담은 몸이 쇠약했을 때는 고기를 먹고 몸을 돌보는 것이 건강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다. (22ㄴ)은 양고기는 겨울에 먹어야 몸에 더 좋다는 뜻으로 음식의 효능이 계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22ㄷ)은 술을 조금만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과음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은 정도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2ㄹ)도 (22ㄷ)과 마찬가지로 술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을 권계(勸誡)한다.

이상으로 한·중 음식 속담을 통해 양국 음식 속담이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점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는 양국의 음식 문화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음식 문화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연 환경이 다른 한국과 중국은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국토가 넓어 다양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식품 종류가 많고 음식 문화 및 조리방법이 다양하게 발달했다. 한편, 한국 음식은 식품 종류에는 비교적 한계가 있으나 문화와 조리법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했다. 한국 고유의 음식 습관과 삼면이 바다에

20) = 적게 먹으면 약주(藥酒)요, 많이 먹으면 독주(毒酒)다.

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에 따른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양국 음식 문화의 차이를 주식류, 부식류, 후식류 및 기타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음식 속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주식인 밥을 중요하게 여긴다. 면류는 밥만큼 자주 먹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특히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면, 만두, 전 등을 자주 먹는다. 그래서 한국 음식 속담 중에 밥과 관련된 음식 속담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에 중국 음식 속담 중에서는 면류와 관련된 속담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중국 음식 속담 중에 “啞巴吃餃子，心裏有數(병어리가 교자만두를 먹으면, 그 수를 마음속으로 센다)”라 하여 병어리도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뜻을 가진 속담이 있다. 한국에는 위와 같은 표현 방식은 없으나 “병어리가 서방질을 해도 제 속이 있다.”로 유사한 뜻을 지닌 것은 있다. 그리고 중국 음식 속담 중에 “肉包子打狗，一去不回頭(고기찐빵으로 개를 때리니 머리도 돌리지 않고 가버린다)”라 하여 한 번 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한국에는 찐빵을 이용한 속담은 없으나 “의붓아비 소 팔러 보낸 것 같다.”는 속담이 있어 심부름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상을 통해 밥과 관련된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중국의 주식은 밥을 포함하여 면, 전 등이 있어 한국의 주식보다 다양한 편이다. 다음은 양국의 주식을 이용한 속담으로 뜻이 유사한 경우이다.

- (23) ㄱ. 밥그릇 앞에서 굶어 죽을 사람(몹시 게으른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 ㄴ. 枕著烙餅餓死(전을 베고 죽는다는 뜻으로 몹시 게을러서 굶어죽는다는 말).

(23ㄱ)은 한국에서 ‘밥’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속담의 예로 쓰이는 반면, (23ㄴ)은 중국에서 밥보다 면이나 전류를 활용하여, 한국의 속담에 대응하는 언어(諺語)의 예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양국의 대응하는 속담은 뜻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두 나라의 문화와 음식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속담에 나타난 음식도 다르다.

둘째, 한국의 주식을 이용하는 속담은 중국 속담의 표현 방식과 다르나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 (24) ㄱ. 밥 위에 떡(경사에 경사가 겹쳐 있다/두 가지의 이득을 동시에 취한다).
 ㄴ. 錦上添花(금상첨화).

(24ㄱ)과 같이 한국에서는 ‘밥’이라는 단어가 속담에서 쓰이는 반면, (24ㄴ)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에서 성어(成語)의 예로 쓰여 한국의 속담에 대응한다.

다음은 부식으로 보는 국이다. 국은 한국인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기본적인 음식 중의 하나로서, 한국인의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거의 끼니마다 국을 먹는 한국인은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볶은 요리를 많이 먹는 중국인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처럼 선호하는 음식에 따라 그 나라의 음식 문화가 달라진다. 국과 관련된 한국 음식 속담과 대응하는 중국 성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 (25) ㄱ. 끓는 국에 국자 휘젓는다(남이 한창 화가 났을 때 더 화가 나도록 부추긴다).
 ㄴ. 火上加油(불이 붙는데 기름을 끼얹어 더 붙게 한다는 말로서 굴러가는 일을 더 크게 치게 하거나 성난 사람을 더 성나게 한다).²¹⁾
 ㄷ. 미역국을 먹는다(시험에 떨어진다).
 ㄹ. 名落孫山(시험이나 또는 선발에서 낙방되었다).
 ㅁ. 시라짓²²⁾국에 땀 낸다(하찮은 것을 얻느라고 고생을 한다).
 ㅂ. 小題大作(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크게 떠들어댄다).

(25ㄱ), (25ㄷ), (25ㅁ)에서는 한국에서 ‘국’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서 속담의 예로 쓰이는 반면, (25ㄴ), (25ㄹ), (25ㅂ)은 중국에서 한국의 속담에 대응하는 성어(成語)의 예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양국 대응하는 속담은 뜻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속담으로 표현하고 중국의 경우는 성어로 표현한다.

마지막은 후식으로 보는 떡이다. 떡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며 명절, 결혼식, 장례식 등 중요한 날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 음식 속담에서는 떡은 밥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다. 중국에서는 떡과 관련된 음식 속담은 없지만 떡을 대신한 음식으로 나타낸 속담이 있다.

- (26) ㄱ. 떡 주고 뽕 맞는다(은혜를 베풀고도 해를 당한다).

21) = 火上澆油

22) 시라짓: 시래기의 함경도 방언, 배춧잎이나 무청을 말린 것.

- ㄴ. 打一巴掌給個甜棗吃(따귀를 때리고는 대추를 먹으라고 준다).
- ㄷ. 그림의 떡(그림에 떡이 아무리 먹음 직하여도 실제로 먹을 수 없다).
- ㄹ. 畫的餅充不了饑(그림의 떡은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 ㅁ.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원수로 갚는다).
- ㅂ. 以眼還眼, 以牙還牙(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리한 행동으로 다스려야 한다).

(26ㄱ)과 (26ㄴ)를 보면 두 속담의 뜻이 같은데 한국의 경우는 속담에 나온 음식이 떡이고 중국의 경우는 속담에 나온 음식이 대추이다. (26ㄷ)과 (26ㄹ)은 마찬가지로 서로 뜻이 같은 속담인데 한국 속담에서는 떡으로 표현하고 중국 속담은 전으로 나타낸다. (26ㄹ)과 (26ㅂ)의 경우에는 양국 속담의 형식과 의미가 같지만, 한국 속담에 나온 음식은 떡이고, 중국 속담에서는 해당 음식이 없다.

이상으로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음식 문화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양국 음식 속담의 의미가 같더라도 나타내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과 한국에서 음식을 활용하면서 속담이라는 용어의 예로 쓰이는 반면, 중국에서는 속담이라는 용어 대신 성어의 예로 쓰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속담은 옛사람들의 경험, 교훈, 지혜 등이 담겨 있는 간결하고 통속적인 표현이며, 속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사상, 풍속, 생활 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속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음식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음식과 관련된 속담은 한 민족의 문화와 정신 세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한·중 두 나라의 음식 관련 속담에 대해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려고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한·중 두 나라 속담의 개념 및 특성과 함께 음식 속담의 개념과 범주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말하며, 중국의 속담은 성어(成語), 속어(俗語), 언어(諺語), 험후어(歇後語), 격언(格言)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속담의 특성은 간결하고 짧게 표현되고 비유적, 대구적, 과장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속담은 교훈, 지혜, 진리와 경계의 뜻 등 민중들의 생활 철학을 담고 있다. 그리고 속담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속담은 그 당시 생활문화가 담긴 시대상을 보여준다.

한편, 음식 속담이란 음식과 관련된 속담으로, 그 범주는 모두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요리 재료로 쓰이거나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음식 속담, 조리된 요리가 등장하는 음식 속담, 물을 포함한 주류(酒類), 음청류 속담, 음식의 맛과 관련된 속담, 음식과 관련된 행위 및 몸의 상태와 관련된 속담 등이 그것이다.

음식 속담의 특성은 한·중 두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음식 습관과 고유한 음식 문화를 반영한다. 속담에 등장하는 음식이 그 문화에서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 속담이 뜻하는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된다. 한·중 음식 속담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교훈, 지혜 등이 담겨 있다. 음식 속담 가운데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속담도 적지 않다.

제3장에서는 한·중 음식 속담을 형식과 의미에 따라 동형동의(형식과 의미가

같은 속담), 동형이의(표현 형식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의미와 용법이 다른 속담), 이형동의(의미가 같고 표현 형식이 다른 속담), 이형이의(형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속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 음식 속담을 언어적 측면으로뿐만 아니라 속담에 내포된 문화까지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2, 3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발생 원인인 양국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한·중 음식 속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한·중 음식 속담은 양국 민족의 음식 문화를 반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둘째, 한·중 음식 속담에서는 대인관계와 공공관계를 다루고 있다.

셋째, 한·중 음식 속담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넷째, 한·중 음식 속담은 경계와 교훈 의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중시한다는 점 또한 포함한다.

다섯째, 한·중 음식 속담에는 건강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한·중 음식 속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중국의 주식은 밥을 포함하여 면, 전 등이 있어 한국의 주식보다 다양한 편이다.

둘째, 한국의 주식을 이용하는 속담은 중국 속담의 표현 방식과 다르나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한국 음식 속담에 대응하는 중국 성어의 경우가 있다.

넷째, 중국에서는 떡과 관련된 음식 속담이 없지만 떡을 대신한 음식으로 표현한 속담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음식 관련된 속담을 비교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를 위해 참고한 음식속담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음식 속담은 기존에 기록되어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였기에 본 연구가 모든 속담에 적용된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방대한 한·중 음식 속담의 특성을 망라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속담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뿐만 아니라 음식 속담의 유래를 분석하는 연구도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 속담의 수량을 좀 더 확대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호 외(2000), 《식생활과 문화》, 광문각.
- 김문주 외(2011), 《세계 식생활 문화》, 훈민사.
- 김사엽(1982), 《속담논》, 대건출판사.
- 김선풍, 리룡득(1993), 《속담이야기》, 국학자료원.
- 김순진(2011), 〈중국의 음식문화 어휘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정은(2007), 〈중국 음식문화 어휘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 린즈위(2013), 〈한·중 음식 관련 관용어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
- 백악천, 막효뢰(2010),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한·중 음식 관련 관용표현의 특징 비교 -한국어 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韓國思想과 文化》 53, 217~243, 한국사상문화학회.
- 변재옥(2007), 《동서속담사전》, 영남대학교 출판부.
- 서정수(1998), 《세계 속담 대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송재선(1990),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정동출판사.
- 송재선(1998), 《음식 속담 사전》, 동문선.
- 안남심 외(1999), 《속담하나 논리하나》, 청솔출판사.
- 오정란, 교지연(2011),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문화 비교》, 박이정.
- 汪夢覺(2007), 〈한중 속담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왕수기(2008), 〈음식 관련된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元英燮(1993), 《무리 속담 사전》, 세창출판사.
- 원윤희(1999), 《세계의 음식문화》, 자작나무.
- 유순익(2014), 〈음식 속담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은중(2011), 《중한성어속담대사전》, 박이정.

- 육 흔(2007), 《한·중·일 삼국의 문화 엿보기-속담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 殷淑英(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연구 - 음식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강연 외(2000), 《식생활과 문화》, 태학사.
- 李基文(1962), 《俗談 辭典》, 民衆書館 .
- 李基文(1972), 《韓國의 俗談》, 三星文化財團.
- 이정주(1995), 《금언과 속담》, 도서출판 선영사.
- 이지호·이규봉(2003), 《한국 음식》, 광문각.
- 이을환(1971), 〈韓國 俗談의 文法構造 研究: 주로 女性俗談을 中心으로〉, 《아시아여성연구》 10, 83~109,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 이효지(1998), 《한국의 음식문화》, 신광출판사.
- 李亨蘭, 王玉霞(2004), 《중국어 관용어 사전》, NEXUS CHINESE.
- 임동권(2002), 《속담 사전》, 민속원.
- 장서·장범성(2007), 《중국의 의식주 문화산책》, 한림대학교 출판부.
- 정상진(1995), 《우리 민속과 전통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정희 외(2012), 《흥광미롭고 다양한 세계의 음식문화》, 광문각.
- 정종진(2006), 《한국의 속담 대사전》, 태학사.
- 정해옥·김재숙(2001), 《한국음식의 이해》, 교학연구사.
- 정해옥 외(1999), 《한국 전통음식》, 文知社.
- 정현숙·조연숙(2012), 《세계 식생활 문화 이해》, 양서원.
- 조미자 외(1998), 《한국 전통 식품과 조리》, 효일문화사.
- 曹 勇(2010), 〈한국과 중국의 음식 속담의 비교 연구:[음식 속담 사전](1998)과 [속담사전](2006)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대학원).
- 조윤준 외(2014), 《세계의 식생활과 문화》, 파워북.
- 조평환, 이종호(2006), 《우리말 속담 사전》, 파미르.
- 종원원(2014), 〈속담을 통해 본 한·중 음식문화 비교 - 조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최광순(2005), 〈중국 음식문화 관련 속어 연구〉, 석사학위논문(경남대학교 대학원).
- 최금학(1986), 《한국 속담 사전》, 문학출판공사.

- 최창렬(1999),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 彭素芳(2010), 〈한·중 음식 속담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원).
- 한국고전신서편찬회(1993), 《속담풀이 사전》, 흥신문화사.
- 韓國民俗學會(1972), 《韓國俗談集》, 瑞文堂.
- 한운수(1996), 《나를 살려준 속담》, 형제.
- 황병규 외(1996), 《세계속담집》, 한국문화사.
- 贾莉娜(2009), 〈中韩饮食文化对比〉, 《齐齐哈尔高等师范专科学校学报》4, 96, 齐齐哈尔高等师范专科学校.
- 郭 蕾(2012), 〈从关于中韩饮食方面的俗语看文化的异同〉, 《商业视角》26, 74, 泰州师范高等专科学校.
- 辭海編輯委員會(1977), 《辭海》, 上海人民出版社.
- 王 勤(1980), 《諺語歇後語概論》, 湖南人民出版社.
- 王緒前(2008), 《飲食諺語集成》, 湖北科學技術出版社.
- 溫端政(2011), 《中國俗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 李容默(2007), 《中韓大辭典》, 遼寧民族出版社.
- 崔希亮(2005), 《漢語熟語與中國人文世界》, 北京文化大學出版社.
- 韓敬體(2004), 《現代漢語辭典》, 商務印書館.
- 黃光柱·陈银(2014), 〈中韩文化差异比较探究之一—饮食文化〉, 《文化长廊》26, 160, 华南师范大学文学院.

<부록 1>

한국 음식 속담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도 크다.	같은 떡도 맘머느리가 주는 것이 더 크다.
가는 떡이 하나면 오는 떡도 하나다.	같은 음식이라도 짜다는 사람 있고 싱겁다는 사람 있다.
가는 밥 먹고 가는 똥 누렸다.	갈잡은 국에 입천장만 덴다.
가는 밥 먹고 속 편하게 살렸다.	개가 약과 먹듯 한다.
가루 가지고 떡 못 만들까?	개가 핏은 죽사발 같다.
가마뚜껑에 엿을 놓고 왔나.	개는 맨밥을 먹어도 사람은 맨밥을 못 먹는다.
가마 전에 엿을 놓았나?	개떡 같다.
가마솔이 검다고 밥도 검을까.	개떡 먹던 입에도 찰떡 먹을 날이 있다.
가만히 먹는 음식이 체하기 쉽다.	개떡 먹던 입에도 찹쌀떡 먹을 날이 있다.
가만히 먹으라니까 뜨겁다고 한다.	개떡같이 주우른다.
가시어머니 장 떨어지자 사위 국 마다고 한다.	개떡도 끼 에워먹는다.
가을밭을 밟으면 떡이 세 개고, 봄밭을 밟으면 빵이 세 대다.	개떡도 떡은 떡이다.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개떡에 입천장 덴다.
가을 쌀밥이다.	개떡에도 고물 든다.
가을 아욱국은 계집 내쫓고 먹는다.	개미가 꿀단지애 덩비듯 한다.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개살구도 맛들일 탓이다.
가을 아욱국은 문닫고 먹는다.	개장국에 초 친 맛이다.
가을 죽은 봄 양식이다.	개천애 든 소다.
가을 찬밥은 봄 양식이다.	객지 밥을 먹어 봐야 세상인심도 안다.
가을비는 떡비다.	객지 밥을 먹어 봐야 제 집 좋은 줄을 안다.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거울 속의 떡이다.
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	거저먹을 것이라고는 하늬바람밖에 없다.
간도 모르고 짜다 한다.	거지 김칫국 흘리듯 한다.
간장국에 마른다.	거지 꿀 얻어먹기다.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이 안 된다.	거지 떡 사준 셈 천다.
간장이 쉬고, 소금이 썩을 일이다.	거지 술 상 같다.
간장이 쉼 노릇이다.	거지 술상이다.
감나무 말에 누워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	거지 술안주 같다.

다린다.	
감장에 전 농이 소금에 곰팡이 나겠다.	거지가 떡 찌먹으려다가 시루 깬다.
감칠맛이 있다.	거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 거지 밥한술 안 준다.
값싼 갈치자반이 맛은 좋다.	거지도 부지런해야 더운밥을 얻어먹는다.
값싼 것이 보리술이다.	거지도 술 얻어먹을 날이 있다.
값싼 것이 비지떡이다.	거지도 쌀밥 먹을 날이 있다.
갓 이사 와서 팔죽을 쑤어먹으면 길하다.	거짓으로 취한 체 한다.
갓감치가 되었다.	걱정이 없어야 먹는 것도 살로 된다.
강 건너 주막 꾸짖기다.	건넌마을 주막 꾸짖기다.
강계(江界) 석청 꿀이나, 인제(麟蹄) 석청 꿀이나 한다.	건더기 먹는 농 따로 있고, 국물 먹는 농 따로 있다.
강원도 인제 꿀인다.	건더기 먹는 농이나 국물 먹는 농이나.
강정(江汀)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면 안 울어도 쌀밥 주다면 운다.	건더기 없는 국이다.
건더기가 많아야 국물도 많이 난다.	고양(高揚) 밥 먹고, 양주(楊州) 구실한다.
걸신(乞神)들린 농 밥 먹듯 한다.	고양이 죽 쑤어 줄 것 없고, 생쥐 불가심할 것 없다.
걸신처럼 먹는다.	고운 일 하면 고운 밥 먹는다.
검은 고기가 맛은 있다.	고주(苦酒) 망태가 되었다.
검은 소가 맛이 좋다.	고추장 단지가 열둘이라도 서방님 비위는 못 맞추겠다.
겉보리 술지게미가 사람 속인다.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
겉은 눈으로 보고, 속은 술로 본다.	곤자소니에 발기름이 끼었다.
게걸들린 농 밥 먹듯 한다.	곰 마냥 발바닥 핏아먹고 사는 줄 아나.
게논 감추듯 한다.	공밥을 먹는다.
게장국에 초 친 맛이다.	공술 먹은 농이 트집한다.
겨울비는 술비다.	공술 한 잔 보고 심리 간다.
경기(京畿) 밥 먹고, 청흥(淸興) 구실한다.	공술도 세 번이다.
경상도서 죽 쑤는 농은 전라도를 가도 죽 쑤는다.	공술 맛이 더 좋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공술에 술 배운다.
계집을 좋아하게 되면 술도 좋아하게 된다.	공술이 맛은 더 좋다.
계집을 좋아하면 술도 좋아하게 된다.	공술이라면 사지(四肢)를 못 쓴다.
곶술(契酒)로 낮내기다.	공술이라면 삼십 리라도 멀지 않고 한

	다.
겻술로 벗 사권다.	공술이라면 초를 술이라고 해도 먹는 다.
겻술로 생색낸다.	공술이라면 한 잔 더 먹는다.
고기 없는 멸국에는 파리라도 뜯 것이 낫 다.	곶감국 먹고 옛목판에 얹드러진다.
고기는 대가리 쪽에 맛있고, 짐승은 꼬리 쪽이 맛있다.	곶감죽 먹고 옛목판에 얹드러졌다.
고기는 먹어 본 놈이 많이 먹고, 밥은 굵 주린 놈이 많이 먹는다.	곶감죽을 쑤어먹었나.
고기는 먹어 본 사람이 더 먹고, 밥은 굵 은 사람이 더 먹는다.	과부는 찬밥에 굶는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 다.	과음은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과하다면서 석 잔 먹고, 그만 먹는다 면서 다섯 잔 먹는다.
고기는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다.	관덕정 설탕국도 먹었던 놈이 먹는다.
고기 맛 본 종이 구유를 핥는다.	광목(廣木) 여덟 자만 걸어 다닌다.
고깃국에 청파리 껌똥 한다.	광산 김 씨의 술이요, 은진 송 씨의 떡이다.
고두밥만 보아도 취한다.	광주리에 담은 밥도 얹어질 수 있다.
고드름 국에 초 탄 맛이다.	교동(校洞) 대감떡 나귀는 약식도 잘 먹는데, 사동(寺洞) 대감떡 말은 약과 도 마다한다.
고드름에 초 친 맛이다.	구더기 날까봐 장 못 담글까?
고래 물마시듯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고린 장이 더디 없어진다.	구레나룻이 뗏 자(五尺)라도 먹어야 생원님이다.
고린 장이 오래 간다.	구미가 난다.
고모 떡도 싸야 사먹는다.	구미가 당긴다.
고물 모자라는 떡 없다.	구미를 돋우다.
고사떡을 먹으면 재수가 있다.	구복(口腹)을 달래다.
구복이 원수다.	군불에 밥 익혀 먹는다.
구정물 먹고 주장한다.	군자(君子)는 취해도 말이 없다.
국 많이 먹으면 국량이 넓어진다.	굴비 굵는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가 되 돌아온다.
국 많이 먹으면 장모 눈 망가진다.	끓기를 밥 먹듯 한다.
국 쏘고 뚝배기 깬다.	끓기를 부잣집 밥 먹듯 한다.
국 쏘고 발등 덴다.	끓네 끓네 하면서 떡만 해먹는다.
국 쏘고 보지 데고, 서방한테 매맞는다.	끓주리면 나물밥도 진미로 된다.
국 쏘고 보지 덴다.	끓주리면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먹는

	다.
국 쏘고 허벅지 덴다.	굶주리면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
국 얹지르고 발등 덴다.	굶주리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국가 밥을 먹는다.	굶주리면 지게미나 겨도 감식한다.
국그릇은 왼쪽에 놓고 먹지 않는다.	굶주린 농 밥 퍼먹듯 한다.
국도 국 같잖은 것이 뜨겁기만 하다.	굶주린 농이 이밥 조밥 가린다더냐.
국 맛은 장맛이 좋아야 한다.	굶주린 농이 찬밥 더운밥 가릴까?
국물도 없는 자리다.	굶주린 농이 흰밥 조밥 가릴까.
국물도 없다.	굶주린 사람은 밥 짓는 동안도 참지 못한다.
국물만 멀건 국이다.	굶주린 사람은 선밥 익은 밥 가리지 않는다.
국수 먹고 이빨 썩신다.	굶주린 양반이 겨떡 하나 더 먹으려고 한다.
국수 먹는 날이다.	굶주린 호랑이 날고기 먹듯 한다.
국수 먹은 배다.	굶주림을 고치는 것은 밥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다.
국수 못하는 년이 안반 탓한다.	국 구경을 하려면 계면떡이 나오도록 하랬다.
국수 못하는 년이 안반만 나무란다.	국 보고 떡이나 얻어먹어라.
국수 못하는 년이 피나무 안반만 나무란다.	국도 볼 겸 떡도 먹을 겸 간다.
국수 잘하는 년이 수제비 못한다더냐.	국은 고기를 먹은 것 같다.
국수 잘하는 솜씨에 수제비 못할까?	권에 못 이겨 비지떡 먹는다.
국수 하는 솜씨에 수제비 못할까.	권에 비지떡 먹는다.
국수 흥두께로 불을 분다.	권주가(勸酒歌) 바람에 술 취한다.
국수집 식초병 같다.	권주가(勸酒歌)가 술맛을 돋운다.
국에 넣은 소금이 어디 가라.	권커니 잣거니 한다.
국에 덴 농은 간장도 불어먹는다.	귀신 듣는 데 떡 말 말랬다.
국에 덴 농은 냉수도 불어먹는다.	귀신 듣는 데 떡 소리 하기다.
국에 덴 농은 물도 불고 마신다.	귀신 떡 먹듯 한다.
국에 덴 농은 찬물도 불어먹는다.	귀신 제삿밥 먹듯 한다.
국에 덴 사람은 푸성귀찬도 불어먹는다.	귀신도 떡 하나로 쫓는다.
국에 덴 사람은 회(膾도) 불어먹는다.	귀신에게 비는 데는 시루떡이 제일이다.
국은 여름같이 먹고 술은 겨울같이 먹는다.	귀신은 떡으로 사귀고, 사람은 정으로 사귀다.
국을 먹은 농이나 건더기 먹은 농이나.	귀여운 자식에게는 매채를 주고, 미운 자식에게는 엿을 주랬다.
국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다 안다.	귀한 자식은 매로 키우고, 미운 자식은 밥으로 키운다.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다 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도 모른다.	그 술에 그 안주다.
군밤맛과 셋서방 맛은 못 잇는다.	그 집 장 한 독을 다 먹어 보아야 그 집일을 잘 안다.
그림의 떡으로는 굶주림을 못 면한다.	김 안 나는 송농이 더 뜨겁다.
그림의 떡으로는 배를 못 채운다.	김 서방이 먹고 이 서방이 취한다.
그림의 떡이다.	김 씨가 먹고, 이 씨가 주장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김장 맛은 손맛이다.
금방 먹을 떡에도 살 박아 먹는다.	김장은 겨울철 반양식이다.
금주(禁酒)에 누룩 장사한다.	김장은 풍년이면 늦게 담그고, 흉년이면 일찍 담가야 한다.
금주에 누룩 흥정이다.	김치는 반 양식이다.
급하기는 싸전에 가 송농 찾는다.	김치국 먹고 수영 쓰다듬고, 냉수 마시고 길비 트림한다.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송농 찾는다.	김치국 먹고 수영만 쓰다듬는다.
급히 데운 밥이 쉬 식는다.	김치국 먹은 거지 떨 듯한다.
급히 먹는 밥에 목 메인다.	김치국 먼저 마신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	김치국 채어먹은 거지 떨 듯 한다.
급히 먹는 밥은 똥이 거칠다.	김치국부터 미리 마신다.
기갈(飢渴)든 놈 밥 먹듯 한다.	김치국을 먹든지 식혜를 먹든지 임자 마음이다.
기갈(飢渴)이 감식(甘食)이다.	깊은 물보다 얇은 잔에 더 빠져 죽는다.
기갈든 놈 밥 먹듯 한다.	깊은 물에는 안 빠져도 얇은 물에는 빠진다.
기갈든 사람은 밥을 가리지 않고, 추운 사람은 옷을 가리지 않는다.	깨떡 먹기다.
기갈든 사람은 밥을 가리지 않는다.	깨 소금 맛이다.
기갈은 밥으로 고치고, 병은 약으로 고친다.	깨묵도 맛들일 탓이다.
기갈이 감식이다.	깨묵장이 별미다.
기갈이 반찬이다.	꺼내먹은 김치독이다.
기다란 쪽박에 밥 많이 담긴다.	교락서니가 밥 빌어먹을 짓만 한다.
기름 쏟고 깨 줍는다.	꿀이 떡 사먹을 꿀이다.
기름 쏟고 종지 깬다.	콩보리밥도 제때에 못 먹는다.
기름 옆지르고 깨 줍는다.	꽃 피자 임 오시고, 임 오자 술도 익는다.
기름 짜듯 한다.	꽃구경도 식후경이다.
기름떡 먹기다.	꽃은 반개(半開)가 좋고, 술은 반취(半醉)가 좋다.
기름 맛 본 개다.	꾸러미에 단 장 들었다.
기름먹인 가죽은 부드럽다.	꿀 다 파먹은 꿀단지다.
기름먹인 종이에 치부(置簿)해 두라.	꿀 먹은 개 옥대듯 한다.

기름에 물 탄 것 같다.	꿀 먹은 병어리다.
기름에 물 탄 듯, 물에 기름 탄 듯하다.	꿀 먹은 병어리요, 침 먹은 지네다.
기름으로 불 끄기다.	꿀 있는 꽃이라야 벌도 찾아간다.
기름을 버리고 깨를 줍는다.	꿀단지 걸핼기다.
기름을 옆지르고 깨를 줍는다.	꿀단지 동이듯 한다.
기름이 다 닳으면 등불은 꺼진다.	꿀단지가 집에 있는데 눈깔사탕 찾아 밖에 나갈까?
기름쟁이마냥 반드럽다.	꿀단지를 핥는 격이다.
기와집 음식이 초가집 음식만 못한 것도 있다.	꿀단지에 개미떼 덤비듯 한다.
꿀도 사흘만 먹으면 단 줄 모른다.	남은 존위덕네 보리밥은 잘 짓는다.
꿀도 약이라면 쓰다.	남대천(南大川) 계정에 이밥 먹는다.
꿀맛이다.	남양(南陽)원님 꿀회 마시 듯 한다.
꿀보다 더 단 건 진고개 사탕이다.	남양(南陽) 원님 꿀회 먹듯 한다.
꿀보다 약과가 더 달다.	남은 개떡을 먹어도 끼 에워먹는다.
꿀은 달아도 벌은 쏜다.	남의 군불에 밥 짓는다.
꿀은 적어도 약과만 달면 된다.	남의 더운밥이 내 찬밥만 못하다.
꿀이야 많은 적은 약과만 달면 그만이다.	남의 더운밥이 제 집 식은 밥만 못하 다.
꿀하고 게를 함께 먹으면 죽는다.	남의 떡 가지고 낫낸다.
꿀 향아리에 개미 덤비듯 한다.	남의 떡 먹는데 팔고물 떨어지는 걱정 한다.
꿈에 떡 맛보기다.	남의 떡방아에 키 들고 달려간다.
꿈에 똥칠을 하면 술이 생긴다.	남의 떡으로 굶한다.
꿈에 선떡 받은 것 같다.	남의 떡으로 선심 쓴다.
꿩 먹고 알 먹는다.	남의 떡으로 설 친다.
끓는 국 맛 모른다.	남의 떡으로 제사지낸다.
끓는 국에 국자 휘젓듯 한다.	남의 떡은 빼앗아도 남의 복은 못 뺏 는다.
끓는 국은 맛 모른다.	남의 떡은 커 보인다.
끓는 국을 국자로 누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끓여 놓은 죽 밥 될까.	남의 떡함지에 넘어진다.
끼니 없는 농에게 점심 의논하기다.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자니 아깝다.	남의 밥 보고 상 차린다.
나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남의 밥 보고 시래깃국 끓인다.
나 못 먹는 밥이라고 재 뿌린다.	남의 밥 보고 장 떠먹는다.
나그네 국 마다하자 주인 장 떨어진다.	남의 밥 쌀이 더 좋아 보인다.
나그네 덕에 이밥 먹는다.	남의 밥 콩이 더 커 보인다.
나그네 먹던 김치국 먹자니 더럽고 남 주 자니 아깝다.	남의 밥그릇은 높아 보이고, 자기 밥 그릇은 낮아 보인다.
나그네 얼굴 봐가며 바가지로 밥 주고, 주인 모양 봐가면서 손으로 밥 준다.	남의 밥그릇은 높아 보인다.

나라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다.	남의 밥도 석 달이다.
나라님도 밥을 먹어야 임금이다.	남의 밥사발이 높아 보인다.
나라 밥을 먹는다.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
나루가 석 자라도 먹어야 샌님이다.	남의 밥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나무 껍데기 씹는 맛이다.	남의 밥은 맵고도 짜다.
나물죽도 없어서 못 먹는다.	남의 밥을 먹어 봐야 부모 은덕을 안다.
니쁜 술 먹기가 정승하기보다 어렵다.	남의 밥이 더 맛있다.
니쁜 음식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남의 밥이 더 희다.
나중에 꿀 한 그릇보다 당장에 옛 한가락이 낫다.	남의 불에 떡 구워 먹는다.
나중에 꿀 한 식기 먹으려고 당장에 옛 한 가락 안 먹을까.	남의 상에 술 놓아라 안주 놓아라 한다.
낙식(落飾)은 공식(空食)이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
난리나면 곡식 짐 버리고 소금 짐 지고 간다.	남의 술로 생생낸다.
날고기 보고 침 안 뱉는 이 없고, 익은 고기 보고 침 안삼키는 이 없다.	남의 술로 선심 쓴다.
날떡국에 입천장만 덴다.	남의 술로 제사지낸다.
날속한이 이마 씻은 물 같다.	남의 술로 친구 대접한다.
날아다니는 까막까치도 제 밥은 있다.	남의 술에 삼십 리 간다.
남의 아이 떡 주라는 소리가 제 아이 떡 주라는 소리다.	내 밥 먹은 놈이 내 흥 더 본다.
남의 이밥보다 제 집 개떡이 낫다.	내 밥 먹은 놈이 더 무섭다.
남의 일이라면 오뉴월에도 손이 시리다.	내 밥 먹은 놈이 도둑질한다.
남의 입에 떡 집어넣기다.	내 밥 준 개가 내 발등 문다.
남의 잔칫술로 생색낸다.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못 짓게 한다.
남의 집 마당에 와서 떡을 친다.	내 배가 부르니 평안 감사가 조카같이 보인다.
남의 집 밥맛이 더 좋다.	내 배가 부르면 종 배고픈지 모른다.
남의 집 살강에 찬밥 보고 저녁 앓는다.	내 장 먹은 사람이 짜다고 한다.
남의 집 이밥보다 제 집 보리밥이 낫다.	내 집 쌀밥보다 이웃 보리밥이 맛있다.
남의 집 이밥보다 제 집 죽이 낫다.	내기 장기에서는 진 사람이 술낸다.
남의 집 잔밥 보고 국 끓인다.	내달기는 주막집 강아지 같다.
남의 집 찬밥 보고 저녁 굶는다.	내전 밥 떠났다.
남의 집 찬장에 둔 밥을 보고 점심 굶는다.	내주장이 밥은 굶지 않는다.
남이 떡 먹는데 팔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	냉수 먹고 이 썩신다.
남이 먹는 팔떡에 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	냉수 먹고 주정한다.

는 격이다.	
남이 먹는 팔죽에 내가 땀 흘린다.	넘어져도 떡 광주리에만 넘어진다.
남이 먹던 밥을 먹으면 오래 산다.	네 떡 나 먹었느냐 한다.
남자 술은 여자가 따라야 하고, 여자 술은 남자가 따라야 맛이 더 난다.	네 떡 나 모른다.
남자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이 더 난다.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는다.
남자가 못 참는 건 첫째가 술이고, 둘째가 계집이고, 셋째가 노래다.	네 떡이 두터우면 내 떡도 두텁다.
남자가 바가지 밥을 먹으면 가난하다.	네 떡이 크면 내 떡도 크다.
남자가 바가지에 밥을 먹으면 수영이 안 난다.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다.
남자의 원수는 술과 계집이다.	네 떡이 한 개면 내 떡도 한 개다.
남촌은 술이고, 북촌은 떡이다.	네 밥 콩이 크니 내 밥 콩이 크니 한다.
남편 밥은 누워서 먹고,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노구술 전에 엿을 붙였나?
남편 밥은 아랫목에서 먹고, 아들 밥은 윗목에서 먹고, 딸 밥은 부엌에서 먹는다.	노는 놈 밥 아니 준다.
낮쪽에 밥풀 하나 안 붙었다.	노름꾼 노름 끊는다는 것과 술꾼 술 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다.
낮짜이 말고가 좌판(坐板) 같다.	노름·술·계집은 패가의 장본이다.
낮짜이 원숭이 낮짜 같다.	노성(魯城) 윤씨(尹氏)의 식도락(食道樂)이다.
낮짜이 원숭이 불기짜 같다.	노수(路需) 떨어지자 입맛이 난다.
내 떡이 크면 남의 떡도 커진다.	노인 봉양에는 술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내 떡 나 먹었거니 한다.	놀고 먹으면 태산도 모자란다.
내 떡 언제 먹었느냐 한다.	놀고 먹으면 태산도 못 당한다.
내 떡은 작고 남의 떡은 커 보인다.	농주(農酒)는 시장기를 때운다.
내 떡이 두 개면 남의 떡도 두 개다.	농주는 식사 대신으로 먹는다.
내 떡이 크면 내 떡도 크다.	농주에는 보리술도 한몫한다.
내 밥 먹은 개가 내 발뽀꿈치 문다.	농주에는 풋고추에 된장 안주가 제격이다.
누룩만 보아도 취한다.	다 된 죽에 재 뿌린다.
누룽지 굶다가 술 깬다.	다 된 죽에 코 떨어뜨린다.
누룽지 한 주먹은 밥 한 그릇하고 안 바꾼다.	다 된 죽에 코 떨어진다.
누룽지는 머느리 차지다.	다 된 죽에 코 푼다.

누룽지라도 주고 달라랬다.	다 먹은 김치독에 빠졌다.
누룽지를 길에 버리면 복이 나간다.	다 먹은 죽에 코 빠졌다고 한다.
누룽지를 좋아하면 공부를 못한다.	다 썬어 놓은 죽이다.
누른 국은 뜨실 때 먹어야 한다.	다 퍼먹은 김치독에 빠진다.
누워서 떡 먹으면 눈에 고물 들어간다.	다 퍼먹은 김치독이다.
누워서 떡먹기다.	다담상 바라다가 턱 떨어지겠다.
누워서 떡을 먹으면 콩고물이 눈에 들어간다.	다담상(茶啖床) 같다.
누워서 먹으면 죽어서 쇠귀신 된다.	다섯 잔을 먹으면 일곱 잔도 먹는다.
누워서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떡은 없다.	다음 장떡이 클지 작을지는 당해 봐야 안다.
누워서 팔떡 먹기다.	닭은 콩 먹다 남기지 못한다.
눈깔사탕 맛이다.	단 것은 적게 먹고, 신 것을 많이 먹는다.
눈에서 술지게미가 나도록 먹는다.	단 꿀 빨 듯 한다.
눈치가 있어야 떡도 얻어먹는다.	단 장이 먼저 떨어진다.
눈치밥 먹고 바늘방석에 앉았다.	단골 손은 진국 주고, 뜨내기 손은 멀국 준다.
눈치밥 먹고 산다.	단밥에 단잠이다.
눈치밥 먹고 자란 놈이다.	단술 먹고 여드레 만에 취한다.
눈치밥으로 살았다.	단술 먹은 여드레 만에 취한다.
눈치밥으로 컸다.	단오날 찰레꽃떡을 해먹으면 얼굴이 고와진다.
눈치밥은 살 안 찐다.	달기는 옛방 할머니 손가락이다.
눈치밥을 먹는다.	달려들자 떡 사먹는다.
뉘 절반에 쌀 절반이다.	달력 보가면서 밥 먹는다.
뉘 집에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도 다 안다.	달리는 놈에게 쌀밥 주렸다.
뉘 집에 죽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알 바 아니다.	달지 않은 꿀이다.
늘 먹는 밥맛을 모른다.	달질이 장변을 내서도 해장술은 한다.
늘 생각하던 것은 취중에 말한다.	달콤한 사탕이 우선 먹기는 좋다.
늘 술에 취하여 깨지 않고 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
늙은이 죽는 생각은 않고 팔죽 먹을 생각만 한다.	닭 잡아먹고 이웃 인심 잃고, 개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는다.
늙은이는 흠 가족에 힘쓴다.	닭고기 맛은 첫째가 미주알이고, 둘째가 똥집이고, 셋째가 날개다.
늙은이에게는 밥이 지팡이다.	담 넘어 꿀 베는 총각 눈치가 있거든 떡이나 받소.
늦게 술자리에 오면 벌주 석 잔을 들어야 한다.	당나귀새끼처럼 술 때는 잘 안다.

늦게 술자리에 오면 석 잔이다.	당장 먹기는 곱감이 달다.
늦은 밥 먹고 파장(罷場) 간다.	당장 먹기는 사탕이 달다.
다 된 떡시루 갠다.	당장 먹을 떡도 보기가 좋아야 한다.
당장 먹을 떡에도 살 박아 먹으랬다.	동네 늙은이야 죽든 말든 팔죽 얻어먹는 재미다.
대보름 저녁에는 오곡밥을 먹어야 길하다.	동방삭(東方朔)이 인절미 먹듯 한다.
대보름날 아침에는 귀밝이술을 먹어야 귀가 밝아진다.	동성(同姓) 아주머니도 술도 싸야 사 먹는다.
대식(大食)이 소식(小食)만 못하다.	동지설달에는 닭서리.
대추 서리는 바가지를 쓰고 한다.	동지 팔죽 쉬겠다.
대추를 통째로 삼킨 격이다.	동지 팔죽에 새알 수제비다.
더운 국에 국수사리 풀어지듯 한다.	동지 팔죽이 쉬겠다.
더운 국이 쉬 식는다.	동지 팔죽이 쉬면 병이 퍼진다.
더운밥 먹고 식은 말 한다.	동지 팔죽이 쉬면 보리 흉년이 든다.
더운밥 먹고 헛소리만 한다.	동지에 팔죽이 쉬면 흉년이 든다.
더운밥 찬밥 가리지 않는다.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먹어야 길하다.
더운술을 불면서 먹으면 코끝이 붉어진다.	동짓날 팔죽을 끓여 먹으면 흉역에 안 걸린다.
더운죽에 파리 꼬듯 한다.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더위를 안탄다.
더운죽에 혀 덴다.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이듬해 잔병이 없다.
더워서 더워서 못 먹고, 식어서는 식어서 못 먹는다.	돼지 비지 먹듯 한다.
덕물산(德物山) 성계육(成桂肉)을 먹어 봐야 고기 맛을 안다.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간 물이다.
덜미에 사갓밥을 짊어졌다.	돼지는 두부 하는 날이 생일이다.
도갓집 우물은 물이 돈이다.	되지 못한 국이 뜨겁기만 하다.
도구통 패서 떡 해먹을 집안이다.	되지 못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도끼 삶은 국물 맛이다.	된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도끼 삶은 국에 철환(鐵丸) 수제비다.	된장 맛을 보면 그 집 음식 맛도 안다.
도끼 삶은 물 같다.	된장 먹고 밥 먹는다.
도끼 삶은 물이다.	된장 신 것은 1년 원수요, 아내 못된 것은 평생 원수다.
도둑 중에는 코 밑 도둑이 제일 크다.	된장 아까워 개도 못 잡는다.
도래떡에는 안팎이 없다.	된장 아껴 잡은 개도 먹지 않는다.
도래떡은 안팎이 없다.	된장과 똥을 짝어먹어 봐야 아나?
도시락 밥에 표주박 물이다.	된장과 사람은 목을수록 좋다.
독 깨고 장 쏜다.	된장 맛이 좋아야 국 맛도 좋다.
독한 술은 빨리 취한다.	된장 맛이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된장에 풋고추 박히듯 했다.

돈 없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된장을 잘 먹으면 오래 산다
돈은 마음을 검게하고, 술은 얼굴을 붉게 한다.	된장이 아까워 못 잡아먹는다.
돌 삶은 국물 맛이다.	두 사람이 떡 해먹어야겠다.
돌떡을 해주지 않으면 자주 넘어진다.	두 손에 든 떡이다.
돌로 치는 놈은 돌로 치고, 떡으로 치는 놈은 떡으로 치렀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한다.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	두루마기 속에서 엮 먹기다.
돌에는 수수떡(壽壽餅)을 해야 명이 길다.	두부 끊기다.
동네 늙은이 죽는 생각은 않고 팔죽 먹을 생각만 한다.	두부 되듯 한다.
두부 딱딱한 것과 여자 딱딱한 건 쓸모가 없다.	등 푸른 고기가 맛이 좋다.
두부 딱딱한 것과 장사꾼 딱딱한 건 쓸모가 없다.	등으로 먹고 배로 먹는다.
두부 먹다 이 빠지고, 수박 먹다 이 빠진다.	땀 가맛밥을 먹는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딸꾹질이 나면 떡 먹을 일이 생긴다.
두부모 끊듯 한다.	딸네 집에서 가져온 고추장이다.
두부모 베듯 한다.	딸에게는 팔죽 주고, 며느리에게는 콩죽 준다.
두부모 자르듯 한다.	때 늦게 먹는 음식은 고기 맛이다.
두부모 같이 반듯하다.	땡감도 맛들일 탓이다.
두부 장수 두부 안 먹고, 떡 장수 떡 안 먹는다.	떡 가지고 뒷간으로 간다.
두부 하는 날은 돼지가 비지로 포식한다.	떡 간 데 떡 떼고, 말 간 데 말 보탠다.
두부 한 모에 아이 이름 버린다.	떡 다 건지는 며느리 없다.
두부살에 바늘빠다.	떡 떼어먹듯 한다.
두부살이다.	떡 먹듯 한다.
두부에 꺾쇠 박기다	떡 먹듯이 말한다.
두부에 머리 박아 죽을 놓이다.	떡 먹은 값을 한다.
두부에 못 박듯 한다.	떡 먹은 꿈을 꾸면 감기가 걸린다.
두부에 빠다.	떡 먹은 도둑놈이 증인 선다.
두부에 송곳 박기다.	떡 먹은 입 쓰다듬듯 한다.
두부에도 빠가 있다.	떡 못하는 년이 안반 탓한다.
두부하고 여자는 딱딱하면 못 쓴다.	떡 본 귀신이다.
두부하고 장사꾼은 딱딱하면 안 팔린다.	떡 본 김에 굶한다.
두었다가 국 끓여먹을 것이냐?	떡 본 김에 김칫국 마신다.

둘이 먹다가 마누라가 죽는 것도 모른다.	떡 본 김에 설 쉰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
동우리의 찰밥 쏟아지겠다.	떡 본 도깨비다.
뒤웅박에 남은 찰밥 쏟겠다.	떡 사먹은 셈 친다.
뒤주 밑이 굵히면 밥맛은 더 난다.	떡 사먹을 양반은 눈만 봐도 안다.
뒤주 밑이 바닥나면 밥맛은 더 난다.	떡 삶은 물로 옷에 풀하나다.
뒤주 쌀이 떨어지면 밥맛은 더 난다.	떡 삶은 물에 중의 데친다.
뒷간에 빠진 사람은 떡을 해먹어야 한다.	떡 속의 가시다.
뒷간에서 밥 찾는다.	떡 싫자 선떡 준다.
뒷맛이 씹쓸하다.	떡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뒷입맛이 쓰다.	떡 이기듯 한다.
드러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가 된다.	떡 잘라먹듯 한다.
들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떡 장수 떡 주무르듯 한다.
들어서 죽 쏘놈은 나가도 죽 순다.	떡 장수는 떡 안 먹고, 두부 장수 두부 안 먹는다.
들어오는 떡을 짝어먹어도 조총은 고아두어야 한다.	떡 주고 빵 맞는다.
들어온 밥상이다.	떡 주고 인심 잃는다.
들쭉 밥맛보기다.	떡 주어 싫다는 사람 없다.
등 따습고 배부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떡 줄 놓은 꿈도 안 꾸는데 군침만 삼키고 있다.
떡 줄 놓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떡도 떡이지만 함이 좋아야 한다.
떡 줄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도 맘여느리가 주는 떡이 더 크다.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도 먹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떡 줄 사람은 말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도 못 얻어먹는 제사에 무르팍이 벗어지게 절만 한다.
떡 쥐고 뒷간으로 간다.	떡도 주고, 밥도 준다.
떡 쥐어 주듯 한다.	떡메에 떡살 맞듯 한다.
떡 진 놈 섬 진 놈 다 모인다.	떡방아 소리 듣고 김치국 마신다.
떡 진 놈도 가고, 섬 진 놈도 간다.	떡방아 소리만 듣고도 김치국 찾는다.
떡 진 놈이 춤을 추니까 말뚝 진 놈도 춤을 춘다.	떡방아를 찢어도 옳은 방아를 찢어라.
떡 찢다가 뒷간에 갔다 오면 부정탄다.	떡보 메고 배부르다는 격이다.
떡 한 개로 귀신 백을 쫓는다.	떡보다 편이 낫다.
떡 해놓고 살풀이를 해야겠다.	떡보다 함이 좋다.
떡 해먹고 이웃 인심 잃는다.	떡시루에 김이 오르기 전에 남이 들어오면 떡이 선다.
떡 해먹어야겠다.	떡시룻번을 먹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

떡 해먹을 세상이다.	떡심이 좋다.
떡 해먹을 집안이다.	떡심이 풀린다.
떡가루 두고 떡 못할까?	떡쌀 담그라 하고 마을 간다.
떡같이 믿는다.	떡에 밥주걱이다.
떡고리에 손 들어간다.	떡에 웃기떡이다.
떡과 쇠는 칠수록 좋다.	떡에는 떡으로 치고, 들에는 들로 차렸다.
떡과 의견은 붙을수록 좋다.	떡에는 별떡 있지만 사람은 별사람이 없다.
떡국 먹는 데만 찾아다녔나?	떡으로 치는 놈은 떡으로 치고, 돌로 치는 놈은 돌로 친다.
떡국 사발을 쌓아도 더 크겠다.	떡으로 치는 놈은 떡으로 친다.
떡국 값도 못한다.	떡은 갈수록 작아지고, 말은 갈수록 커진다.
떡국 값이나 해라.	떡은 돌리면 줄고, 말은 돌리면 붓는다.
떡국을 먹다.	떡은 돌아가면서 떼고, 말은 돌아가면서 보탠다.
떡국이 농간(弄奸)을 부린다.	떡은 떡으로 대하고, 칼에는 칼로 대하라.
떡국이 농간한다.	떡은 떼고, 말은 보탠다.
떡 나무를 심은 격이다.	떡은 송 씨의 떡이 좋고, 술은 김 씨의 술이 좋다.
떡대加里 같은 소리를 한다.	떡은 시렁에 있고, 운은 하늘에 있다.
떡도 나오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은 치고, 국수는 만다.
떡도 떡 같잖은 강낭떡에 속 다툰다.	떡을 누워서 먹으면 팔고물이 떨어진다.
떡도 떡같이 못해 먹고, 생떡국으로 망한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다.
떡도 떡같이 못해 먹고, 찹쌀 한 섬만 다 없어졌다.	떡을 얻어먹으면 떡으로 값으렸다.
떡도 떡이려니와 합이 더 좋다.	떡을 친다.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 말렸다.	막걸리 맛은 시금털털한 맛으로 먹는다.
떡이 된다.	막술에 목멘다.
떡이 생기다.	만승천자(萬乘天子)도 먹는 것을 큰일로 삼는다.
떡이 있어야 굶도 한다.	만승천자도 먹어야 산다.
떡이 있어야 설도 친다.	많이 마시면 망주(妄酒)요, 조금 먹으면 약주(藥酒)다.
떡이 있어야 제사도 지낸다.	많이 먹고 장수하는 사람 없다.

떡이 잘 안되면 안반 탓한다.	많이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떡이라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인다.	만동서가 죽으면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고, 시어머니가 죽으면 아랫목이 내 차지다.
떡집에 가서 술 달란다.	만동서가 죽으면 고추장 단지가 내 차지다.
떡집에 가서 술찾기다.	말끝에 장 달린다.
떡친 데 옆드려진다.	말 단 집에 장 단 법 없다.
떡판에 옆드려진다.	말 단 집에 장 단 집 없다.
떡 할 줄 모르는 년이 안반 탓만 한다.	말 많고 실수하는 것은 다 술 탓이다.
떡 할 줄 모르는 년이 항지 타령만 한다.	말 많은 집 장맛이 쓰다.
떡 할 줄 모르는 아주머니가 안반 탓 한다.	말실수는 술 실수다.
떡항지에 옆드려진다.	말 탄 궁인(宮人)도 주정뱅이는 피한다.
뽕기는 오뉴월 산살구맛이다.	말 태워 놓고 밥 짓는다.
뽕기로 고욤 하나 못 먹을까.	말똥을 놓아도 손맛에 달렸다고.
뽕은 배도 맛들일 탓이다.	말로 떡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다.
뽕은 배도 씹어 볼 만하다.	말만 잘하면 해장술도 얻어먹는다.
뽕은 곁에 놓고 밥을 먹어도 사람은 곁에 놓고 혼자 먹지 않는다.	말술도 사양하지 않는다.
뚝배기 깨고 장 쏜는다.	말술이다.
뚝배기는 깨졌어도 장맛은 좋았다.	말은 보태고, 떡은 췌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달다.	말은 할 탓이요, 술은 먹을 탓이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뚝배기에는 장을 끓이게 마련이다.	맛 좋고 값싼 갈치자반이다.
뜨거운 국 맛 모른다.	맛 좋은 실과는 겉모양도 굵다.
뜨거운 국에 덴 개는 물만 봐도 무서워한다.	맛 좋은 음식도 늘 먹으면 좋은 줄 모른다.
뜨거운 국에 덴 사람은 찬 양념도 불어 먹는다.	맛 좋은 음식은 좀 떨어져 남에게 맛보게 하라.
뜨물 먹고 주정한다.	맛 좋은 음식에는 독이 있다.
마음속에 두었던 말은 취중에 말하게 되고, 속에 숨겨둔 정은 꿈에서 본다.	맛 좋은 장이 먼저 떨어진다.
마음은 술로 보고, 외모는 거울로 본다.	맛 좋은 준치는 가시가 많다.
마지막 떡을 먹으면 끝난다.	맛도 들기 전에 군동내부터 난다.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한다.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
막걸리 거르려다가 지게미도 못 건진다.	맛없는 국이 맵기만 하다.
막걸리 먹고는 수염 쓰다듬는다.	맛없는 국이 짜기만 하다.

막걸리 안주에는 갈치젓이다.	맛없는 음식은 여러 사람이 먹어야 한다.
막걸리 안주에는 풋고추다.	맛없는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막걸리는 농주다.	맛없는 음식이 맵기만 하다.
막걸리는 배가 불러 못 먹는다.	맛은 소금이 낸다.
맛이 같지 않으면 입에 맞는 것이 있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은 천하게 여긴다.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다.	먹고 살 만하니까 동티가 생긴다.
맛있는 떡 먹다가 맛없는 떡 못 먹는다.	먹고 살기 위하여 벼슬하는 것은 아니다.
맛있는 샘물은 반드시 마르게 된다.	먹고 쓸 팔자라면 가시나무에도 열매가 연다.
맛있는 우물이 먼저 마른다.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영욕도 안다.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물린다.	먹고 자고 먹고 싸는 식충(食蟲)이도 재 복에 산다.
맛있는 음식도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	먹고 자고 먹고 싸는 식충이다.
맛있는 음식에 체한다.	먹고 자는 것도 잊었다.
맛있는 음식이 뱃속에 남는다.	먹고 죽기다.
맛기 싫은 때는 맛아도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	먹고 죽으나 굶어죽으나 죽기는 일반이다.
매는 아프라고 때리고, 술은 취하라고 먹는다.	먹고 죽은 놈이 굶어죽은 놈보다 낫다.
매부(妹夫) 밥그릇이 커 보인다.	먹고 죽자 해도 없어서 못 먹는다.
매주 먹고 술트림한다.	먹고나 죽는다.
맨입에 앞교군 서라 한다.	먹고도 굶어 죽는다.
맹고 짜다.	먹고도 맛을 모른다.
맹물 먹고 주정한다.	먹고만 산다면 개도 산다.
맹물 맛이다.	먹기 싫은 반찬이 끼니마다 오른다.
맹물에 고드름 탄 맛이다.	먹기 싫은 밥에 재 뿌린다.
맹물에 도끼 삶은 맛이다.	먹기 싫은 음식은 개나 주지만 사람 싫은 것은 백 년 원수다.
맹물에 돌 삶은 맛이다.	먹기 싫은 음식은 먹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못 본다.
맹물에 자갈 삶은 맛이다.	먹기 싫은 판에 선떡 준다.
맹물에 조개 끓인 맛이다.	먹기는 김 서방이 먹고, 주정은 이 서방이 한다.
맹물에 조약돌 삶은 맛이다.	먹기는 발장(撥長)이 먹고, 뛰기는 말더러 뛰란다.
맹물에 차돌 삶은 맛이다.	먹기는 배디(背的)가 먹고, 뛰기는 파발마(擺撥馬)가 뛴다.

맹물에 초 탄 맛이다.	먹기는 아귀(餓鬼)같이 먹고, 일은 정승같이 한다.
머슴은 보리송농에 살핀다.	먹기는 파발(擺撥)이 먹고, 뛰기는 역마(驛馬)가 뛴다.
먹고 나니 또 친구다.	먹기는 혼자 먹어도 일은 혼자 못한다.
먹고 나니 친구가 또 있다.	먹기는 홍중군(洪中軍)이 먹고, 뛰기는 파발마가 뛴다.
먹고 나서야 금강산 구경도 한다.	먹는 개는 때리지 않는다.
먹고 남는 백령도(白翎島), 때고 남는 대청도(大靑島), 쓰고 남는 소청도(小靑島)다.	먹는 것과 여색에 영치가 없다.
먹고 남은 잔술에 식은 안주다.	먹는 것도 없으면서 바쁘기만 하다.
먹고 똥만 싣다.	먹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먹고 마시지도 못한다.	먹는 것은 개같이 먹어도 잠자리는 가려 자랬다.
먹는 것은 민중들의 근본이다.	먹던 술도 떨어진다.
먹는 것은 여럿이 먹고 자는 것은 혼자 자야 한다.	먹성 좋은 소가 부리기도 좋다.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먹어 보지도 않고 맛없다고 한다.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한다.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먹어 봐야 맛도 안다.
먹는 것이 하늘이다.	먹어도 마르기만 한다.
먹는 데 빠져 본 일 없고, 일하는 데 참 견해 본 일 없다.	먹어도 맛을 모른다.
먹는 데는 감돌이, 일에는 배돌이다.	먹어도 살로 안 간다.
먹는 데는 걸신(乞神)이고, 노는데는 귀신이며, 일하는 데는 등신이다.	먹어야 산다.
먹는 데는 귀신이요, 일하는 데는 등신이다.	먹어야 양반 노릇도 한다.
먹는 데는 귀신이요, 일하는 데는 장승이다.	먹어야 체면도 지킨다.
먹는 데는 남이요, 굶은 일에는 일가다.	먹으나마나 장은 장맛이다.
먹는 데는 빠져 본 적이 없고, 일하는 데는 참견해 본 적이 없다.	먹으려면 개도 똥을 안 먹는다.
먹는 데는 빠지지 않는다.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다.
먹는 데는 앞장서고, 일하는 데는 뒷장선다.	먹으면서도 맛을 모른다.
먹는 데는 친구요, 굶은 일에는 친척이다.	먹은 개는 짚지 않는다.

먹는 데는 파발(擺撥)이요, 일에는 송곳이다.	먹은 것도 삭이기를 잘해야 한다.
먹는 데는 형제도 없다.	먹은 놈이 똥도 썩다.
먹는 떡에도 살 박아 먹으랴다.	먹은 놈이 힘도 썩다.
먹는 떡에도 소를 박으랴다,	먹은 물에 뚝이 없다.
먹는 물에 돌 던지면 저승 가서 눈썹으로 다 건져야 한다.	먹은 죄는 꿀종지로 하나다.
먹는 속은 꿩과리 속이다.	먹은 죄는 대꼭지로 하나다.
먹다 남은 밥이다.	먹은 죄는 없다.
먹다 남은 술상을 받는다.	먹은 죄는 종지급으로 하나다.
먹다 남은 술에 식은 안주다.	먹을 것 없는 제사에 갓만 부순다.
먹다 남은 선밥 저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먹다 남은 죽은 오래 못 간다.	먹을 것 없다는 놈이 먹는 데는 번개다.
먹다 보니 개떡이다.	먹을 것만 보면 사지(四肢)를 못 쓴다.
먹다 죽은 대장부나 발갈이하다 죽은 소나 죽기는 일반이다.	먹을 것만 보면 세 치 앞도 못 본다.
먹다 판난다.	먹을 것은 적고, 일은 많다.
먹다가 굶어죽겠다.	먹을 것을 보면 사지(四肢)를 못 쓴다.
먹다가 보니 개떡수제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귀까지 먹었나?
먹다가 볼 일도 못 본다.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먹다보니 개떡수제비다.	먹을 때는 개도 욱하지 않는다.
먹던 떡도 아니고, 보던 굶도 아니다.	먹을 때는 귀신이요, 일할 때는 굶병이다.
먹던 술도 떨어진다.	먹을 때는 적어야 하고, 일할 때는 많아야 한다.
먹을 떡에도 살 박아 먹으랴다.	먹지도 못하는 버섯이 탐스럽기는 하다.
먹을 복이 있으면 우물가에서 백설기도 얻어먹는다.	먹지도 못하는 열매가 많이 열린다.
먹을 복이 있으면 자다가도 제삿밥을 얻어먹는다.	먼저 따먹는 놈이 임자다.
먹을 상 밝히면 알보인다.	먼저 먹는 것이 장땡이다.
먹을 상만 밝힌다.	먼저 먹은 후 답답이다.
먹을 콩으로 알고 덩빈다.	멀건 시래기죽이다.
먹을 콩인 줄 안다.	메밀가루 한 손갈도 못 얻어먹는다.
먹을수록 남남이요, 줄수록 양양이다.	메밀떡 굶에 쌍장구 친다.
먹을수록 남남한다.	메밀 죽에 목 메인다.

먹을수록 양양이다.	메주 먹고 술트림한다.
먹자는 귀신은 먹여야 한다.	메주 밟듯 한다.
먹자는 농 못 당한다.	메주 쑤는 날 머리를 빗으면 메주에 털이 난다.
먹자는 농하고 하자는 농은 못 당한다.	메주로 만든 낫빻 같다.
먹자판이다.	메주를 뭉쳐도 그보다는 낫겠다.
먹잘 것 없는 국에 입천정만 덴다.	메주를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을 낳는다.
먹잘 것 없는 닭갈비다.	메주를 짝수로 만들면 불길하다.
먹잘 것 없는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머느리 술값은 열닷 냥, 시어머니 술값은 열 냥이라고.
먹잘 것 없는 음식이 맵기만 하다.	머느리는 음식 맛보는 것도 주전부리라고 한다.
먹잘 것 없는 음식이 짜기만 하다.	머느리에게는 비빔밥 그릇을 씻기고, 딸에게는 흰죽 사발을 씻긴다.
먹잘 것 없는 잔치가 소문만 났다.	머느리에게는 흰죽 사발을 씻기고, 딸에게는 팔죽 사발을 씻긴다.
먹잘 것 없는 잔치에 말만 많다.	명태 만진 손 씻은 물로 사흘을 국 끓인다.
먹잘 것 없는 제사에 밤잠만 못 잔다.	명태와 여자는 두드려야 부드러워진다.
먹잘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한다.	모기는 중양절(重陽節) 떡 먹고 죽는다.
먹잘 것 없이 일만 바쁘다.	모녀가 두부 앓듯 한다.
먹지 못하는 감 찢러나 본다.	모든 연회에는 술이 없으면 안 된다.
먹지 못하는 밥에 재나 뿌린다.	모르게 먹는 밥에 체한다.
먹지 못하는 제사에 갓망건만 부순다.	모주 먹은 돼지 목청이다.
먹지 못하는 제사에 절만 한다.	모주 먹은 돼지 버르듯 한다.
먹지 못하는 풀이 5월에 겨우 난다.	모주(母酒) 먹은 돼지 깔때청이다.
먹지 않겠다고 침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	모주(母酒) 장수 열바가지 두르듯 한다.
먹지 않고 잘 걷는 말 없다.	목구멍 고개가 자물통 고개다.
먹지 않는 씨아가 소리는 크다.	목구멍에 때도 못 벗긴다.
먹지 않는 종이요, 투기 없는 아내다.	목구멍이 포도청(捕盜廳)이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몸은 개천에 있어도 입은 관청에 있다.
먹지 않으면 맛도 모른다.	몸이 되면 입도 되다.
먹지 않은 약이 효력 있을까?	못 먹는 감 찢러나 본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것이 맛 변한 장이다.	못 먹는 떡 개나 준다.
먹지도 못하는 버섯이 3월에 돋는다.	못 먹는 떡 찢러나 본다.

먹지도 못하는 버섯이 봄부터 난다.	못 먹는 떡에 침이 나 뱉는다.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린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못 먹는 밥에 흙이나 뿌린다.	물에 물 탄 맛이다.
못 먹는 죽에 재나 뿌린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도 술에 빠진 사람은 못 건진다.
못 보아 못 먹고, 안 주어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	웁게 먹고 가늘게 썬다.
못된 음식이 뜨겁기만 하다.	미꾸라짓국 먹고 용트림한다.
못자리판에 가서 이밥 찾는다.	미랭시(未冷尸) 김치국 흘리듯 한다.
무드럭 입에는 뜰갯묵이 제격이다.	미역국 먹고 천장 쳐다본다.
무른 메주 밧듯 한다.	미역국 먹었다.
무슨 보니 무슨 보니 해도 식보(食補)가 제일이다.	미운 년이 떡항지로 덩빈다.
무식하고 돈 없는 놈이 술집 담벼락에 외상술값 긁듯 한다.	미운 놈 보려면 술장사 하랬다.
무식한 귀신은 떡 해놓고 빌어도 안 듣는다.	미운 놈이 떡목판에 넘어진다.
묵 그릇에 묵 향아리를 엮는다.	미운 놈이 술 사달란다.
묵 먹은 배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랬다.
묵사발이 되었다.	미운 아이 밥 많이 주랬다.
묵은 겨울 묵이 일이다.	미운 아이 밥으로 키운다.
묵은 상수리묵이 맛이 좋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랬다.
묵은 양념맛으로 먹는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랬다.
묵은 장 쓰듯 한다.	미운 자식 밥으로 키운다.
문지방을 타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빌어 먹는다.	미음 한 사발에 떡 열 개라.
물 끓듯 국 끓듯 한다.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날뛴다.
물 댄 놈은 술 차지하고, 쌀과 누룩 댄 놈은 지게미 차지한다.	미친 척하고 떡목판에 넘어진다.
물 만 밥에 목멘다.	미친년 떡 퍼돌리듯 한다.
물 만 이밥에 목이 멘다.	밀 농사를 놓 얻어서 한다.
물 먹는 것도 각각이고, 밥 먹는 것도 각각이다.	밀밭도 못 지나간다.
물 먹다가 사례 들리면 떡이 생긴다.	밀밭만 지나가도 취한다.
물장사 10년에 남은 재산은 국자만 남았다.	밀밭만 지나도 주정한다.
물장수 3년에 남은 것은 깨진 주전자밖에 없다.	밀밭에 가서 술 찾는다.
물장수 3년에 얻은 것은 공동잇짓뿐이다.	밀밭에도 못 간다.
물장수 상이다.	입다고 차니까 떡고리에 자빠진다.

물장수가 먹고 난 상이다.	입다니까 떡 사먹고 서방질 한다.
물장수는 돈 장수다.	바가지 밥 보고 계집 쫓아낸다.
물덤벙술덤벙 한다.	바구니에 담은 찰밥이 쏟아지겠다.
물렁팔죽이다.	바늘땀에 두부살이다.
물방앗간에 가서 고추장 찾는다.	바쁘게 먹는 밥에 체한다.
물배만 채운다.	바빠 먹는 밥에 목 메인다.
물에 빠져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죽은 사람이 더 많다.	바지저고리만 걸어 다닌다.
박주(薄酒) 한 잔이 차 한 잔보다 낫다.	밥 먹는 것도 아깝다.
박한 술이 차보다 낫다.	밥 먹는 소리를 내면 식복이 나간다.
반 잔 술에 눈물 나고, 한 잔 술에 웃음 난다.	밥 먹는데 나가면 미움을 받는다.
반달 같은 송편이다.	밥 먹던 숟가락으로는 개도 안 때린다.
반드럽기는 기름집 방앗공이다.	밥 먹으며 이야기하면 가난하다.
반은 취하고 반은 깨었다.	밥 먹으면 장 떠먹게 마련이다.
반찬단지에 고양이 발 드나들 듯 한다.	밥 먹은 농하고 입 맞춘 폭도 안 된다.
반찬 먹은 강아지 나무라듯 한다.	밥 먹은 자리 뜨지도 않고 눕는다.
반찬 먹은 개 꾸짖듯 한다.	밥 먹을 때 떠들면 복이 나간다.
반찬 먹은 개 잡도리하듯 한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반찬 먹은 고양이 잡도리하듯 한다.	밥 먹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반찬 투정만 한다.	밥 먹을 줄은 알겠지.
반찬 향아리가 열둘이라도 서방님 비위는 못 맞춘다.	밥 먹음도 일 차림이다.
반찬은 밥도둑이다.	밥 못 먹는 인왕산 호랑이도 산다.
반찬을 털어가며 먹으면 복이 나간다.	밥 바가지가 떨어진다.
반찬이 없으면 소금밥 먹는다.	밥 비벼먹은 그릇에 물을 부어 놓으면 저승에 가서 부모님을 만난다.
반치 단지광에 드나들 듯 한다.	밥 밀어먹기는 장타령이 제일이다.
받아 놓은 밥상이다.	밥 밀어먹다 죽 쑤어먹겠다.
받은 밥상 발로 찬다.	밥 밀어서 죽 쑤어 먹을 놈이다.
밤 음식은 적게 먹도록 하라.	밥 선 것은 사람을 살려도 의원 선 것은 사람을 죽인다.
밤밥 먹었다.	밥 세 끼보다 더 좋아한다.
밥 구경도 못한다.	밥 속에 떡 들었다.
밥 구경을 한다.	밥 싸가지고 다니며 말리겠다.
밥 구경한 지가 오래다.	밥 아니 먹어도 배부르겠다.
밥 군 것이 떡 군 것만 못하다.	밥 얻어먹을 짬은 있어도 추수하는 데 갈 짬은 없다.
밥 대신 술로 산다.	밥 없는 상이다.
밥 두 사발 먹는 사람은 있어도 신 두 켄	밥 없는 아침상이다.

레 신는 사람은 없다.	
밥 많이 먹는 놈은 미련하다.	밥 위에 떡이다.
밥 먹고 물 안 먹는 사람은 오래 산다.	밥 주고 떡 준다.
밥 먹고 바로 그 자리에 누우면 죽어서 소 된다.	밥 주고 숟가락 뺏는다.
밥 먹고 술 먹으나 술 먹고 밥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 똥오줌 되기는 매일반이다.	밥 주고 죽 얻어먹는다.
밥 먹고 송충 안 마신 기분이다.	밥 팔아 똥 사먹겠다.
밥 먹고 죽벌이한다.	밥 팔아 죽 사먹는다.
밥 먹기를 돌다리 뛰어넘듯 하다.	밥 퍼주고 밥 못 얻어먹는다.
밥 먹는 개는 때리지 않는다.	밥 퍼주고 주걱으로 뺨 맞는다.
밥 먹는 개는 안 때린다.	밥 푸다 말고 주걱을 남 빌려 주겠다.
밥 먹는 개는 쫓지 않는다.	밥 푸다가 주걱으로 이 죽인다.
밥 먹는 것도 각각이요, 잠 자는 것도 각각이다.	밥 한 그릇에 두 술이 없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천금을 갚는다.	밥상 받듯 한다.
밥 한 끼를 주어도 은덕이다.	밥상보에 붙은 밥풀이다
밥 한 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	밥술에 개 드러눕겠다.
밥 한술에 힘 되는 줄은 몰라도 글 한 자는 힘이 된다.	밥술에 고기가 논다.
밥 함지 옆에서 굶어죽는다.	밥술에 청동녹이 앉았다.
밥 해먹을 살은 없어도 떡 해먹을 쌀은 있다.	밥숟가락을 놓았다.
밥값보다 고추장 값이 더 많다.	밥술갈에 떡 없어 준다.
밥값보다도 고추장 값이 더 비싸다.	밥술을 쥐고 산다.
밥·국·찌개·송충은 부뚜막에 데워야 맛이 있다.	밥술이나 두고 먹으니까 수영 치장만 한다.
밥그릇 싸움만 한다.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보다.
밥그릇 앞에서 굶어죽는다.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두 계집도 모자란다고 한다.
밥그릇만 축낸다.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콧대만 높아진다.
밥그릇을 포개고 먹으면 겹상주가 된다.	밥술이나 먹게 되었다.
밥그릇이 높으니까 생일인 줄 안다.	밥알 하나가 귀신 열을 쫓는다.
밥그릇이 높으면 제일인 줄 안다.	밥알을 세다.
밥그릇이 앞에 가고, 촌수가 뒤에 간다.	밥에 쌀보다 돌이 적기는 적다.
밥도 부지런해야 얻어먹는다.	밥에는 파리가 먼저 앉고, 뒷간에는 개가 먼저 간다.
밥도 쉬면 못 먹는다.	밥으로 치를 나그네를 떡으로 치른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다.	밥은 굶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밥만 먹고는 못산다.	밥은 굶어도 집안이 편해야 산다.

밥맛 떨어진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잔다.
밥 맛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렸다.	밥은 때가 지나면 쉰다.
밥 맛 없는 소리만 한다.	밥은 뜰이 들면 먹고, 남녀는 눈이 맞으면 정이 든다.
밥맛이 없다.	밥은 배가 부르도록 줘야하고, 술은 취하도록 줘야한다.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을 때는 밥맛으로 먹는다.	밥은 배부르게 주어야 하고, 술은 취하도록 주어야 한다.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으로 먹는다.	밥은 배부르게 줘야하고, 술은 취하도록 줘야 한다.
밥벌레다.	밥은 봄같이 먹고, 국은 여름같이 먹고, 장은 가을같이 먹고, 술은 겨울같이 먹으랬다.
밥벌이를 한다.	밥은 봄같이 먹으랬다.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밥은 빨리 먹고, 뜰은 늦게 누랬다.
밥 부대다.	밥은 삼장(三醬)만 있으면 먹는다.
밥 부대에 옷걸이다.	밥은 열 곳에 가 먹어도 잠은 한 곳에서 자랬다.
밥사발은 눈물이요, 죽사발은 웃음이다.	밥은 주는 대로 먹고, 일은 하라는 대로 하랬다.
밥상 치는 놈 치고 살림 제대로 하는 놈 없다.	밥은 주는 대로 먹고, 잠은 가려 자랬다.
밥은 한 술갈 주면 정이 없다.	밥주머니에 술 부대다.
밥을 끓어도 속이 편해야 산다.	밥주머니에 술 포대다.
밥을 끓어도 조밥을 끓지 말고 흰 쌀밥을 끓여라.	밥주머니에 옷걸이다.
밥을 금강산 바라보듯 한다.	밥줄이 끊어지다.
밥을 남겨줄 양반은 강 건너서 봐도 안다.	밥타박 호래자식, 글타박 양반자식.
밥을 뒤쪽에서부터 먹으면 인덕이 없어진다.	밥타박하면 식복이 나간다.
밥을 먹고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밥탁이 떨어졌다.
밥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밥통이 떨어졌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	밥티 두 날 붙은 데 없이 까분다.
밥을 빌어다 죽을 쑤어 먹겠다.	밥티 하나 붙은 데 없이 까분다.
밥을 빌어먹는 데는 장타령이 제일이다.	밥티 한 날 붙은 데 없다.
밥을 빌어먹어도 고향에서는 빌어먹지 말랬다.	밥풀 물고 새 새끼 부른다.
밥을 주다.	밥풀 하나 붙은 데가 없다.
밥을 죽이라고 우긴다.	밥풀로 새 잡겠다.

밥을 치면 떡이 되지만, 애매한 사람을 치면 도둑이 된다.	밥풀로 잉어 낚는다.
밥을 치면 떡이 된다.	밥풀이 식기에 안 붙으면 비가 올 징조다.
밥을 항부로 먹고, 국을 소리내면서 먹는다.	밥풀이 얼굴에 더덕더덕 붙었다.
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안다.	방귀에 초 친 맛이다.
밥이 나오나 옷이 나오나.	방앗간에 자는 놈이 고추장 타령한다.
밥이 다 된 가마는 끓지 않는다.	방판수 떡자루 잡듯 한다.
밥이 되든 떡이 되든 상관 말아라.	방판수 떡자루 잡듯, 장님 복자루 잡듯 한다.
밥이 될지 죽이 될지 모른다.	밭 팔아 논 살 때는 이밥이나 먹자는 것이다.
밥이 분(粉)이다.	배가 고프면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는다.
밥이 분이고, 옷이 날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밥이 살로 가다.	배가 남산만하다.
밥이 약보다 낫다.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밥이 얼굴에 더적더적 붙었다.	배고픈 데는 밥이 약이다.
밥이 없으면 얻어먹고, 숟가락이 없으면 손으로 먹고, 집이 없으면 정자나무 밑에서 자도 부부간에 정만 있으면 산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준다.
밥이 일한다.	배고픈 사람은 찬밥도 달게 먹는다.
밥이 제 티 한다.	배는 밥으로 채워야지 말로는 못 채운다.
밥이 지팡이다.	배는 작아도 동지 팔죽은 잘 먹는다.
밥이 질다.	배로 먹고 등으로 먹는다.
밥인지 죽인지 술뚜껑을 열어 봐야 안다.	배부른 놈에게 고량진미를 주어도 별 맛을 모른다.
밥주걱으로 뽕 맞는다.	배부른 상전이 하인 밥 못하게 한다.
밥주걱은 밥주걱 구실을 하고, 삼은 삼 구실을 한다.	배부른데 선떡 준다.
밥주머니다.	배추가 풍년이면 김장을 늦게 하고, 흉년이면 김장을 일찍 해야 한다.
백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다.	보리 밥알로 잉어를 낚는다.
백성은 먹을 것이 하늘이다.	보리밭에 가 송농 찾는다.
백정은 나물국을 좋아한다.	보리송농에 살핀다.
백정은 명이 국을 좋아한다.	보리송농은 보리밥 제쳐놓고 먹는다.
뽕장어가 눈은 작아도 저 먹을 것은 다 본다.	보리개떡도 떡은 떡이고, 의붓아비도 아비는 아비다.
뽕속 벌레가 놀라겠다.	보리개떡은 씹쓸한 맛으로 먹는다.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보리개떡이 떡이나, 보리술이 술이나?
뱃속은 밥으로 채우지 말로는 못 채운다.	보리누룻지도 맛들일 타이다.
뱃속의 벌레가 놀라겠다.	보리떡도 떡은 떡이고, 계모도 어미는 어미다.
버린 밥으로 잉어 낚는다.	보리떡도 떡은 떡이다.
번갯불에 소금 구워 먹겠다.	보리떡도 떡이라 할까, 의붓아비도 아버지라 할까?
벌기는 함부로 벌어도 먹기는 깨끗이 먹으랬다.	보리떡에 쌍장구를 친다.
벌물 켜듯이 한다.	보리떡이 떡이나, 의붓아비가 아비냐.
벌주(罰酒) 먹듯 한다.	보리떡이 떡이나, 청국장장 장이냐.
범벅덩이에 쉬파리 달라붙듯 한다.	보리로 담근 술 보리 냄새 안 빠진다.
범벅덩이에 파리 덩비듯 한다.	보리밥 먹고 가축피리만 분다.
범벅도 금그어 놓고 먹으랬다.	보리밥 먹고 방귀뀌기다.
범벅도 아니고, 죽도 아니다.	보리밥에는 고추장이 제격이다.
범벅에 꽃은 수저다.	보리밥에는 상추쌈이 제격이다.
범벅을 먹어도 아비 아들 간에 금 굶고 먹으랬다.	보리밥은 고추장에 비벼야 맛이 있다.
범벅이 되었다.	보리밭 지나며 주정한다.
범벅이나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보리밭만 지나도 취한다.
범의 차반이다.	보리범벅 같다.
번덕이 죽 끓듯 한다.	보리술 막지가 사람 죽인다.
변변치 못한 며느리가 고추장 한 단지를 사흘에 다 먹는다.	보리술은 농주다.
변학도 잔치에 이도령 밥상이다.	보리술은 보리 내가 나기 마련이다.
변학도 잔치에 이도령 상이라.	보리술은 보리 냄새 안 빠진다.
변학도 잔치에 이도령 술상이다.	보리술은 보리 맛이 제 맛이다.
병 하나에 두 가지 술 못 담는다.	보리술은 보리술맛으로 먹는다.
병풍에 그린 떡이다.	보리술이 더 취한다.
보고도 먹지 못한다.	보리술이 술이나, 남의 계집이 계집이냐?
보고도 못 먹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보리술이 술이나, 의붓아비가 아비냐?
보고도 못 먹는 떡이다.	보리술이 제 맛 있다.
보고도 못 먹는 장떡(醬餅)이다.	보리죽도 못 먹는다.
보기 싫은 반찬이 끼마다 오른다.	보리죽도 못 먹는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	보리죽도 썬낸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보리죽도 썬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리죽에 물 탄 것 같다.
보기 좋은 음식도 별 수 없다.	보릿국에 물 탄 맛이다.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	보식(補食)이 보약(補藥)보다 낫다.
보름에 죽 한 끼도 못 먹은 놈 같다.	보채는 아이 밥 한술 더 주렸다.
보리 누룻지는 고소한 맛으로 먹는다.	보자보자 했더니 얻어 온 장 한 번 더

	뜯다.
복은 반복(半福)이 좋고, 술은 반취(半醉)가 좋다.	비지 사러 갔다가도 말을 잘하면 두부 산다.
불에 밥풀 하나 안 붙었다.	비지 먹은 배는 연약과도 싫다 한다.
봄 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비지국으로 채운 배는 약과도 싫다 한다.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비지도 끼 에워 먹지 못한다.
봄 떡은 버짐에도 약이다.	비지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봄 떡은 보기만 해도 살찐다.	비지도 없어서 못 먹는다.
봄 떡은 산삼 먹은 폭이나 된다.	비지떡 먹은 배는 약과도 마다한다.
봄 떡은 술 좋아하는 생원님도 먹는다.	비지떡도 끼 에워 먹는다.
봄 떡은 장리곡(長俚穀) 주기도 사먹는다.	비지로 채운 배는 고향진미도 마다한다.
몽환불에 떡 구워 먹는다.	비지죽 먹고 수영 쓴다.
몽환불에 밥 지어 먹겠다.	비지죽 먹고 용트림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비지죽을 먹고 수영 쓴다.
부른 배가 더 답답하다.	비짓국 먹고 용트림한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비짓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마다한다.
부모 밥도 어렸을 때고, 형의 밥도 어렸을 때다.	비짓국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부자간에 범벅을 먹어도 금 곳고 먹으려다.	빌어먹는 놈이 이밥 조밥을 가릴까?
부잣집 떡 돌리듯 한다.	빌어먹는 놈이 콩밥 마다할까?
부잣집 떡가래가 작다.	빛 좋은 개살구.
부잣집 떡개는 작다.	빨리 먹는 음식에 목 메인다.
부잣집 잔치떡 나누어 먹듯 한다.	빨리 먹은 콩밥 똥 놀 때 봐야 안다.
부처님도 먹어야 좋아한다.	뽕덕어미 옛 값이 순 냥이라고.
북한산에서 술 팔 듯 한다.	사내가 못 참는 건 첫째가 술이고, 둘째가 계집이고, 셋째가 노래다.
분풀이 술을 마신다.	사내의 원수는 술과 계집이다.
불가에 엮 두고 왔나?	사냥개 언 똥 먹듯 한다.
볶고 쓴 장이다.	사돈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볶은 간장은 달지 않다.	사또 밥상에 지렁종지 같다.
볶은 팔고물떡은 제사에 안 쓴다.	사또 상 같다.
비가 오는 것은 소금 장수가 먼저 안다.	사람 죽는 것은 모르고, 팔죽 들어오는 것만 따진다.
비령이 김치국 흘러듯 한다.	사람 죽는 것은 모르고, 팔죽 쑤는 재미만 안다.
비빔밥과 보지는 질어야 맛이 좋다.	사람은 날 때 저 먹을 것을 타고난다.
비빔밥에 기름장 친 맛이다.	사람은 밥이 분이고, 웃이 날개다.
비상(砒霜)국으로 안다.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해보야 속을 안

	다.
비상 전에 가서도 입맛은 본다.	사람은 술자리를 함께 해봐야 안다.
비싼 떡은 안 사먹으면 그만이다.	사람은 일을 해야 밥맛이 난다.
비싼 밥 먹고 험한 걱정한다.	사람은 정으로 사귀고, 귀신은 떡으로 사귀다.
비싼 밥 먹고 헛소리만 한다.	사람은 죽어 귀신이 돼도 먹을 것을 찾는다.
비위가 떡판에 가 넘어지겠다.	사람은 취해야 본성을 나타내고, 용은 자야 체신을 나타낸다.
비위가 떡함지에 자빠지겠다.	사람은 취해야 본성이 나타난다.
비위가 사돈네 떡함지에 넘어지겠다.	사람이 밥 빌어먹는 구멍은 3천여 가지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팔죽 생각만 한다.	삶은 개고기 뜯어먹듯 하다.
사랑이 밥 먹여 준다더냐.	삶은 밤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사러베장단에 호박죽 끓여먹는다.	삼동서 앞에 식은 죽 한 그릇이다.
사위 국 세 대접에 장모 눈먼다.	삼수갑산을 가는 변이 있어도 우선 먹고 볼 판이다.
사위 밥 담듯 한다.	삼장(三醬)만 있으면 밥은 먹는다.
사위 밥 한 그릇은 동네 사람이 먹고도 남는다.	상갓술로 벋 사귀다.
사위 밥은 겉보리밥이고, 자식 밥은 이밥이다.	상다리가 부러지겠다.
사위 밥은 발로 눌러 담고, 머슴 밥은 피워 담는다.	상두꾼은 연꽃국에 반한다.
사жат밥을 목에 매달고 다닌다.	상두술로 낮내기다.
사жат밥을 싸가지고 다닌다.	상시(常侍)에 먹은 마음 취중에 나온다.
사жат밥을 지고 다닌다.	상시에 먹은 마음 취중에 난다.
사жат밥인 줄 알고 먹는다.	상에 가득히 차린 진귀한 음식이다.
사탕 봉어에 건강강이다.	상전 배부르면 중 배고픈 줄 모른다.
사탕발림이다.	상추쌈에는 고추장이 제 맛이다.
사탕은 먹을 때만 달다.	상판때기 보기 불에 밥풀 하나 안 붙었다.
사후(死後) 술 석 잔이 생전 한 잔 술만 못하다.	새 중에는 먹새가 제일 무섭다.
사후에 술 석 잔 주려고 말고, 살아서 한 잔만 달라.	새 중에는 먹새가 제일 크다.
사후의 석 잔 술보다 살아서 한 잔 술이 낫다.	새 한 마리로 백 놈을 갈라 먹인다.
사흘에 비지죽 한 끼도 못 먹는다.	새남터를 나가도 먹어야 한다.
사흘에 비지죽 한 끼도 못 먹은 놈 같다.	새알 수제비 든 동지 팔죽이다.

사흘에 죽 한 끼다.	색깔이 나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사흘에 죽 한 끼도 못 먹는다.	셋서방 국수에는 고기를 밑에 담고, 본서방 국수에는 고기를 위에 담는다.
사흘에 피죽 한 끼도 못 먹는다.	생기면 먹고 안 생기면 안 먹는다.
삭차례(朔茶禮) 떡맛 보듯 한다.	생색은 나그네가 내고, 술은 주인이 낸다.
산과 바다에서 나는 맛 좋은 반찬이다.	생선은 대가리 쪽이 맛이 있고, 짐승은 꼬리 쪽이 맛이 있다.
산남(山南)에서 죽 쑨 놨은 산북(山北)에 가도 죽 쑨다.	생시(生時)에 먹은 마음 취중에 튀어 나온다.
산더미 같은 고기요, 숲 같은 포다.	생일날 국수를 먹으면 명이 길다.
산지 자갈이 떡이라도 먹는 놈이 없으면 무용이다.	생일날 잘 먹으려고 열흘 전부터 굶는다.
산짓물이 술이라도 먹을 놈 없으면 못 먹는다.	생일날 죽을 쑤어먹으면 가난하다.
산천어 굽는 냄새에 나갔던 며느리가 되 돌아온다.	생일날 찰밥을 해먹으면 길하다.
산천어국은 돌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서 폰 밥 먹는 놈이 심부름은 잤다.
살림 못하는 년이 양식 주고 옛 사먹는다.	서낭당 떡을 먹으면 재수가 있다.
살아 석 잔 죽어 석 잔이다.	서낭에 떡 놓고 벼락 맞는다.
석 잔은 적고 다섯 잔이 알맞다.	소가 지나간 물만도 못하다.
선떡 가지고 친정 간다.	소같이 먹는다.
선떡 돌리듯 한다.	소경 장 떠먹듯 한다.
선떡 먹고 못 볼 것을 봤나?	소경이 떡자루 잡듯 한다.
선떡 먹고 체했나 웃기는 왜 웃나.	소금 먹다가 장을 먹으면 조갈병(燥渴病)에 죽는다.
선떡 먹고 체했나?	소금 먹은 개가 장을 먹으면 조갈증(燥渴症)에 죽는다.
선떡 먹은 놈 마냥 웃기만 한다.	소금 먹은 고양이 상이다.
선떡 받은 것 같다.	소금 먹은 놈이 물도 켜다.
선떡 부스러기다.	소금 먹은 소 굴우물 들여다보듯 한다.
선떡 부스러지듯 한다.	소금 먹은 소 물 켜듯 한다.
선떡 사돈집에 준다.	소금 먹은 푸성귀다.
선떡은 사람을 살려도 선의사는 사람을 죽인다.	소금 실은 배만하다.
선반에서 떨어진 떡이다.	소금 없이는 절여지지 않는다.
선밥 먹은 놈마냥 웃기만 한다.	소금 장수다.
선밥은 더운국에 말아먹어야 한다.	소금 장수보다도 더 짜다.

선밥은 사람을 살려도 선의원은 사람을 죽인다.	소금 좀 먹어야겠다.
선술 할머니 배분다.	소금국에 마른다.
선술에 배 굶이고 아랑 설사한다.	소금국에 조밥이다.
선주(船主) 아주머니 인심이 좋아 냉수를 달래도 술 퍼준다.	소금도 곰팡난다.
선지국 먹고 발등걸이를 하였다.	소금도 맛보고 사렸다
선달 그믐에 떡 치듯 한다.	소금도 먹은 놈이 물컾다.
선달 그믐에 흰떡 맞듯 한다.	소금도 없이 간 내 먹는다.
선달 그믐에 흰떡 치듯 한다.	소금밥도 못 먹는다.
설 떡국 먹는 데만 찾아다녔나?	소금밥에 정 붙는다.
설날은 도소주(屠蘇酒)로 악귀(惡鬼)를 물리친다.	소금밥이다.
설웁엔 먹어야 살찌고, 걱정엔 안 먹어야 살찐다.	소금밥이라도 먹고 가라.
설익은 수제비에 입천장만 덴다.	소금성을 물로 끌려면 끌고, 엉덩이로 밤송이를 까려면 깬다.
성 찬 농 성에 담듯 한다.	소금성을 물로 끌어라 해도 끌겠다.
성술이다.	소금성을 물에 넣으려면 넣는다.
성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소금성을 지고 물로 들어간다.
성난 년 밥 굶기다.	소금에 곰팡이 나겠다.
성복술(成服酒)로 권주가 부른다.	소금에 아니 전 놈이 장에 절까?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죽도 향기롭다.	소금에 안 전 놈이 장에 절까.
세 번 만에 지은 밥이 선밥이다.	소금에 안 절여지는 나물 없다.
세 어미 딸 두부 앓듯 한다.	소금에 절인 파김치가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놈은 먹기내기하는 놈이다.	소금에도 안 전 놈이 간장에 절까.
세상의 남자의 원수는 술과 계집이다.	소금으로 바다 메우기다.
소가 건너간 물이다.	소금으로 열두 가지 반찬을 만든다.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 물이다.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못 믿는다.	쇠뿔이 지짐떡으로 보인다.
소금은 반찬 중에서 으뜸이다.	쇠뿔도 단 김에 빼고, 호박떡도 더운 김에 먹으랬다.
소금을 굵는다.	수달과 곰은 발바닥만 핏아먹고 산다.
소금을 먹은 개가 장을 먹으면 조갈병(燥渴病)에 죽는다.	수달마냥 발바닥 핏아먹고 산다더냐?
소금을 지고 물로 들어가도 제 멋이다.	수박 곁핥기다.
소금을 팔러 가니까 비가 온다.	수박 잃고 깨알 줍기.
소금을 팔러 가면 비가 오고, 가루를 팔러 가면 바람이 분다.	수수떡을 해먹어야 하겠다.
소금이 쉴 때까지 기다려라.	수수범벅은 팔 맛으로 먹는다.

소금이 쉼 일이다.	수수범벅이다.
소금이 썩을 일이다.	수수팔떡은 안팎이 없다.
소금이 얼 때까지만 기다려라.	수염이 댕 자 오 치라도 먹어야 양반 노릇도 한다.
소금이 짜다고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수염이 댕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소금짐을 지고 물로 가고, 화약짐을 지고 불로 간다.	수제비 잘하는 사람은 국수도 잘한다.
소금짐을 지고 물로 들어가도 제 재미다.	수제비 잘하는 솜씨는 국수도 잘한다.
소나기 술에 사람 끓는다.	수제비 잘하면 국수도 잘한다.
소처럼 마시고, 말처럼 먹는다.	수제비 한 그릇이 국수 한 그릇보다 배부르다.
소태 씹는 맛이다.	수풀에 썩은 개가 내물고, 오장에 말은 술이 내몬다.
소하고 남자는 집어 주어야 먹는다.	숙수가 많으면 국수가 수제비 된다.
속 먹자는 만두요, 걸 먹자는 송편이다.	숙수가 많으면 국수를 못 먹는다.
속에 숨겨둔 말은 술이 몰아낸다.	숙수가 여럿이면 국 맛이 짜다.
속이 편해야 밥 먹은 것도 살로 된다.	숙수가 여럿이면 국수 맛이 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술가락 댕 것도 없다.
손가락으로 물만 통긴다.	술가락 없이는 부지깥이 없이는 못 먹는다.
손꼽아가며 밥 먹는다.	술가락만 들고 다닌다.
손수 술을 따라 마신다.	술가락이 많아야 음식도 맛있다.
손에 붙은 밥풀이다.	술가락이 많아야 음식이 맛이 있다.
손자 밥 떠먹고 천정 쳐다보기다.	술가락질을 배웠으면 젓가락질도 배워야 한다.
손자 빵에 붙을 밥풀도 떼어먹겠다.	술 값은 서 푼인데 안주 값은 팔 푼이다.
손자 자지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는다.	술 괴자 임 오신다.
솜 씹는 맛이다.	술 괴자 체 장수 온다.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 낳는다.	술 깨는 데는 해장술이 약이다.
송편으로 목을 따 죽을 일이다.	술 끊고 누룩 흥정한다.
술 전에 엿을 붙여 놓고 왔나?	술 끊고 모은 돈으로 소 샀더니 호랑이가 물어갔다.
술뚜껑에 엿을 놓았나?	술 나쁜 것 먹기는 정승하기보다 어렵다.
술뚜껑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술 내고 안주 낸다.
술은 검어도 밥은 희다.	술 담배 참아 소를 샀더니 호랑이가 물어갔다.
술이 검기로 밥도 검으랴?	술 마시고 밥 먹으나 밥 먹고 술 마시나, 뱃속에 들어가 똥오줌 되기는 일반이다.

술 마실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군자다.	술장사 3년에 술국자만 남는다.
술 먹는 것만 보아도 취한다.	술장사를 하려면 계집은 놔먹여야 한다.
술 먹여 놓고 해장하러 가자고 한다.	술장사를 하려면 아예 쓸개를 빼고 하랬다.
술 먹여 놓고 해장하자고 한다.	술장사 3년에 국자만 남고, 갈보 3년에 버선짝만 남는다.
술 먹으면 사촌 기와집도 사준다.	술 좋아하다 보면 주정뱅이 되고, 놀기 좋아하다 보면 건달된다.
술 먹은 개다.	술 좋아하면 주정꾼이 된다.
술 먹은 사람보고 술 먹었다고 하면 성낸다.	술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술은 마신다.
술 먹은 사람보고 술 먹었다면 성내고, 병신보고 병신이라면 노여워한다.	술 취하면 겁나는 것이 없다.
술 못 먹는 귀신 없고, 글 모르는 귀신 없다.	술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술 못 얻어먹은 흥은 주태백이 하고, 음식 못 얻어먹은 흥은 호래자식이 한다.	술 취하면 사촌 땅 사준다.
술 받아 주고 뺨 맞는다.	술 취하면 임금도 보이지 않는다.
술 배우려면 술버릇부터 배워야 한다.	술 취한 개다.
술 본 김에 설 쓴다.	술 취한 농 달갈 팔 듯 한다.
술 본 김에 제사지낸다.	술 취한 농 속은 모른다.
술 빛자 임 오신다.	술 취한 농 임금도 모른다.
술 사고 안주 산다.	술 취한 농이 외나무다리는 잘 건너간다.
술 생나는 주전자다.	술 취한 뒤에 마시는 것은 안 먹는 것만 못하다.
술 속에서 진담(眞談) 들었다.	술 취한 듯이 살다가 꿈 같이 죽는다.
술 속은 해장국으로 풀어야 한다.	술 취한 미치광이다.
술 안 먹고 취할까?	술 취한 사람 말에 거짓말 없고, 늙은이 말에 그른 말 없다.
술 안 먹는다고 술값 밀린다더냐?	술 취한 사람 속은 알게 된다.
술 안 먹어서는 거짓말하던 사람도 술 먹으면 바른말을 하게 된다.	술 취한 사람과 아이는 거짓말을 않는다.
술 얘기만 들어도 취한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 먹여 깨게 한다.
술 익자 임 오시고, 체 장수도 온다.	술 취한 사람은 넓은 개천도 좁은 줄 알고 간다.
술 익자 임 오신다.	술 취한 사람이 사촌 땅 사준다.
술 익자 체 장수 온다.	술 취한 사람이 사촌 집 사준다.
술 있는 강산에는 다 호걸이다.	술 취한 중 목탁 치듯 한다.

술 잘 먹고 돈 잘 쓰면 금수강산이요, 술 못 먹고 돈 못쓰면 적막강산이다.	술 취한 중이다.
술 잘 먹고 돈 잘 쓰면 활량이다.	술 취해서 말 다르고, 술 깨서 말 다르다.
술장사 10년에 깨진 국자밖에 안 남는다.	술 취해서는 동네 사람 땅 사주고, 술이 깨서는 동네 사람 땅을 빼앗아 들인다.
술장사 10년에 남은 건 주전자뿐이다.	술 한 말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술장사 10년에 얻은 것이라고는 요분질밖에 없다.	술 한 잔 마시면 외조카 발 사주겠다고 한다.
술값 천 년 약값 만 년이다.	술독에 밥주머니다.
술값보다 안주 값이 더 비싸다.	술독에 빠진 놈이다.
술·계집·노름은 패가의 상대장본인이다.	술독에서 산다.
술고래다.	술독은 해장술로 풀어야 좋다.
술과 계집과 노름은 사내의 삼도락(三道樂)이다.	술로 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든다.
술과 계집과 노름은 패가의 상대 장본이다.	술만 보면 맹세도 잊는다.
술과 늦잠은 가난이다.	술병(酒病)은 술로 고쳐야 한다.
술과 늦잠은 가난이다.	술병을 흔들면 싸움한다.
술과 돈과 여자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술상 가녁에 코방아 찧는다.
술과 아내는 오래 목을수록 좋다.	술상의 떡을 먹어도 취한다.
술과 안주가 아무리 좋아도 먹어 봐야 안다.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다.
술과 안주를 보면 맹세도 잊는다.	술안주를 떡으로 하면 미련해진다.
술과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다.	술안주만 보면 끊은 술이 생각이 난다.
술김에 사촌 땅 사준다.	술안주만 봐도 술 생각이 절로 난다.
술김에 사촌 집 사준다.	술에 과취하면 난동을 부린다.
술꾼 술 끊는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다.	술에 물 타나 물에 술 타나 마찬가지로.
술꾼 술 끊는다는 것과 노름꾼 노름 끊는다는 것은 얼췌한 거짓말이다.	술에 물 탄 것 같다.
술꾼 술 끊는다는 것과 노름꾼 노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이다.	술에 물 탄 맛이다.
술꾼 술 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술에 빠진 건 건져도 계집에 빠진 건 못 건진다.
술꾼 치고 외상술 안 먹는 사람 없다.	술에 술 탄 것 같다.
술꾼은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
술꾼은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지 않는다.	술에 일의 성패가 달렸다

술꾼은 밥은 굶어도 술은 굶지 못한다.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다.
술꾼은 안주가 없으면 손가락 빨아가면서 마신다.	술에 취하면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술꾼은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	술에 취하면 본성이 나타난다.
술꾼은 청탁불문(淸濁不問)이요, 오입쟁이는 미추불문(美醜不問)이라.	술에 취하여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깬 뒤에 후회하게 된다.
술꾼은 청탁을 가리지 않는다.	술에는 공술이 있어도 씹에는 공씹이 없다.
술꾼은 해장 막걸리에 살핀다.	술에는 삼 곶이 있다.
술꾼은 해장국에 속 푼다.	술에는 안 될곶, 취할곶, 과할곶의 삼 곶이 따라다닌다.
술꾼은 해장술에 살핀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
술꾼은 해장술에 속 푼다.	술에도 개평술이 있다.
술꾼이 맞돈만 내고 먹는 다더냐.	술에도 공술은 없다.
술꾼치고 외상술 안 먹는 사람 없고, 오입쟁이치고 오입 않는 사람 없다.	술·여자·재물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술꾼치고 외상술 안 먹는 사람 없다.	술은 과음하면(狂藥)으로 된다.
술도 먹은 놈이 취한다.	술은 과음하지 말아야 한다.
술도 핑계가 있어야 마신다.	술은 꿀 때 걸러야 하고, 종기는 끓였을 때 짜야 한다.
술독 속에 든 초파리다.	술은 권주가가 있어야 술맛을 돋운다.
술은 권하는 재미로 마신다.	술은 미치광이가 되는 광약(狂藥)이다.
술은 권하지 않고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술은 반만 취해야 좋고, 꽃은 반만 피어야 곱다.
술은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약이다.	술은 반취가 좋다.
술은 근심 걱정을 잊게 한다.	술은 발광주(發狂酒)다.
술은 기분으로 마신다.	술은 백약 중에서 으뜸이다.
술은 기분으로 먹고, 음식은 맛으로 먹는다.	술은 백약(百藥)의 왕이다.
술은 기뻐도 먹고 슬퍼도 먹는다.	술은 백약의 장이고, 만병의 근원이다.
술은 김가가 먹고, 주정은 머슴이 한다.	술은 백약의 장이다.
술은 김가가 먹고, 주정은 이가가 한다.	술은 본성을 나타내게 한다.
술은 김 서방이 먹고, 취하기는 이 서방이 취한다.	술은 살아서도 석 잔이고, 죽어서도 석 잔이다.
술은 김 씨가 먹고 이 씨가 취하고, 콩죽은 내가 먹고 배는 네가 앓는다.	술은 수구문(水口門) 차례다.
술은 굶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	술은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다.
술은 나이순으로 든다.	술은 싫다면서 과음한다.

술은 남촌 술이 좋고, 떡은 북촌 떡이 좋다.	술은 안주가 좋아야 한다.
술은 다정한 친구를 만나면 천 잔도 모자란다.	술은 어른 밑에서 배워야 한다.
술은 대작(對酌)이 있어야 맛이 있다.	술은 어미가 따라도 맛이 더 난다.
술은 뒤끝이 깨끗해야 한다.	술은 얼굴을 붉게 하고, 돈은 마음을 검게 한다.
술은 들어가고, 망신은 나온다.	술은 예절로 시작하여 소란으로 끝난다.
술은 마실수록 말이 느다.	술은 인일(寅日)에는 담그지 않는다.
술은 많이 먹으면 망주다.	술은 자신(自身)을 알고 먹어야 한다.
술은 말물에 취하고, 사람은 훗물에 취한다.	술은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재미로 마신다.
술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멋으로 먹는다.	술은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취한다.
술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고 먹는 것이다.	술은 잘 먹고 잘 삭여야 한다.
술은 망우물(忘憂物)이다.	술은 잘 먹으면 약이다.
술은 먹어도 술에게 먹히지는 말렸다.	술은 잘 먹으면 약주(藥酒)가 되고, 잘못 먹으면 망주(妄酒)가 된다.
술은 먹을 탓이요, 길은 갈 탓이다.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이 좋다.
술은 몸을 돌보지 않는다.	술은 적게 먹으면 약이요, 많이 먹으면 욕(辱)이 된다.
술은 묵어야 좋고, 웃은 새 웃이 좋다.	술은 정도에 지나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은 묵을수록 맛이 좋고, 의사는 늙을수록 용하다	술은 제 어미가 따라도 술맛이 난다.
술은 묵을수록 좋고, 의사는 늙을수록 용하다.	술은 조금 먹으면 약주요, 많이 먹으면 독주다.
술은 묵을수록 좋다.	술은 조금 취하도록 먹어야 한다.
술은 미운 농도 준다.	술은 주고받는 맛으로 먹는다.
술은 주인이 권하고, 밥은 손이 권한다.	술이라면 사지(四肢)를 못 쓴다.
술은 주인이 내고, 생색은 나그네가 낸다.	술 자루에 밥주머니다.
술은 주인이 먹고, 주정은 머슴이 한다.	술자리에 늦게 오면 석 잔을 먹어야 한다.
술은 즐거워도 먹고 슬퍼도 먹는다.	술자리에서 술 안 먹고 양전한 척 하는 농이 계집은 따먹는다.
술은 즐겁게 하는 약이고, 슬픔을 잊게	술잔 든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

하는 약이다.	을까?
술은 초물에 취하고, 사람은 훗물에 취한다.	술잔은 둘 이상을 두지 않는다.
술은 취하는 것으로 마신다.	술잔은 작아도 빠져죽는다.
술은 취하는 재미로 마신다.	술잔은 짝수로 먹지 않는다.
술은 취하도록 줘야 하고, 밥은 배부르도록 줘야 한다.	술잔은 차야 맛있고, 임은 품어야 맛이다.
술은 취하라고 먹고, 매는 아프라고 때린다.	술잔이 나이 먹은 차례로 든다.
술은 취하라고 먹고, 음식은 배부르라고 먹는다.	술좌석에 늦게 오면 벌주 석 잔을 먹어야 한다.
술은 취하라고 먹는 것이지 마시기 위해 먹는 것은 아니다.	술주머니에 밥포대다.
술은 취하라고 먹는다.	술주전자 꼭지에 주둥이를 대고 산다 술주정은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술은 취하자는 술이다.	술주정은 버릇이다.
술은 꿀 때 걸러야 한다.	술주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고래 물 마시듯 한다.	술주정하려면 술을 먹지 말랬다.
술을 과음하면 망신(妄信酒)가 된다.	술지게미 먹고 주정한다.
술을 끓으려고 말고 과취를 하지 말랬다.	술지게미 먹고 취한 돼지 같다.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술지게미에 취한 도갓집 강아지 같다.
술을 똥구먹으로 먹었나?	술지게미와 쌀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술을 많이 먹으면 발광주(發狂酒)로 된다.	술집에 가서 떡 달란다.
술을 먹어도 술에 먹히지는 말랬다.	술집에 가야 외상술도 먹는다.
술을 먹어도 즐겁지 않다.	술친구는 끊어지면 그만이다.
술을 먹으면 사촌 기와집도 사준다.	술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술을 보거튼 간장같이 대하랬다.	술탈은 술로 떼는 격이다.
술을 자기손으로 따라 마신다.	술통만 보고는 술맛을 모른다.
술을 좋아하게 되면 계집도 좋아하게 된다.	술푸대다.
술이 나뻐지라도 차보다는 낫다.	술푸대에 밥주머니다.
술이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술항아리 속에서 산다.
술이 들어가고 망신은 나온다.	송늬는 아랫목같이 따끈해야 하고, 찌개는 부뚜막같이 뜨거워야 한다.
술이 들어가면 혀는 나오게 된다.	송늬에 덴 놨은 냉수도 불어먹는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	송늬에 물 탄 맛이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다.	송늬에 밥알이 뜨면 비가 온다.
술이 생기는 항아리다.	숲 속의 꿩은 개가 내몰고, 오장 속의
술이 술을 먹는다.	

	말은 술이 내온다.
술이 아무리 독해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쉬파리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술이 없으면 잔치도 안 된다.	흰떡 사돈 준다.
흰떡에도 팔고물은 든다.	식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흰밥도 개 주기는 아깝다.	식은 조밥이다.
흰밥도 고양이 주기는 아깝다.	식은 죽도 불어가면서 먹으렸다.
시거든 떨어지나 말거든 떨어지나 말아야지.	식은 국도 맛보고 먹으렸다.
시거든 떨어지나 말고 엇거든 겹지나 말지.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시골 사람은 굶어도 보리밥을 굶지만, 서울 사람은 굶어도 이밥을 굶는다.	식은 떡 떼어먹듯 한다.
시금털털한 막걸리다.	식은 밥 신세다.
시금털털한 보리술이다.	식은 밥에 뜨거운 국이다.
시금털털한 오뉴월 보리술이다.	식은 밥이 밥인가 의붓아버가 아버지인가.
시기 지난 김치다.	식은 밥이 밥인가, 명태 반찬이 반찬인가?
시기는 모과 잔등이다.	식은 죽 갓 둘러먹기다.
시기는 초병 마개다.	식은 죽 먹고 냉방에 앉은 것 같다.
시래깃국에 땀낸다.	식은 죽 먹기다.
시루 안 떡도 먹어야 먹는 것이다.	식은 죽 앉아서 먹기다.
시사(時祀)떡 나누어 먹듯 한다.	식지(食紙)에 붙은 밥풀이다.
시아버지 화난 데는 술 받아준다.	식충(食蟲)이다.
시아버지 화난 데는 술로 풀어 주고, 시어머니 화난 데는 이 잡아 풀어 준다.	식혜 먹는 고양이 상이다.
시어버니 술값은 닷냥 며느리 술값은 열 닷 냥이라고.	식혜는 소화제다.
시원찮은 국에 입만 덴다.	식해도 공들여야 사먹는다.
시장이 반찬이다.	식혜를 먹든지 김치국을 먹든지 그야 임자 마음이다.
시장이 팔죽이다.	신 모과(木瓜)도 맛들일 탓이다.
시장한 놈이 이밥 조밥 가릴까?	신 배도 맛들일 탓이다.
시장할 때 먹으면 고기반찬 맛이다.	신 살구도 맛들일 탓이다.
시장할 때 밥 생각나듯 한다.	신 음식에 초 친다.
시집 밥은 걸살이 찌고, 친정 밥은 뻗살이 찌다.	신국에 초 친다.
시집 밥은 걸살이 찌고, 친정 밥은 속살이 찌다.	신 김치다.
시집 밥은 피밥이고, 친정 밥은 쌀밥이	신선마냥 감로(甘露)만 먹고 사는 줄

다.	아냐!
식구는 주인 양미간만 쳐다본다.	신일(辛日)에 메주를 쑨면 장맛이 시다.
식당개 3년이면 밥을 짓는다.	신일(辛日)에 장을 담그면 맛이 변한다.
식모가 여럿이면 국도 제대로 못 끓인다.	신주 싸움에는 팔죽을 놓는다.
식보(食補)가 약보(藥補)보다 낫다.	실없쟁이 장단에 호박국 끓여먹는다.
식복(食福)이 있는 놈은 자다가도 제삿밥을 얻어먹는다.	싫다던 술 더 마신다.
식복이 있는 놈은 자빠져도 떡판에 자빠진다.	싫은 매는 맞아도 싫은 음식은 못 먹는다.
식복이 있으면 넘어져도 떡함지에 넘어진다.	싫은 밥 있어도 싫은 술 없다.
식사 때가 아닌 음식은 먹지 않는다.	싫은데 선떡 준다.
식사중에 다듬이질을 하면 귀먹는다.	싫증이 나도록 먹는다.
식사중에 입 안의 음식이 보이면 복이 나간다.	심중(心中)에 말은 취중에 나온다.
식사하며 이야기를 하면 가난하다.	십 리 반찬을 한다.
싸라기밥으로 자랐나?	아는 떡에도 살 박아 먹으랬다.
싸라기밥을 먹어도 말 잘하는 판수라.	아는 주정이다.
싸라기밥을 먹었나?	아닌 밤중에 웬 국수냐?
싸전에 가서 밥 달란다.	아닌 밤중에 웬 떡이냐?
싸전에 가서 송농 찾는다.	아닌 밤중에 웬 찰시루떡이냐?
싼 것이 갈치자반이다.	아들 밥은 앉아서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싼 게 비지떡이다.	아들 밥은 윗목에서 먹고, 딸 밥은 부엌에서 먹는다.
쌀 없이 밥짓기다.	아들네 집에 가 밥 먹고, 딸네 집에 가 울 마신다.
쌀독이 바닥이면 밥맛은 더 난다.	아랫목에 엿을 두고 왔나?
쌀로 밥을 지었다고 해도 못 믿겠다.	아욱국 3년 먹으면 문을 키워야 한다.
쌀밥과 고기도 사흘만 내리 먹으면 싫증이 난다.	아욱국 3년 먹으면 외짝 문으로는 못 드나든다.
쌀밥과 여자는 힐수록 좋다.	아무 때 먹어도 김가가 먹을 밥이다.
쌀밥에 뉘 섞이듯 했다.	아무 때 먹어도 김 서방이 먹을 것이다.
쌀밥에 콩이나 보리밥에 콩이나 콩은 마찬가지다.	아이 보는 사람은 속밥을 주겠다.
쌀밥을 먹으려면 쌀로 밥을 지어야 한다.	아이 어미 밥 두 그릇 먹는다.
쌀알을 세어 밥을 한다.	아이가 가진 떡도 빼앗아먹겠다.
썩은 콩 씹는 맛이다.	아이가 가진 떡이다.

썩어 놓은 죽이다.	아이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먹는다.
썩떡 같은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아이들 생일에는 수수떡을 해주어야 한다.
썩떡 먹고 쓴 소리만 한다.	아이들은 많고 도래떡은 적다.
썩떡이나 먹어라.	아이들이 고추장 퍼먹고 울 듯 한다.
썩 죽이 밥 될까?	아이와 술 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쓰고 단맛도 모른다.	아주머니 술도 싸야 사먹는다.
쓰기가 소태 같다.	아주미 떡도 싸야 사먹는다.
쓴 막걸리 한 잔도 없다.	아주미 술도 싸야 사먹는다.
쓴 배도 맛들일 탓이다.	아전의 술 한 잔은 환자(還子)가 석섬이다.
쓴 약 먹고 사탕은 먹어도 사탕먹고 쓴 약은 못 먹는다.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외상술 달란다.
쓴 외도 맛들일 탓이다.	아직 국 뜨거운 줄을 모른다.
쓴맛 단맛 다 보았다.	아침술은 먹지 말고, 저녁술은 먹어야 한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도 모른다.	아침밥 먹고 새벽길 떠난다.
씹을수록 맛이 난다.	아침밥, 저녁 죽은 먹는다.
씻어 놓은 흰죽 사발 같다.	아침에는 밥 먹고, 저녁에는 죽 먹는다.
아가리에 자시오 할 때는 마다더니 처먹으라니까 먹는다.	아홉 잔이 넘으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아귀(餓鬼)같이 먹고, 궁병이 같이 일한다.	악양루(岳陽樓)도 식후경이다.
아그배도 맛들일 탓이다.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가 있다.
아내 잘못 얻으면 평생 원수요, 똥장 신 것은 1년 원수다.	안 보아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다.
아내와 술은 목을수록 좋다.	안 주어 못 먹고, 없어 못 먹는다.
안 주어 못 받지 손 작아 못 받을까?	양손에 든 떡이다.
안 주어서 못 먹는다.	양식 떨어지자 입맛 난다.
안방 술집이다.	양식 주고 떡 사먹는다.
안종남(安鍾男)이 원소 한 마리 다 먹는다고.	양은 쟁개비에 장 끓듯 한다.
안주 내고 술 내고 한다.	양주 밥 먹고, 고양 일 한다.
안주 안 먹으면 사위 덕을 못 본다.	양초를 씹는 맛이다.
안주 없이 좋아한다.	어깨동무 사발동무 술 한 잔이 반잔일세.
안주를 빨리 먹으면 손자를 쉬 본다.	어꾸수하다.
안주만 보아도 술 생각이 간절하다.	어느 떡이 더 찐지 모른다.

안주만 봐도 끊은 술 생각이 난다.	어느 밥의 콩이 큰가 한다.
안주와 술이 아무리 좋아도 먹어 봐야 안다.	어른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은 술로 헌주(獻酒)한다.
안팎이 없는 수수팔떡이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얹기는 술상머리에 얹어도 마음은 술잔에 있다.	어린이 껌이 얹어서 옛 빼앗아 먹는다.
얹아서 놓고 먹으면 태산도 모자란다.	어린이 떡도 빼앗아먹겠다.
얹은뱅이 떡 돌리듯 한다.	어린이 생일에는 수수떡을 해주어야 길하다.
얹으며 먹은 밥 피가 되고, 울면서 먹은 밥은 살이 된다.	어린이 옛 조르듯 한다.
압록강(鴨綠江)이 팔죽이라도 굵어죽겠다	어린이 옛도 껌이 얹어서 빼앗아 먹겠다.
앗다, 옛이나 먹어라.	어린이 자지에 붙은 밥알도 뜯어먹겠다.
약과 먹기다.	어린이 친하면 코 묻은 밥 먹는다.
약과 먹은 병어리다.	어린이 코 묻은 떡도 빼앗아먹는다.
약과 맛을 보겠다.	어린이가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한다.
약과에 꿀 찍은 맛이다.	어린이를 귀여워하면 코 묻은 밥을 얻어먹는다.
약은 혼자 먹고, 밥은 나누어 먹으랬다.	어린이에게는 회초리보다 옛이 낫다.
얹미운 놈이 고기안주 없다고 투정한다.	어린이와 술 취한 사람은 바른말만 한다.
얹미운 며느리가 사흘 만에 고추장 한 단지를 다 먹는다.	어머니가 얻어 온 장 아버지는 말뚝같이 먹는다.
얹 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어제 먹은 술이 아직도 깨지 않는다.
얹고랑에 든 소다.	어좁잖은 호박나물에 심정이 상한다.
얹념 맛이다.	어혈(瘀血)진 도깨비 개천물 마시듯 한다.
얹념을 많이 치면 음식 맛 버린다.	언제 내 떡 먹었느냐 한다.
얹반 김치국 떠먹듯 한다.	언제 먹어도 김 서방이 먹을 것이다.
얹반도 세 끼만 굵으면 된장 맛 좀 보자고 한다.	언제 먹자는 찬밥이냐?
얹반은 가는 데마다 상(床)이고, 상놈은 가는 데마다 일이다.	언제 먹자는 찹쌀떡이냐?
얹반은 먹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상놈은 일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다.	언제나 코 아래 입이 말썽이다.
얹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썩신다.	언제는 이태백이 맞돈만 내고 술 먹었

	다더냐?
양봉에는 메밀꽃 꿀이 막꿀이다.	언청이 굴회 먹듯 한다.
얼어 온 고추장이 더 해프다.	여자 술은 시아버지가 따라도 남자가 따라야 맛이 난다.
얼어 온 장 한 번 더 떠먹는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장맛이 쓰다.
얼어먹는 놈에게 밥상 차려 주니까 떠먹여 달란다.	여자는 밥상 들고 문지방 넘어오면서도 열두 번 변한다.
얼어먹는 놈이 더운밥 찬밥을 가릴까?	여자는 손에 묻은 밥풀이다.
얼어먹는 놈이 이밥 조밥을 가릴까?	여편네가 바가지로 밥 먹는 것 보고 내쫓는다.
얼어먹는 놈이 큰 떡 먼저 든다.	연희궁(衍禧宮) 까마귀 골수박 파먹듯 한다.
얼어먹는 데서 벌어먹는다.	열 놈이 죽 한 그릇발이다.
얼어먹는 술이 시니 다니 한다.	열 놈이 죽 한사발이다.
얼어먹는 장도 한두 번이다.	열 번 권하면 열 숟가락은 먹는다.
얼어먹어도 더덕 고추장이다.	열 살 생일에 수수떡을 해주어야 한다.
얼어먹을 것도 사돈네 노랑강아지 때문에 못 얼어먹는다.	열 살까지는 돌에 수수떡을 해주어야 한다.
얼어먹지 못하는 제사에 갓망건만 부순다.	열 숟가락 모으면 사발밥이 된다.
얼어먹지 못하는 제사에 절만 한다.	열 숟가락을 합치면 한 그릇이 푼푼하다.
얼은 떡이 두레 반이다.	열두 가지 반찬에 입에 맞는 것이 없다.
얼은 죽에 머리가 아프다.	열두 가지 반찬으로도 서방님 비위는 못 맞추겠다.
얼굴에 밥풀 하나 안 붙었다.	열무김치가 맛도 들기 전에 군동내부터 난다.
얼음 국 먹고 냉방에 누운 것 같다.	열에 하나도 입에 맞는 음식이 없다.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취했다.	열이 먹다가 아홉이 죽어도 모르겠다.
없는 곡식 주고 옛 사먹는다.	열이 어울러 밥 한 그릇이다.
없는 놈은 보리송농에 살찐다.	열이 한술씩 모은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없는 놈은 소금밥 대접도 못하날.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정신이 있다.
없는 놈은 소금밥도 대접 못한다.	옛 늘어지듯 한다.
없는 놈이 자 두 치 떡을 즐긴다.	옛 물고 개잘량에 옆드러진 놈 같다.
없는 놈이 찬밥 더운밥 가리랴.	옛 장수 낚쇠 사러 다니듯 한다.
없는 집 밥 굶듯 한다.	옛 장수 마음대로다.
없는 집일수록 장은 담가야 한다.	옛 장수 마음대로지 댓꼭지 임자 마음

	대로냐?
없으면 말아들 돌떡도 못해 준다.	옛 장수가 옛 주무르듯 한다.
여드레 피죽 한 그릇도 못 먹는다.	옛 장수네 아이 꿀 단 줄 모른다.
여름 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옛가락처럼 늘인다.
여름 떡은 보기만 해도 살찐다.	옛기름은 넣는다.
여름 보리 막걸리 맛 변하듯 한다.	옛물을 흘렸다.
여름 숙주나물 맛 변하듯 한다.	옛이 크고 작은 것은 옛 장수에게 달렸다.
여름 식혜 맛이다.	옛이나 먹어라.
여름 쌀밥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영감 밥은 누워 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여름 이밥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영감 밥은 발뒤꿈치로 꺾꺾 뵈아 담고, 머슴밥은 송글송글 피워 담는다.
여름 이밥은 인상이다.	영감 밥은 아랫목에서 먹고, 아들 밥은 윗목에서 먹고, 딸 밥은 부엌에서 먹는다.
영웅은 색을 좋아하고, 호걸은 술을 좋아한다.	외조모 떡도 커야 사먹는다.
옆구리에 섬 찬 농 집어넣듯이 먹는다.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옆구리에 섬 찻냐?	용수에 담은 찰밥도 어질러지겠다.
옆집 잔칫술로 낫낸다.	용수에 담은 찰밥도 옆질러지겠다.
옆집 잔칫술로 친구 사귈다.	용은 자야 체신을 나타내게 되고, 사람은 취해야 본성을 나타낸다.
오 푼 밥 먹는 놈이 심부름은 잤다.	우는 아이에게 떡 준다.
오뉴월 감주(甘酒)맛 변하듯 한다.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오뉴월 보리밥에는 새우젓이 제격이다.	우물 길에서 반설기 받는다.
오뉴월 보리술맛 변하듯 한다.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는다.
오뉴월 식혜 변하듯 한다.	우물가에서 송농 찾는다.
오뉴월아그배도맛들일탕이다.	우물길에서 차반 받는다.
오뉴월 옛가락 늘어지듯 한다.	우선 먹기는 곱감이 달다.
오뉴월 장마 끝물 오이 꼭지 씹는 상이다.	우선 먹기는 사탕이 달다.
오뉴월에는 밀 서리.	운은 하늘에 있고, 떡은 시렁에 있다.
오뉴월에는 밥 먹은 자리도 뜨기 싫다.	울면서 먹은 밥은 살로 되고, 앓으면서 먹은 밥은 피로 된다.
오는 떡이 두터와야 가는 떡도 두텁다.	울면서 먹은 밥은 살로 된다.
오는 떡이 커야 가는 떡도 크다.	울지 않는 아이 떡 주랴.
오대산(五臺山)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하면 사흘을 앓는다.	움 안에서 떡 받는다.
오동 손가락에 가물치국을 먹었나.	움 안의 간장이다.
오목천(鰲沐川) 떡갈이 싸다.	움막에 단 장이다.
오미자(五味子)국에 달걀 풀 듯 한다.	원님도 술주정꾼은 피한다.

오입쟁이는 인물을 가리지 않고, 주객은 청탁을 가리지 않는다.	원산(元山) 손님이 소박했었다.
오장 속의 말은 술이 내몬다.	원송이 낫짝 같다.
온 쌀밥은 못 먹고 싸라기밥만 먹고 자랴나?	원송이 불기짝 같다.
온면(溫麪) 먹을 적부터 그르다.	월천국이다.
옷은 살만 가리면 되고, 음식은 허기만 면하면 된다.	웬 떡이냐?
옷은 새 옷이 좋고, 술은 묵은 술이 좋다.	위 족족, 아래 골고루.
옹술(甕釜) 밥이 맛은 좋다.	유월에는 장을 담그지 않는다.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술로 본다.	유월 감주(甘酒)맛 변하듯 한다.
외상 반찬은 모자라도 경상 반찬은 남는다.	유월 열이튿날 새끼 돼지를 먹으면 보약보다 낫다.
외상술값 억지쓰듯 한다.	유주강산(有酒江山)은 금수강산(錦繡江山)이요, 무주강산(無酒江山)은 적막강산(寂莫江山)이다.
외상술값은 받아야 받은 것이다.	음식 같잖은 개떡수제비에 입천장만 덴다.
외상술은 먹고 굶는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외상술은 먹을 때는 공술 같고, 값을 때는 빛 값듯 한다.	음식 만드는 것은 안 보고 먹어야 맛이 있다.
외상술은 먹지 말랬다.	음식 든 길짐은 무거운 줄을 모른다.
외상술이 맛은 더 좋다.	음식 먹기 싫은 건 개나 주지만, 사람 싫은 건 죽어야 안 본다.
음식 먹는 것도 제각각이다.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맛이 있고, 잠은 혼자 자야 편하게 잔다.
음식 먹을 때는 떠들지 않는다.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맛이 있다.
음식 못 얻어먹은 흥은 거지가 하고, 술 못 얻어먹은 흥은 주태백이 한다.	음식은 적어도 남고 많아도 남는다.
음식 못된 것이 뜨겁기만 하다.	음식은 적어야 맛이 있다.
음식상을 밝히면 미움을 받는다.	음식은 정성이다.
음식 싫은 건 개나 주지만 사람 싫은 건 어쩔 수 없다.	음식은 함께 먹고, 잠은 따로 자랬다.
음식 싫은 건 개나 주지만 사람 싫은 건 죽어야 안 본다.	음식은 혼자 먹고, 일은 여러 사람이 하랬다.
음식 싫은 건 억지로도 먹지만 계집 싫은 건 억지로 못 산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가려 먹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음식 장사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음식을 밝히면 천해진다.
음식 장사는 풍흉이 없다.	음식을 사치하면 살림을 망친다.

음식 흥보는 것은 호래자식, 글 흥보는 것은 양반의 자식.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다.
음식과 남녀 간의 정은 인간 최대의 욕정이다.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가꾸도록 하라.
음식도 음식 같잖은 것이 뜨겁기만 하다.	의붓아버지가 아비냐, 보리술이 술이냐?
음식 맛은 부엌데기가 먼저 보게 마련이다.	의붓아버지 떡 치는 데는 가도 친아버지 도끼질하는 데는 가지 말랬다.
음식 맛은 손맛이다.	의붓아버지 흰떡 치는 데는 가도 친아버지 도끼질하는 데는 가지 말랬다.
음식 맛은 오대(五代) 부자라야 안다.	의사는 늙을수록 용하고, 술은 묵을수록 맛이 좋다.
음식은 갈수록 좋고, 말은 갈수록 보태진다.	의주(義州) 파발(擺撥)도 더운죽은 식혀서 먹는다.
음식은 남을 주어도 돈은 남을 주지 않는다.	이 떡 먹고 말 말아라.
음식은 돌수록 좋고, 말은 할수록 많아진다.	이 떡 먹고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한다.
음식은 마구 먹고, 잠은 가려 자랬다.	이 복 저 복 해도 식복이 제일이다.
음식은 만드는 것을 보지 않아야 깨끗하다.	이 빠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복이 나간다.
음식은 많아도 남고 적어도 남는다.	이 새 저 새 해도 먹새가 제일 크다.
음식은 맛으로 먹고, 술은 기분으로 먹는다.	이 술 저 술 해도 입에 들어가는 술이 천하일미(天下一味)다.
음식은 맛이 생명이다.	이 장 떡이 더 싼지 훗장 떡이 더 싼지는 가봐야 안다.
음식은 반드시 절제해서 먹어야 한다.	이 장 떡이 더 크니 저 장 떡이 더 크니 한다.
음식은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는다.	이 장 떡이 더 큰가 훗장 떡이 더 큰가는 두고 봐야 안다.
음식은 싱겁게 먹으면 털이 많이 난다.	이 장 떡이 더 큰가 훗장 떡이 더 큰가한다.
이게 웬 떡이냐.	익은 밥은 다시 설게 할 수 없다.
이도 나기전에 갈비 뜯는다.	인생삼락(人生三樂)은 술·노래·색이다.
이도 아니 나서 콩밥 먹는다.	인왕산 차돌을 먹을망정 사돈네 밥은 안 먹는다.
이도 아니 나서 황밤 씹는다.	인절미에 조청 찍은 맛이다.
이마 씻은 물만도 못한다.	인절미에 팔고물 묻히듯 한다.
이마에 사자밥을 붙이고 다닌다.	일 앓는 농이 밥은 두 그릇 먹는다.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다.	일 전(錢) 오 리(厘) 밥 먹고 한 푼

	모자라 백 번 사정한다.
이밥에 팻국이다.	일이 잘 될 때는 넘어져도 떡함지에 엮어진다.
이밥을 먹으니까 생일인 줄 안다.	임 없이 먹는 밥은 돌 반 뉘 반이다.
이밥이 분이고, 옷이 날개다.	임 오시자 술 익고, 술 익자 체 장수 온다.
이밥이 분이다.	임 오시자 술 익는다.
이밥이 아니라 빼 밥이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불티 묻은 음식은 올라간다.
이밥이나 조밥이나 배 채우기는 일반이 다.	임금도 밥에 날아든 불티는 먹는다.
이밥이면 다 젓밥인줄 아나?	임연수어 껌질 싹 3년에 천석꾼이 망 한다.
이밥이면 다 제삿밥인 줄 안다.	임연수어 껌질 싹은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른다.
이밥이면 다 제삿밥인줄 아나.	임연수어 싹 싸먹다가 천석꾼이 망했 다.
이불 밑에 엇 묻어두고 왔나?	임은 품에 들어야 맛있고, 술은 잔에 차야 맛이다.
이사 가는 날 시루떡을 해먹으면 길하다.	입 안 말 다 뜯자면 고랫등 같은 기와 집도 하루아침에 넘어간다.
이사 가서 팔죽을 쑤어먹어야 복이 온다.	입만 가지고 다닌다.
이사 간 날은 팔죽을 쑤어먹어야 길하다.	입만 알고 목구멍은 모른다.
이삭밥에도 가난이 든다.	입맛 나자 노수(路需) 떨어진다.
이삭밥이 더 먹힌다.	입맛 나자 쌀 떨어진다.
이웃집 고사떡이 더 맛있다.	입맛 나자 양식 떨어진다.
이웃집 떡이 더 커보인다.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잔다.
이웃집 식은밥 보고 맨장국 끓인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는다.
이웃집 잔칫술로 생색낸다.	입맛만 다신다.
이태백(李太白)도 술병(酒病)이 날 때가 있다.	입맛이 쓰다.
이태백(李太白)은 하루 3백 잔이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다.
이태백이 언제는 맞돈만 내고 술 먹었다 더냐?	입에 들어가는 밥도 제 손으로 떠 넣 어야 들어간다.
이를 전 찬밥이나 사흘 전 찬밥이나.	입에 <잡수시오> 할 때는 안 먹다가, 아가리에 <쳐먹어라> 해야 먹는다.
익은 밥 먹고 서툰 일만 한다.	입에 넣은 것이 안 넘어가랴.
익은 밥 먹고 선소리 한다.	입에 넣어 준 떡도 못 먹는다.
익은 밥 먹기다.	입에 맞는 떡은 귀하다.
익은 밥에 재 끼얹는 격이다.	입에 맞는 떡은 드물다.

익은 밥은 날로 돌아갈 수 없다.	입에 맞는 떡이 없다.
익은 밥은 다시 설게 할 수 없다.	입에 맞는 떡이다.
입에 문 떡도 못 먹는다.	잘 먹는 놈 껄껄하고, 못 먹는 놈 툴 툴한다.
입에 붙은 밥풀이다.	잘 먹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
입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한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이 외모도 낫다.
입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잘 먹으면 약주요, 잘못 먹으면 망주(妄酒)다.
입이 밥 벌어오지 밥이 입을 벌여온다더냐.	장 내고 소금 낸다.
입이 서울이다.	장 단 집에 복이 온다.
입이 원수다.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랬다.
입처럼 간사한 것은 없다.	장 떨어지자 나그네 국 마다고 한다.
잉어국 먹고 용트림한다.	장 떨어지자 사위 국 마다고 한다.
자기 배부르면 남 배고픈 줄 모른다.	장 쏟고 발등 덴다.
자기 자식에게는 팔죽 주고, 의붓자식에게는 콩죽 준다.	장 쏟고 허벅지 덴다.
자다가 얻은 떡이다.	장 아까워 잡은 개도 안 먹는다.
자다가 오장(五臟)이 밥 찾는다.	장 없는 놈이 국은 더 즐긴다
자다가 재삿밥 얻어먹는다.	장 없는 집에서 국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다.
자던 중도 떡이 다섯 개란다.	장 잘못 담근 건 1년 원수요, 아네 잘못 얻은 건 평생 원수다.
자시고 말 것도 없다.	장(醬)은 장(將)이다.
자식 밥은 먹어도 사위 밥은 못 먹는다.	장과 의사는 오래 목을수록 좋다.
자식을 귀하게 기르려면 객지밥을 먹이랬다.	장님 떡자루 감추듯 한다.
자작(子爵)이 남작(男爵)보다 높아서 자작(自酌)한다.	장독과 어린아이는 얼지 않는다.
자작(自酌·子爵)은 친일파다.	장독보다 장맛이 좋다.
작년 8월 추석에 먹은 송편이 넘어오겠다.	장독에 메밀꽃이 일면 장맛이 좋다.
작년 추석에 먹은 오려 송편이 나온다.	장맛 그른 것은 1년 원수고, 계집 그른 것은 평생 원수다.
작년에 먹은 오려 송편이 넘어온다.	장맛 그른 것은 1년 원수요, 계집 그른 것은 백 년 원수다.
작부(酌婦)질 석삼 년에 엉덩이만 커졌다.	장맛 나쁜 것은 1년 원수요, 아내 잘못 만난 것은 백 년 원수다.
잔 잡은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장맛 신 것은 1년 원수다.
잔 잡은 팔이 밖으로 퍼지지 못한다.	장맛이 단 집에는 복이 온다.

잔뜩 먹고 뱃장구만 친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변이 생긴다.
잔술에 눈물난다.	장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잔술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장맛이 좋아야 국맛도 좋다.
잔은 수구문(水口門) 차레다.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잘 된다
잔은 차야 맛있고, 임은 품어야 맛이다.	장모 장 떨어지자 사위 국 마다고 한다.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취한다.	장 서방이 마신 술에 이 서방이 취한다.
잔칫상 받으려고 사흘 굶는다.	장에 가서 선떡 사먹고 집에 와서 계 집 팬다.
잔칫상에서 떡만 먹어도 취한다.	장에 넣은 소금이 어디 갈까.
장옷 쓰고 엇 먹는다.	저절로 입에 들어오는 떡 없다.
장은 담가두면 돈이 된다.	적게 먹고 많이 씹어라.
장은 담가두면 돌이 돌아온다.	적게 먹으면 부처님이다.
장은 독배기에 끓여야 제 맛이 된다.	적게 먹으면 약주(藥酒)요, 많이 먹으면 독주(毒酒)다.
장은 묵을수록 값이 오르고, 처녀는 묵을수록 값이 떨어진다.	적은 밥이 남는다.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다 안다.	적은 밥이 쉰다.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도 모른다.	전라도 김치는 젓갈 맛으로 먹는다.
장이 달아야 국도 달다.	전라도 옥백미(玉白米) 밥이다.
장인 이마 씻은 물 같다.	전병(煎餅)이다.
장작불에 이밥 먹는 고장이다.	전어 굶는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장지(葬地)의 덕이다.	전염병 집에서 동지 팔죽을 쑤어먹으면 환자가 또 생긴다.
잡힌 밥에 재 뿌리기.	전주비빔밥이다.
잡힌 밥에 흙 뿌리기다.	절구질로 찐 흰떡은 제사에 안 쓴다.
잡힌 밥이다.	절구통을 패서 떡 해먹는다.
잡힌 밥이요, 말 탄 서방이다.	절에 간 색시 재에는 뜻이 없고 잣밥에만 뜻이 있다.
재(齋)에는 정신이 없고 잣밥에만 정신이 있다.	절편(絶餠)은 갈라먹으면 싸운다.
재든 날 중 싸대듯 한다.	젊은 놈 죽는 줄은 모르고 팔죽 먹을 생각만 한다.
재든 중이요, 굶든 무당이다.	점심 싸가지고 다니며 말린다.
재보다 잣밥이다.	점심에 찬밥 먹기다.
재수 없는 놈은 두부에도 뼈가 있다.	점시 밥도 담을 탓이다.
재에는 정신이 없고, 잣밥에만 정신이 있다.	젓가락 댈 것도 없다.
잣밥으로 생색낸다.	젓가락으로 김치국을 집어먹는다.

저 먹기 싫은 떡 남 주자니 아깝다.	정도에 지나치는 술은 경계하였다.
저 먹자니 싫고, 개 주자니 아깝다.	정어리 굽는 냄새에 나갔던 머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저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개에게 밥을 주면 가난해진다.
저 배가 부르니 평양 감사가 조카로 보인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오곡밥을 먹어야 길하다.
저 배부르면 증 배고픈 줄을 모른다.	정월 대보름에 밥을 얻어먹으면 무병하다.
저 사람 떡 주라는 것이 저 떡 달라는 말이다.	정월 보름날 귀밝이술을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
저 아이 밥 주라는 것이 나 밥 달라는 소리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술을 먹으면 컹병이 안 걸린다.
저녁 두 번 먹는다.	정월 초하룻날 떡은 보름날까지 먹어야 길하다.
저녁 술 깨는 데는 해장술이 약이다.	정의서 준 썩 술은 모간 와서도 죽 썩다.
저런 걸 날느니 호박이나 날아서 국이나 끓여먹지.	정이 찰떡 같다.
정초에 죽을 먹으면 1년 내내 공하다.	조상에는 마음이 없고, 팔죽에만 마음이 있다.
제 나락 주고 제 떡 사먹기다.	조팔밥은 이밥하고 안 바꾼다.
제 떡 먹기다.	종노구술 밥은 설수록 좋다.
제 밥 덜어 줄 샌님은 물 건너기 전부터 안다.	종기는 굶았을 때 짜야하고, 술은 꿀 때 걸러야 한다.
제 밥 먹고 남의 일 한다.	좋은 술도 맛을 봐야 안다.
제 밥 먹고 상전 빨래한다.	좋은 술에는 간판이 없다.
제 밥 먹고 상전 일한다.	좋은 술은 첫 잔에 안다.
제 밥 먹고 컸는데 남의 말 들을 리가 없다.	좋은 음식 먹고 헛소리한다.
제 밥 먹고 큰집 일한다.	좋은 음식도 먹어 봐야 맛을 안다.
제 밥 먹은 개가 발꿈치 운다.	죄기떡(보리떡) 반쪽 보고 종달리(種達里) 따라간다.
제 밥그릇은 제가 지고 다닌다.	주객(酒客)은 청탁불고(淸濁不顧)이요, 오입쟁이는 미추불고(美醜不顧)다.
제 보리로 제 떡 사먹기다.	주객(酒客)이 청탁(淸濁)을 가리고, 오입쟁이가 얼굴을 가릴까?
제 집 이밥보다 이웃집 보리밥맛이 낫다.	주객이 청탁을 가리랴?
제 집 찬밥이 남의 집 더운밥보다 낫다.	주는 것도 못 먹는다.

제사 덕분에 이밥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 신세다.
제사 덕에 이밥 먹는다.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제사 음식 나누어 먹듯 한다.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제사 음식은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귀신이 먹지 않는다.	주는 밥 먹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제사보다 제삿밥에 정신이 있다.	주량(酒量)이 말술이다.
제삿떡도 커야 귀신이 좋아한다.	주량이 커서 한없이 마신다.
제삿떡에는 붉은 팔고물을 쓰지 않는다.	주린 놈이 밥 치운다.
제삿밥 먹고 소 몰아간다.	주린 밥에는 밥이 약이다.
제삿밥 먹은 귀신 나가듯 한다.	주막 여인네 오줌 짐작이다.
제삿술로 친구 사귀다.	주막집 개가 사나우면 술이 안 팔린다.
제상(祭床)에 놓는 떡도 커야 귀신이 좋아한다.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식이다.
제석(帝釋) 아저씨도 먹어야 한다.	주모 보면 염소 똥 보고 설사한다.
조기를 구우면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주모(酒母)가 열바가지 두르듯 한다.
조를 세어 밥을 짓겠다.	주모만 봐도 취한다.
조밥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	주색(酒色)에 굶으면 추하게 늙는다.
조밥도 먹고, 이밥도 먹었다.	주색에 미치면 집안이 망한다.
조밥에 소금국이다.	주색에 빠지면 도리를 잃는다.
조밥에도 큰 덩이 작은 덩이가 있다.	주색에 빠진 사람은 서로 더하려고 한다.
조밥은 더워서 먹어야 한다.	주색에는 노소가 없다.
조밭에 가서 송충 찾는다.	주색에는 선생이 없다.
조상 덕에 이밥 먹는다.	주색은 따라다닌다.
조상(弔喪)보다도 팔죽 먹는 재미에 간다.	주색은 패가의 장본이다.
조상난 집에 사람 죽은 것은 안 치고, 팔죽 들어오는 것만 친다.	주색은 함정이다.
조상보다 팔죽에 마음이 더 있다.	주색잡기(酒色雜技)는 선생이 따로 없다.
주색잡기는 패가망신의장본이다.	죽어서 술단지가 되겠다.
주색잡기에 패가망신 아니 하는 놈 없다.	죽어서 큰상이 살아서 한 잔 술만 못하다.
주인은 손에게 술을 권하고, 손은 주인에게 밥을 권한다.	죽어서도 석 잔이다.
주인집 장 떨어지자 나그네 국 마다한다.	죽어서도 석 잔인데 한 잔 술 어디 있나.
주정꾼은 뜨물만 먹어도 주정한다.	죽은 놈 손의 떡도 빼앗아 먹겠다.
주정뱅이는 상감님 망건 살 돈으로도 술	죽은 뒤에 많은 제물보다 살아서 한

사먹는다.	잔 술이 낫다.
주정뱅이보고 술 먹었다면 성을 낸다.	죽은 뒤에 술 석 잔이 살아서 술 한 잔만 못하다.
주정은 버릇이다.	죽은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이다.
주태백(酒太白)이다.	죽은 적고, 중은 많다.
주토(朱土) 광대(廣大)를 그린다.	죽은 죽어도 못 먹고, 밥은 바빠서 못 먹는다.
죽 끓듯 한다.	죽은 중 이마 씻은 물만도 못하다.
죽 떠먹듯 한다.	죽은 커도 한 그릇 작아도 한 그릇이다.
죽 떠먹은 자리다.	죽을 때 죽어도 먹던 것은 먹어야 한다.
죽 떠먹은 자리요,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다.	죽을 먹고 살아도 속이 편해야 산다.
죽 먹고 사발 갠다.	죽을 식힐 동안이 급하다.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밥 먹은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	죽을 쑤다.
죽 먹은 시어머니 상이다.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다 안다.
죽 쑤는 데도 열두 가지 솜씨가 있다.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도 모른다.
죽 쑤어 개 바라지 한다.	죽이 끓어도 술 안에 있다.
죽 쑤어 개 좋은 일만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
죽 쑤어 남 준다.	죽이 밥 될까?
죽 쑤는 것은 적은데 중은 많다.	죽이 풀려도 술 안에 있다.
죽 푸다 흘려도 술 안에 떨어진다.	죽인지 코인지 모른다.
죽과 병은 되야 한다.	죽인지 코인지 물구지인지 닭똥인지 모르겠다.
죽과 장이 맞는다.	죽인지 코인지 분간 못한다.
죽그릇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죽젓개질을 한다.
죽도 밥도 아니다.	준 떡이나 받아먹어라.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중 먹을 국수는 생선을 속에 두고 담는다.
죽도 죽 같이 앓은 것이 뜨겁기만 하다.	중 이마 씻은 물이다.
죽사발은 웃음이요, 밥사발은 눈물이다.	중도 술 좋아하는 중 있고, 씹 좋아하는 중 있다.
죽술에 재 뿌린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빵이 석 대다.
죽어 귀신이 돼도 먹을 것은 찾는다.	중신은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참바가 세 개다.
죽어 석 잔 살아 석 잔 이다.	중은 술을 곡차(曲茶)라고 하면서 마신다.

죽어서 석 잔 보다 살아서 한 잔 술이 낫다.	중의 적삼만 걸어다닌다.
죽어서 석 잔 술이 살아서 한 잔 술만 못하다.	중이 고기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를 안 남긴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를 안 남긴다.	찍하면 입맛이요, 쳐다보면 절터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파리를 안 남긴다.	쪽박 속에 주먹밥이다.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촌에 내려가 외양간 널판도 훑는다.	찌개는 부뚜막 같이 뜨거워야 한다.
중이 술주정한다.	찍어 놓은 절편쪽 같다.
중이 장애 가서 주정한다.	차려 놓은 밥상 받듯 한다.
쥐꼬리를 쥐면 밥맛이 떨어진다.	차비 사흘에 제 떡이 된다.
즐거워도 먹고 슬퍼도 먹는 것이 술이다.	차조팔밥은 이밥 밀어 놓고 먹는다.
지고 다니는 것은 칠성판(七星板)이요, 먹는 것은 사жат밥이다.	차지장밥은 이밥하고 안 바꿔 먹는다.
지나가는 불에 밥 익혀먹기다.	찬물에 차돌 삶은 맛이다.
지어 놓은 밥도 먹으라는 것 다르고 잡수라는 것 다르다.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는다.
지에밥 먹은 돼지 버르듯 하다.	찬밥 더운밥 다 먹어 봤다.
지장범벅은 밥그릇 밀치고 먹는다.	찬밥 두고 잠 못 잔다.
지지죽만 먹다가 동짓날 밥 먹는다.	찬밥에 국적은 것만 생각한다.
진국은 내가 먹고 후국은 너 먹으란다.	찬밥에 국적은 줄 모른다.
진밥 씹듯 한다.	찬밥에 국적은 줄만 안다.
진상 가는 꿀단지 동이듯 한다.	찬밥에서 김이 난다.
진수성찬(珍羞盛饌)을 발로 차도 할 말은 있다.	찬밥으로 점심 먹기다.
진수성찬이라도 죽고 나면 제상(祭床)이라.	찰떡 같은 정분이다.
진잎죽 먹고 잣죽 트림한다.	찰떡가진 농이 바꿔먹자면 조떡 가진 농이 세 쓴다.
진잎죽도 배 채워먹지 못한다.	찰떡도 굴려야 고물이 묻는다.
질기기는 홍제원(弘濟院)이 찰떡이다.	찰떡도 한두 끼다.
질병(瓦瓶)에 감홍로(甘紅露)를 들었다,	찰떡에 콩보숭이 붙듯 한다.
질병에 든 술이 맛은 좋다.	찰수수에 팔범벅이다.
질탕관관에서 두부장 끓듯 한다.	창자에 기별도 않는다.
집구석이 망하려면 10년 묵은 장맛이 변한다.	창자에 소식도 없다.
집안이 망하려면 장맛부터 변한다.	책력 보아가며 밥 먹는다.
집안이 안 되려면 장맛이 변한다.	처갓집 밥 한 사발은 동네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

집에서 죽 쑨 년은 나가도 죽 쑨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집짓기는 밥짓기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징으로 밥 하나 먹고, 광쇠 하나 못이긴다.	척하면 삼척이요, 찍하면 입맛이다.
짚꾸러미 속에 단 장 들었다.	천하를 떡 주무르듯 한다.
짜짤은 놨은 짜게 먹고, 맵짤은 놨은 맵게 먹는다.	천하장사도 먹어야 맥을 쓴다.
짠것 먹은 놨이 물컾다.	철 지난 김치다.
짠것은 적게 먹고, 신 것은 많이 먹는다.	첫맛에 가오리국이다.
찍하면 입맛이라고.	첫술에 배부르랴.
첫 잔에 목축이고, 둘째 잔에 술맛 나고, 셋째 잔에 웃음 나고, 넷째 잔에 취기 난다.	친정 밥은 쌀밥이고, 시집 밥은 피밥이다.
청국장 콩찌꺼인지 쥐똥인지 모른다.	친정에서 가져온 고추장이다.
청국장이 장이나, 거적문이 문이나?	칠첩반상(七疊飯床)이다.
청국장이 장이나, 보리떡이 떡이나.	커도 한 그릇 작아도 한 그릇이다.
청국장인지 쥐똥인지도 모르고 덤빈다.	코 묻은 떡도 빼앗아먹는다.
칭어 굽는 데 된장 칠하듯 한다.	코 아래 진상이 제일이다.
칭탁(淸濁) 가리는 주객 없고, 인물 가리는 오입쟁이 없다.	코 아래 진상이다.
칭탁을 불문한다.	코가 비틀어지도록 먹었다.
체 장수 오자 술 익는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를 터뜨린다.
체력 보아가며 밥 먹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초가집 음식에도 기와집 음식보다 맛있는 것이 있다.	콩 주워먹듯 한다.
초상수로 친구 사귈다.	콩 켜 팔 켜다.
초상술 먹고 춤춘다.	콩나물 죽 1년을 먹으면 1년 양식이 밀린다.
초상술에 권주가(勸酒歌) 부른다.	콩밥 급히 먹은 놨은 뒷간에 가봐야 안다.
초장(初場) 술 꾸러기는 파장(罷場) 매 꾸러기 된다.	콩밥 누룽지다.
초장(初場) 술에 취한다.	콩밥 먹으러 갔다.
초장(初場) 술에 파장(罷場) 매다.	콩밥을 먹는다.
초장에 취한 놨이 파장에 매맞는다.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촌놈은 똥배 부르면 그만이다.	콩을 팔이라고 해도 곧이듣는다.
촌놈은 똥배 부른 것만 친다.	콩을 팔이라고 해도 곧이듣는다.

춘농은 밥그릇 높은 것만 따진다.	큰 떡만 고른다.
춘농은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제일이다.	큰 떡만 차지한다.
취객(醉客)이 외나무다리는 잘 건너간다.	큰 떡은 제 앞에 놓는다.
취담 중에 진담이 있다.	큰어미 제사에 작은어미 떡 먹듯 한다.
취담(醉談) 중에 진담(眞談)있다.	큰일이 나면 떡 해먹어야 한다.
취담하며 웃고 즐긴다.	타작 마당에서 송농 찾는다.
취중에 다 털어놓는다.	탐스러운 실과가 맛도 좋다.
취중에 사촌 땅 사준다.	턱이 가려우면 떡이 생긴다.
취중에 이웃집 땅 사준다.	토막 반찬에 이밥은 한두 식구나 먹는다.
취중에 진담(眞談)이 나온다.	통노구 밥은 설수록 좋다.
취중에 한 말은 술 깬 뒤에 후회하게 된다.	퇴주(退酒) 그릇인 줄 안다.
취중에 한 말은 자고 나면 잊어버린다.	통노구 밥은 설수록 좋다.
취중에는 임금도 안 보인다.	파김치가 되었다.
취중에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군자다.	파방(罷榜)에 수수엿 장수다.
취하는 것이 싫다면서 술은 먹는다.	파장 수수엿 장수 팔 듯 한다.
취하면 본성이 나온다.	파장 엿 장수 엿 팔 듯한다.
취한 놈 달걀 팔 듯 한다.	파장 엿이다.
취한 듯 미친 듯한다.	파장 장군보다 엿 장수가 더 많다.
취한다면서 술은 더 마신다.	파조범벅은 팔죽보다 맛있다.
취해서 자는 사람은 깨우지 말랬다.	팔도강산을 메주 밧듯 하였다.
친구와 술은 오래 될수록 좋다.	팔으로 메주를 썬다.
팔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믿는다.	한 놈이 먹을 건 백 놈이 먹어도, 백 놈이 먹을 건 한 놈이 못 먹는다.
팔죽 내가 난다.	한 달에 떡보숭이 세 번, 떡국 세 번 한 집은 망한다.
팔죽 단지에 생쥐 드나들 듯한다.	한 돈 오피 밥 먹고 한 푼이 모자라 백 번 치사한다.
팔죽 단지에 생쥐 들랑거리듯 한다.	한 되 떡에 한 말 고물이다.
팔죽에 새알 수제비다.	한 되 떡에도 고물은 든다.
편보다 떡이 낫다.	한 밥그릇에 두 술은 없다.
평생 소원이 누룽지라고.	한 밥그릇에 두 술이 없다.
평생 소원이 높은밥 팔자다.	한 밥그릇에 둘이 먹지 않는다.
평생 소원이 보리개떡이다.	한 번 식사에 만 냥이 든다.
평생 소원이 콩고물 인절미다.	한 술에서 두 가지 밥 못한다.
평소에 먹은 마음 취중에 나온다.	한 잔 먹은 김에 노래한다.
평시에 먹은 마음 취중에 말한다.	한 잔 먹은 놈이 두 잔 먹은 척 한다.
평안도 강계(江界) 석청(石淸)이다.	한 잔 술도 없어서는 안 된다.
포선(布扇) 뒤에서 엿 먹는다.	한 잔 술로 속 푼다.

<p>푼주의 송편맛이 뚜껍의 송편맛만 못하다.</p>	<p>한 잔 술로 시름 잊는다.</p>
<p>피겨죽에 탕구자(湯口子)다.</p>	<p>한 잔 술에 눈물난다.</p>
<p>피난 짐에는 곡식 내려놓고 소금 지고 간다.</p>	<p>한 잔 술에 울고 웃는다.</p>
<p>피밥이 이밥보고 맛없다는 격이다.</p>	<p>한 잔 술에 정이 든다.</p>
<p>피죽도 못 먹는다.</p>	<p>한 잔 술엔 청탁불문(淸濁不問)이고, 두 잔 술엔 노소불문(老少不問)이고, 석잔 술엔 생사불문(生死不問)이다.</p>
<p>하늘이 돈짜만하다.</p>	<p>한 잔 술은 약이요, 두 잔 술은 웃음이요, 석 잔 술은 방종이요, 마지막 술은 광증(狂症)을 낸다.</p>
<p>하늘이 무너져도 먹어야 산다.</p>	<p>한 잔 술이 두 잔 되고, 두 잔 술이 여러 잔으로 된다.</p>
<p>하던 술주정도 돈 준다면 앓는다.</p>	<p>한 잔 한 잔 하다가 밤 새운다.</p>
<p>하루 근심은 아침 술에서 생긴다.</p>	<p>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된다.</p>
<p>하루 밥 세 끼 먹기는 일반이다.</p>	<p>한 점의 고기 맛으로 술 안의 국맛을 안다.</p>
<p>하루 세 끼 밥 먹듯 한다.</p>	<p>한 푼 밥에도 상 차리고, 오 푼 밥에도 상 차린다.</p>
<p>하루 신수가 편하려면 아침술을 들지 말고, 평생 신수가 편하려면 두 계집을 거느리지 말랬다.</p>	<p>한 푼도 없는 놈이 두 돈 오 푼 떡은 즐긴다.</p>
<p>하루 화근은 식전술에 있다.</p>	<p>한 푼도 없는 놈이 자 두치 떡을 찾는다.</p>
<p>하루 화근은 해장술에 있고, 평생 화근은 약처에 있다.</p>	<p>한 푼도 없는 놈이 큰 떡을 먼저 든다.</p>
<p>하루를 편히 살려면 아침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p>	<p>한 푼짜리 푸닥거리에 두부가 오 푼이다.</p>
<p>하루의 화근은 해장술에 있고, 1년 화근은 발에 신는 가죽신에 있고, 백년 화근은 약처에 있다.</p>	<p>한가마밥 먹었다.</p>
<p>한 끼 잘 먹자고 사흘 굶는다.</p>	<p>한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울음 운다.</p>
<p>한 냥 장설(帳設)에 고추장이 아홉 돈어치다.</p>	<p>한강수가 팔죽이라도 쪽박이 있어야 떠먹는다.</p>
<p>한강이 녹두죽이라도 쪽박이 없으면 못 먹는다.</p>	<p>호걸(豪傑)은 술을 좋아하고,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p>
<p>한밥 먹는다.</p>	<p>호랑이 날고기 먹듯 한다.</p>

한밥 먹었다.	호박떡은 더워서 먹어야 한다.
한밥에 오르고 한밥에 내린다.	홀아비 장가가서 좋고, 홀어미 시집가서 좋고, 동네 사람 술 얻어먹어 좋다.
한석봉(韓錫琫) 어머니 떡 썰 듯한다.	화룻가에 옛 두고 왔나?
한술밥 먹고 송사한다.	회초리보다 옛이 낫다.
한술밥 먹고 한자리에서 잔다.	후래삼배(後來三杯)라고.
한술밥 먹으며 싸운다.	후살이할 때는 이밥 먹자는 속셈이라.
한술밥 먹은 사람은 한울음 운다.	후추알을 통째로 삼킨 격이다.
한술밥도 되고 질고 한다.	훗장 떡이 클지 작을지는 두고 봐야 안다.
한술밥도 타고 설고 한다.	흉년 떡도 많으면 싸다.
한술밥을 먹는 처지다.	흉년 떡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한술밥을 먹는다.	흉년 떡은 보기만 해도 살찐다.
한술밥을 먹어 봐야 속도 안다.	흉년 밥은 어른도 한 그릇 아이도 한 그릇이다.
한술 밥에 배부를까?	흉년 이밥은 꿈에만 봐도 살찐다.
한술 밥에 살찌고, 한술 밥에 빠진다.	흉년 죽 담듯 하다.
한술 밥으로는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흉년 죽은 아이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이다.
한창때는 돌을 먹어도 삭힌다.	흉년 피죽은 인삼죽이다.
할아버지 떡도 커야 사먹는다.	흉년에 떡맛 보기도.
함지 밥 보고 계집 내쫓는다.	흉년에 보리개떡도 많으면 싸다.
함흥 국수는 목구멍으로 끓는다.	흉년에는 밥 빌어 먹겠다.
함흥 국수는 한 가닥은 그릇에 있고 한 가닥은 뱃속에 있다.	흉년에는 피죽이 인삼죽이다.
합천 해인사(海印寺) 밥이냐?	흥부 자식 밥 먹듯 하다.
햇바지 저고리만 다닌다.	흥부 자식들 섬 밥 먹어치운다.
항우(項羽)도 먹어야 장수다.	흰 술은 사람의 얼굴을 누르게 하고, 황금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 한다.
해변 까마귀 골수박 파먹듯 한다.	흰떡에 소가 든다.
해장술에 맞들이면 땅 팔아먹는다.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
해장술은 땅 판 돈으로 사먹어도 아깝지 않다.	흰떡집에 산병(散餅) 맞추기다.
해장술은 빗내서라도 사먹는다.	흰죽 먹다 사발 깬다.
해장으로 속 푼다.	흰죽에 고춧가루다.
허기진 강아지 물똥 먹듯 한다.	흰죽에 코다.
허기진 놈 밥 퍼먹듯 한다.	흰죽에는 간장이다.
허기진 놈은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흰죽인지 코인지 물구지인지 닭똥인지 모르겠다.
허기진 사람은 아무것이나 잘 먹는다.	<자시오> 할 때는 마다하더니 아가리에 <넣어라> 하니 먹는다.

<부록 2>

중국 음식 속담	
按倒鴨婆不生蛋	不吃飯則饑, 不讀書則愚
按老房子吃藥	不吃高粱, 不知粗細
按人頭做飯	不吃黃連, 不知味苦
按人下菜碟	不吃辣椒, 心不發燒
按胃口下菜	不吃涼粉讓開席
熬粥要有米, 說話要講理	不吃羊肉空惹一身膻
拔出蘿卜, 帶出泥來	不伺候這一勺飯
拔了蘿卜窟窿在	不當家不知柴米貴
把水攪渾了	不敢捏石頭, 只去捏豆腐
把眼藥吃到肚裏	不耕而食, 不蠶而衣
把自己看成一朵花, 把比人看成豆腐渣	不喝涼水不打顛
白菜熬豆腐, 誰也不沾誰的油水	不會打仗不吃糧, 不會唱歌不賣糖
白吃包子嫌面黑	不會做飯的看鍋, 會做飯的看火
白吃蘿卜還嫌辣	不勞者不得食
白豆腐也能說出血來	不是好吃的果子
白雞窩裏拿不出黑蛋來	不是吃素的
白酒紅人面, 黃金黑人心	不為五鬥米折腰
白糖加蜂蜜, 甜上加甜	不下高粱本, 得不著老酒喝
百人吃百味	不嫌野果小, 多拾成整挑
百樣米養百樣人	不想鍋巴吃, 不來灶上立
扳倒了醋缸	不想送人情, 只想吃喜酒
辦酒容易請客難	不蒸包子蒸(爭)口氣
半瓶子醋好晃蕩	不知道吃幾碗幹飯
半夜吃黃瓜, 不知頭尾	布袋裏裝西瓜, 直上直下
包子好吃不在褶上	財主一桌菜, 窮人十年糧
包子未動口, 不知啥餡的	財助精神酒助膽
飽帶幹糧, 熱帶衣	菜碟舀水, 一眼看到底
抱過窩的雞蛋, 外面沒變裏頭變了	菜沒鹽無味, 話沒理無力
抱蜜罐子	蒼蠅不叮沒縫的蛋
抱上金碗討飯吃, 枉受苦	蒼蠅貪甜, 死在蜜裏
爆炒鵝卵石, 不進油鹽	草裏冬瓜草裏長
杯杯就吃垮家當, 毛毛打濕衣裳	插起招軍旗, 就有吃糧人
被人偷酒吃, 冷暖自家知	茶不思, 飯不想
逼著公雞下蛋	茶喝多了養性, 酒喝多了傷身
別人是豆腐渣, 自己是一朵花	茶喝二道酒喝三
癩芝麻榨不出多少油來	茶壺裏煮餃子, 有貨倒不出
薄餅從上揭	茶來伸手, 飯來張口
薄酒勝湯茶	茶是茶, 飯是飯
茶是後來釀	吃獨食
茶為花博士, 酒是色媒人	吃多味不美, 話多不值錢

茶要人燒，水要人挑	吃飯不管事
柴米夫妻，酒肉朋友	吃飯不管鹽價錢
饑鬼搶生肉，貪多嚼不爛	吃飯不知道饑飽，睡覺不知道顛倒
朝天辣椒獨頭蒜，黃毛丫頭最難辦	吃飯穿衣量家當
朝廷爺吃煎餅，君攤	吃飯穿衣，人人不離
炒豆發不了芽	吃飯的錢，睡覺的店
炒豆發芽，鐵樹開花	吃飯防噎，走路防跌
炒豆沒吃上，還炸了鍋	吃飯忘了種田人
炒豆眾人吃，炸鍋一人事	吃飯先喝湯，不用請藥方
炒冷飯	吃飯想撐死，做活怕累死
炒熟的蝦仁兒從嘴裏蹦了	吃飯要飽，做活要了
炒蝦等不到紅	吃飯也恐米鯁喉
炒魷魚	吃飯也香，做夢也甜
扯蒜苗，帶起蔥來	吃甘蔗上山
陳穀子爛芝麻	吃個雞蛋還得挑四棱的
盛不上飯怨勺子	吃瓜子吃出個臭蟲來，啥仁都有
吃白食	吃寡醋
吃百家飯，得百家福	吃掛面不調鹽，有鹽在先
吃飽的貓不捉耗子	吃官飯
吃飽了撐的	吃官飯，打官鼓，官鼓打破有人補
吃飽了混天黑	吃官飯放私駱駝
吃別人嚼過的饅不香	吃慣梅子不怕酸
吃冰塊兒拉冰塊兒，沒化(話)	吃過河豚，百樣無味
吃不了，兜著走	吃過水面
吃菜要吃白菜心	吃河豚魚長大的
吃曹操的飯，做劉備的事	吃黑飯，護黑主
吃蔥吃蒜不吃薑	吃黑棗
吃秤砣，鐵了心	吃後悔藥
吃錯了耗子藥	吃皇糧
吃大鍋飯	吃回頭草
吃大魚吃不起，吃小魚怕腥氣	吃葷飯
吃到肚裏變成屎	吃雞蛋不吃雞母
吃得苦中苦，方為人上人	吃江水，說海話
吃的河水，管的寬	吃酒不吃菜，必定醉的快
吃的輕，擔的重	吃酒不言公務事
吃的是鹽和米，講的是情和禮	吃酒的望醉，放債的圖利
吃燈草放個輕巧屁	吃酒紅人面，財帛動人心
吃定心丸	吃酒年三沒有錢，戒酒三年也沒錢
吃豆腐報肉帳	吃舊鍋粥
吃豆腐塞牙縫	吃開心丸子
吃苦瓜蘸黃連	吃人肉，喝人血
吃寬心丸	吃軟不吃硬
吃口饅頭賭口氣	吃三天飽就忘挨餓
吃烙餅還嫌牙痛	吃啥飯當啥心，敲啥木魚念啥經

吃了豹子膽	吃上藥等病
吃了扁擔，橫了腸子	吃燒餅不問麥子價
吃了冬至飯，巧女兒多做一條線	吃燒餅沒有不掉芝麻的
吃了二十五個老鼠，百爪撓心	吃燒餅，賠唾沫
吃了飯不挺屍，肚裏沒板脂	吃柿子，撿軟的捏
吃了呱呱雞的肉	吃誰飯，服誰管
吃了橘子就忘了洞庭山	吃水不忘掘井人
吃了饅頭，省下燒餅	吃順氣丸
吃了迷魂藥，喝了迷魂湯	吃死膽大的，餓死膽小的
吃了蜜蜂屎	吃死飯
吃了槍藥	吃笋子剝皮，一層層來
吃了桑葉，吐不出絲來	吃糖糕，加蜂蜜
吃了省錢瓜，害了絞腸痧	吃五穀雜糧長大的，不是吃草長大的
吃了五穀思六穀	吃五穀雜糧長大的，誰能沒病
吃了無錢飯，耽擱了有錢事	吃香的，吃辣的
吃了喜鵲蛋	吃小虧占大便宜
吃了一粒種，失去十日糧	吃啞巴虧
吃了一升，還他一鬥	吃洋參不如睡五更
吃了朝頓無夜頓	吃一百個豆不嫌腥
吃力不討好	吃魚別嫌腥，嫌腥別吃魚
吃涼不管酸	吃魚也是沾腥氣，抓魚也是沾腥氣
吃糧不管事	吃著碗裏瞧著鍋裏
吃米不忘種穀人	吃自己的飯，替人家趕獐子
吃米不知米貴	吃子孫飯
吃奶還得解開懷	遲飯是好飯
吃奶像三分	赤腳的趕鹿，著靴的吃肉
吃哪行飯，說那行話	沖著柳樹要棗兒吃
吃齊心豬	臭豆腐聞著臭吃起來
吃槍藥	臭肉熬不出好湯來
吃人不見血	臭肉引蒼蠅
吃人不吐骨頭	臭手捏不出香糕來
吃人的獅子不露齒	臭雞蛋，自家贊
吃人飯拉狗屎	初出鍋的糍粑，軟做一場
吃人飯做鬼事	出的是牛馬力，吃的是豬狗食
吃人家的嘴短，拿人家的手短	出多少汗，吃多少飯
吃人家飯，給人家幹	除去一死無大難，人到要飯無再窮
吃人家碗半，被人家使喚	春天的魚兒帝王吃不上，秋天的魚兒 狗都不愛吃
春蟹夏蠶秋翅冬參	大饅頭堵了嘴
蔥快了不剝皮，蘿卜快了不洗泥	大年初一吃餃子，沒外人
從開水鍋底下撒柴火	大桶漏香油，滿地撿芝麻
從梢開始吃甘蔗，越來越甜	大魚吃小魚，小魚吃蝦子
從小賣蒸饅，啥事都經過	大魚跑了撈蝦米
粗布衣裳家常飯，吃不俗，穿不爛	待在泉水邊，還喊沒水喝

粗茶淡飯保平安	逮雀兒也得舍一把米
催工不催飯，催到田裏也是站	單吃別人不吃自己
寸草不生，五穀豐登	淡酒多杯會醉人
撮鹽入火，火上澆油	當不了飯吃
錯把茄子當辣椒	當地生薑不辣
錯窩不下蛋	當家才知米貴
搭上鍋沒下米	當了衣裳打酒喝，顧嘴不顧身
搭在籃裏便是菜，捉在籃裏便是蟹	當面抹蜜，背後紮刀子
打不成米，把口袋丟了	黨太尉吃匾食，學人照樣兒
打不盡的芝麻，摘不盡的棉花	刀切豆腐，兩面光
打成一鍋粥	刀往肉上切
打翻了五味瓶，酸甜苦辣鹹樣樣全	刀子嘴，豆腐心
打核桃捎帶了棗	倒了核桃車子
打酒只問提壺人	倒栽蔥
打了一冬柴，煮鍋臘八粥	到手的肥肉換骨頭
打牛千鞭，不舍粟米一粒	到嘴的肥肉讓鷹叼去了
打破醋壇子	倒出桶來另打水
打破飯碗	稻多打出米來，人多講出理來
打煞賣鹽的，苦了做醬的	得翻望飽，鬧事望了
打死賣鹽的	得罪燒茶的喝涼水，得罪夥夫吃剩飯
打兔的不嫌兔多，吃魚的不怕魚腥	燈靠油，人靠飯
打一巴掌，給個甜棗吃	等米下鍋
打油的錢不買醋	等著米下鍋
大白菜倒了秧，打根上壞	等著天上掉餡兒餅
大蟲不吃伏肉	滴水成河，粒米成籬
大蟲吃小蟲	地肥茄子嫩
大豆不擠不出油，時間不擠自會溜	地靠糞養人靠飯長
大餓不在車飯	地裏挑瓜，挑的眼花
大缸中去幾粒芝麻	地裏選瓜，越選越差
大鍋飯小鍋菜	掂人分兩放小菜碟
大海裏翻了豆腐船，湯裏來，水裏去	點心鋪裏買棺材，上錯門
大夥兒吃飯，一個人刷鍋	電燈泡搗蒜，一錘子買賣
大火開鍋，小火燜飯	吊起臘肉吃白飯
大箕灑油，滿地撿芝麻	丟把芝麻賺個西瓜
大路上撿芝麻，大缸倒香油	丟飯碗
大蘿卜還用尿澆丟了西瓜撿芝麻	丟了肥肉啃骨頭
丟了西瓜撿芝麻	端起碗吃肉，放下碗罵娘
丟下嘴裏的肉，去等河裏的魚	端著金碗要飯吃
丟了芝麻撿西瓜	鵝蛋看不起雞蛋
東北有三寶：人參，貂皮，烏拉草	惡狗撲來，不能心疼肉包子
東場搬到西場，也要三日飯糧	餓肚酒醉死牛
東倒吃豬頭，西倒吃羊頭	餓肚子難等早稻黃
東家不飲客不餐	餓來不怕全麥飯
冬吃蘿卜夏吃薑	餓死不吃瞪眼食

冬吃羊肉賽人參	餓咽糟糠甜似蜜，飽飫烹宰也無香
冬天的大蔥，葉黃根枯心不死	二分錢醋，又酸又賤
冬天麥蓋三層被，來年枕著饅頭睡	二月的韭菜，頭一茬兒
冬至餛飩夏至面	二月間的桃子，不熟
動爲綱，素爲常，酒少量，莫愁腸	發面饅頭，攔不住一咬
凍不死的蔥，餓不死的僧	翻了五味瓶，酸甜苦辣都有
凍不死的蔥，幹不死的蒜	翻燒餅
凍豆腐，難辦	凡有喜酒必有人醉
兜著豆子，尋炒	飯飽肉不香
鬥米買枚針，試試你的心	飯不像飯，粥不像粥
鬥米喂斤雞，斤雞難買一鬥米	飯常常，話想想
豆腐拌成了肉價錢	飯吃三碗，閑事少管
豆腐店做一朝，不及肉店一刀	飯後三碗茶
豆腐掉到灰窩裏，吹不得，打不得	飯到口，錢到手
豆腐多了一包水，空話多了無人信	飯後百步，不問藥鋪
豆腐裏挑出骨頭來	飯後百步走，活到九十九
豆腐青菜，各人所愛	飯後躺一躺，不長半斤長四兩
豆腐一碗，一碗豆腐	飯後走百步，不用上藥鋪
豆腐渣貼門神，兩不沾邊	飯來張口，水來濕手
豆腐嘴，刀子心	飯來張口，衣來伸手
豆殼裏榨油	飯莫不嚼便吞，話莫不想就說
豆芽菜炒兩盤，小兩口兒打仗鬧著玩	飯莫過飽，飯後莫跑
豆芽菜，水蓬蓬；竹竿子，節節空	飯前飯後一碗湯
豆芽菜兒，有甚捆兒	飯要一口一口吃
豆芽弗好做柱，丫頭弗好做主	飯越捎越少，話越捎越多
豆子不榨不出油，石頭不砸不裂縫	房頂上掉肉包子
獨頭蒜，沒瓣	房簷上的大蔥，葉黃根枯心不死
堵著窩兒要蛋	房簷上種菜，真有緣
肚餓想食燕窩	放到案板上肉，提起一條，放下一堆
肚饑吃好飯	放開肚皮吃飯，立定腳跟做人
肚饑糠也好，飯飽肉嫌肥	放開肚皮吃飯，伸直胳膊睡覺
肚饑想起牙縫菜	放著幹糧餓肚子
肚裏盛不下二斤油	放著現成不吃，卻去等另做飯
肚裏沒冷病，不怕吃西瓜	飛蛾投燈炎，蒼蠅落滾湯
肥處割膘，瘦處添油	瓜兒多，子兒少
糞堆裏能爬出蛆來，肉裏也能爬出蛆來	瓜離不開秧
蜂蜜舌頭砂糖口	瓜兒戀秧，孩兒戀娘
佛在心頭坐，酒肉穿腸過	瓜兒只揀軟處捏
伏天吃西瓜，藥物不用抓	瓜果之生摘者，不適於口
富人一席酒，貧漢一年糧	瓜好吃不講老嫩，人對眼不講醜俊
幹吃大魚不費網	瓜熟蒂落，水到渠成
幹薑有棗，越老越好	瓜熟要落蒂，兒大要自立
幹竹竿榨不出油來	瓜熟自蒂落，水到自成川

甘言奪志，糖食壞齒	瓜無滾圓，人無十全
甘蔗沒有兩頭甜	瓜子兒裏嗑出臭蟲來，算個什麼仁兒
趕了個野雞不下蛋	瓜子兒裏出臭蟲，啥仁都有
趕逐猴兒淨了山，拔了蘿蔔地皮寬	瓜子不飽暖人心
趕吃三斤薑，敢擋三條槍	瓜子不飽是人心
剛出籠的饅饅，帶著氣兒	刮大風吃炒面，張不開嘴
剛喂得小雞沒有蛋	掛拉棗兒，有線
缸裏的醬蘿卜，沒了纓兒	掛羊頭，賣狗肉
高樓一席酒，窮漢半年糧	關大王賣豆腐，人硬貨不硬
隔年的衣裳，隔夜的飯	官鹽不當私鹽賣
隔牆的果子分外甜	官鹽成了私鹽
隔著桌子抓菜	管三軍不吃淡飯
給偏飯吃	管山的燒柴，管河的吃水
給人送肉，不如教人養豬	管她嫁給誰，只要跟著喝喜酒
羹裏不著飯裏著	灌迷魂湯
羹裏來的飯裏去	灌米湯
公要餛飩，婆要面	光吃炒豆不炸鍋
狗肉包子上不得席	光請客不上菜
狗肉不上桌	光有骨頭，沒有肉
狗肉滾三滾，神仙站不穩	鍋不熱，餅不靠
狗肉上不了筵席	鍋蓋揭早了煮不熟飯
狗肉粘不到羊身上	鍋蓋上的米，熬出來了
狗窩裏落不下剩饅頭	鍋滾等不及豆爛
狗熊耍扁擔，混碗兒飯吃	鍋裏炒石頭，油鹽不進
狗熊嘴大啃地瓜，麻雀嘴小啄芝麻	鍋裏無米白添柴
狗咬包子，露了餡兒	鍋裏有了米，不愁碗裏沒有飯
狗子見了熱脂油，又貪又怕	鍋裏煮娃娃魚，熟人熟食
狗走遍天下吃屎，虎走遍天下吃肉	鍋頭飯好吃，過頭話難說
穀地裏點玉茭，高出一截子	國以民爲本，民以食爲天
顧得芝麻，丟下西瓜	果紅要落，人壯要衰
瓜菜葫蘆半年糧	果蔬失地則不榮，魚龍失水則不神
瓜到熟時蒂自落	果子離不開枝兒，瓜兒離不開蔓
過了冬的蘿卜，心裏爛	核桃栗子一齊數
蛤蟆吞西瓜，開口不怕大	黑豆摻在百米裏
含的是塊骨頭，吐得是塊肉	黑饅多包菜，醜人多做怪
寒冬臘月喝涼水，點點滴滴記心頭	紅蘿卜紅皮白心兒
好菜做好活	紅蘿卜上在蠟燭賬上
好茶不怕細品，好事不怕細論	猴吃芥末，幹瞪眼
好吃不如餃子，自在不如倒著	猴兒吃辣椒，抓耳撓腮
好吃的菜，誰肯撻筵	猴兒吃麻花，滿擰
好吃的棟樹果，等不到正月半	猴子手裏掉不出幹棗
好吃難消化	猴嘴裏掏棗，虎口內走人
好飯不怕晚	囫圇吞個棗，不知酸淡
好酒不怕陳	胡蘿卜加大棒

好酒不怕巷子深	胡蘿卜酒燒酒，仗個幹脆
好酒出背巷	胡子上的飯粒兒填不飽肚子
好酒說不酸，酸酒說不甜	壺裏沒酒難留客
好看不中吃	湖泥水裏洗不出白蘿卜
好樹結好桃，好葫蘆開好瓢	葫蘆攪茄子
好蘋果不會從樹上掉下來	葫蘆瓢撈餃子，湯水不漏
好人說不壞，好酒攪不酸	花朵半開正豔，酒過半酣正好
好一塊羊肉，落在狗嘴裏	花木瓜空好看
好種出好苗，好樹結好桃	花生剝了殼，好賴算個仁
好吃蘿卜的不吃梨	畫的餅充不了饑
喝幹醋	黃瓜菜都涼了
喝慣了的水，說慣了的嘴	黃連拌苦瓜，苦上加苦
喝酒喝厚了，耍錢耍薄了	黃杏熬北瓜，一貨色
喝舊鍋粥	回爐的燒餅不香
喝口涼水都塞牙	會吃栗子無得吃，不會吃的夾殼吃
喝了迷魂湯	餛飩擔子，一頭熱
喝了人家酒，跟著人家走	混飯吃
喝了西河水，變了西河魚	豁牙子啃西瓜，淨道道
喝了蜜，嘴甜	饑不饑拿幹糧，冷不冷帶衣裳
喝涼酒那髒錢，早晚是病	饑飯是好飯
喝墨水	饑了糠也甜，飽了肉也粘
喝什麼地方的水，隨什麼地方的俗	饑了甜如蜜，飽了蜜不甜
喝水不忘掘井人	饑時飯，渴時漿
喝水要喝長流水	雞蛋炒倭瓜，一色貨
喝水遇的是空茶壺，尿尿遇的是滿夜壺	雞蛋到他手裏也得小一圈
喝粥要等都熟	雞蛋裏挑骨頭
喝醉酒不認酒錢	雞蛋往石頭上碰
和尚多了沒水吃	雞多不下蛋，人多瞎搗亂
核桃裏的肉，不敲不出來	雞兒吃了過年糧
雞毛炒韭菜，亂七八糟	今朝有酒今朝醉，莫管明日是與非
雞毛炒鴨蛋，各自打散	金花配銀花，西葫蘆配南瓜
雞肉雞毛一起炒	緊火粥，慢火肉
雞屎拌面，假鹵	錦堂客至三杯酒，茅舍人來一盞茶
雞下一個蛋，不知叫多少聲	井幹才覺水可貴
雞也飛了，蛋也打了	井淘三遍吃好水
急火打不出好燒餅	井淘三遍吃甜水，人從三師武藝高
急火做不出好飯	敬酒不吃吃罰酒
家常便飯吃的長，粗布衣裳穿的久	韭菜包點心，好長餡
家常飯，粗布衣，知寒知暖自己的妻	韭菜地割了一茬起一茬
家家賣酸酒，不犯是好手	酒杯雖小淹死人
家有賢妻，夫不吃淡飯	酒杯裏醉死的人比大海裏淹死的人還多

嫁漢嫁漢，穿衣吃飯	酒病酒藥醫
揀到籃裏就是菜	酒不醉人人自醉
撿了芝麻，丟掉西瓜	酒逢知己千杯少
見人下菜碟	酒好不怕巷子深
見水就渴，見飯就餓	酒後吐真言
薑桂之性越老越辣	酒肯吃，面不肯紅
薑是老的辣，酒是後來釀	酒亂性，色迷人
豇豆一行，綠豆一行	酒能成事酒能敗事
醬鍋裏煮元宵，混蛋	酒能亂人性
醬裏沒有錯下的鹽	酒怕牛肉飯怕魚
交人交到鬼，打酒打到水	酒朋飯友，沒錢分手
焦餅爛面不傷人	酒肉朋友，柴米夫妻
嚼過的甘蔗不甜	酒是高粱水，醉人先醉腿
腳底板抹香油，溜了	酒要少吃，事要多知
叫花子不嫌陳稀飯，餓老鴉不嫌臭泥 鰍	酒斟滿，茶倒淺
叫花子吃螃蟹，只只好	酒中不語真君子
叫花子吃剩飯，自討的	酒壯愆人膽
叫花子吃新鮮飯，頭一次	酒醉心不醉
叫花子剛有吃的了，就苛待要飯的	酒醉心明，罵的仇人
叫花子買米，只有這一升	舊瓶裝新酒
叫花子賣米，沒幾升	就熱鍋炒熱菜，一勺兒燴
叫花子嫌飯餓	開口奶要吃的好
結不出甜果兒來	開門七件事：柴米油鹽醬醋茶
芥末調涼菜，各人有所愛	開水煮，滾油煎
借酒澆愁愁更愁	看菜吃飯，量體裁衣
借米趕得上下鍋，還米就趕不上下鍋	看見豬頭肉，趕緊要還俗
借著中秋買月餅	看人下菜碟
今日有酒今日醉，明日愁來明日當	糠菜半年糧
糠了的蘿卜，沒大辣氣	老母雞不吃白大米，喂啥
糠裏榨油	老鼠吃貓飯
靠人磨鎌刀背兒光，靠人舀飯盡喝湯	老太太吃檳榔，爛啦
靠山吃山靠水吃水	老太太吃柿子，專找軟的捏
靠山好燒柴，近水好吃魚	老太太的嘴，吃軟不吃硬
靠在井邊也會被渴死	老頭吃糖，越扯越長
渴不飲盜泉之水	老王賣瓜，自賣自誇
口袋裏倒西瓜	老鴉啄柿子，揀著熟的開口
口袋裝西瓜，直入直出	雷公打豆腐，專揀軟的欺
口含蜜糖忘了黃連苦	冷不冷帶衣服，餓不餓帶幹糧
口酒不嘗，撈菜大王	冷飯好吃，冷語難受
口裏擺菜碟	冷鍋裏爆熱豆
口如蜜罐，心如辣蒜	冷鍋裏爆出了熱栗子
口甜如蜜鉢，心苦似黃蘗	冷手抓不住熱饅頭
口有蜜，腹有劍	冷水泡茶，無味

苦瓜纏上黃連，一樣是苦	冷水要人挑，熱水要人燒
苦瓜藤上生苦瓜	離了紅蘿卜，照樣辦酒席
苦瓜子結不出甜瓜來	力氣用不盡，井水挑不幹
快刀切豆腐，兩面光	立秋的石榴，滿腦袋的點子
快刀切蔥兩頭空	栗子花生一盤端
筷子插在豆腐裏，穩當當的	粒米集成籬，滴水流成河
拉了架的瓜秧，薦下來了	臉皮薄吃不著，臉皮厚吃個夠
拉了秧的黃瓜上了架的煙，薦頭奪腦	臉皮壯，吃得胖
拉牛皮糖	良田萬頃，日食三餐；大廈千間，夜眠八尺
臘肉藏在飯裏頭	涼鍋貼餅子，溜了
臘月裏啃凍蘿卜，咯崩脆	涼水沖茶，泡上了
臘月裏蘿卜，凍了心	兩豆塞耳，不聞巨雷
臘月天賣涼粉，不趕這個時候	量體裁衣，看菜吃飯
辣椒秧上不長茄子，葫蘆架上不結瓜	六月不熟，五穀不結
賴象嗑瓜子，眼飽肚中饑	六月裏的梨疙瘩，有點兒酸
癩蛤蟆想吃天鵝肉	龍多不治水，雞多不下蛋
爛蒜不爛味兒	籠小蒸不了大饅頭
爛肉煮不出香腸	鹵水點豆腐，一物降一物
狼到天邊吃肉，狗到天邊吃屎	鷺鷥不吃鷺鷥肉
狼多肉少，成天爭吵	亂成一鍋粥
狼行千裏食肉，豬行千裏食糠	亂打一鍋粥
老媽媽睡著吃幹臘肉，是恁一絲兒一絲兒	蘿卜拔快了不洗泥
老貓吃魚，不帶一點腥味	蘿卜白菜，各人喜愛
老貓喝燒酒，夠嗆	蘿卜雕寶盒，不是個材料
老米飯捏殺不成團	蘿卜精，頭上青
蘿卜快了不洗泥	毛鏈口袋倒西瓜，一會兒就倒完
蘿卜青菜不連根，白的白來青的青	毛毛雨打濕衣裳，杯杯酒吃敗家當
蘿卜青菜，各有所愛	沒吃過豬肉，還沒聽過豬叫
蘿卜上了街，藥方把嘴撮	沒吃過豬肉，也見過豬跑
蘿卜掏寶盒，不是合適的材料	沒吃上羊肉，惹一身膻
籬裏揀瓜，揀的眼花	沒吃鮮魚口不腥，沒做壞事心不驚
駱駝拉磨不如驢，砂鍋和面不如盆	沒吃著羊肉卻惹上一身臊
落在蜜缸裏	沒到年關，忙什麼年菜
麻繩栓豆腐，別提	沒得狗屎，也種白菜
麻繩栓豆腐，提不起	沒雞蛋也做糕
麻油拌苦菜，各人心所愛	沒酒沒漿，做什麼道場
馬上吃豬蹄，不知骨頭落哪裏	沒了王屠，連毛吃豬
馬勺兒裏的蒼蠅，混飯吃	沒三頓飽飯，有三頓飽氣
馬勺上的蒼蠅，混飯吃	沒下馬，先敬酒
馬蹄刀木勺裏切菜，水泄不漏	沒鹹不解淡
馬蹄刀瓢裏切菜，滴水不漏	沒牙齒，別吃硬豆子

馬尾穿豆腐，提不起來	沒要過飯，不知狗狠
買醬油的錢不能買醋	沒油脫不得鍋
買了個母雞不下蛋，莫不吃不成了	沒有不吃腥的貓
麥苗不怕雪壓，油菜不怕霜打	沒有不開張的油鹽店
賣豆腐的扛馬腳，生意不大架子大	沒有好果子吃
賣飯的不怕大肚漢	沒有燒飯的頭陀，就沒有念經的和尚
賣瓜的不說瓜苦，賣酒的不說酒薄	沒有葦葉，不敢包粽子
賣瓜的誰肯說瓜苦	美酒不過量，好菜不過食
賣慣了私鹽走慣了硝	美食不如美器
賣花人說花香，賣菜人說菜芳	美食不中飽人餐
賣了餛飩買面吃	門上不掛牌，誰知你賣酒
賣蘿卜的跟著鹽擔子走，鹹嘈心	猛火烤不出好燒餅
賣肉帶骨頭	米不夠，水來湊
賣石灰見不得賣面的	米粒是米粒，糠皮是糠皮
賣水的看見河，盡是錢	蜜多不甜，油多不香
賣糖帶望戲	棉桃裏面找胡桃，專揀硬的敲
賣糖的不賣醋，賣醋的也別賣糖	面條饊饊菜，各人一喜愛
賣鹽的做雕鑿匠，鹹人兒	民以食為天
賣油的娘子水梳頭	命是鹽換的
賣魚的吃魚腸，買魚的吃魚王	摸到韭菜就當蔥
饊頭落地狗造化	饊饊不能大過籠
滿飯好吃，滿話難說	莫飲卯時酒，莫吃申時飯
滿園的果子，難數哪個紅	拿豆包不當幹糧
盲子吃蟹，只只道鮮	拿雞蛋往鵝卵石上碰
貓兒見了魚鮮飯	拿你的包子塞你的嘴
貓哪有不吃魚的	拿著黃金當生銅，拿著珍珠當綠豆
拿著薺菜頭當蘿卜吃	刨了蘿卜騰出坑
拿著金碗要飯吃	泡蘑菇
拿著銀碗討飯吃	泡在蜜罐裏
哪個貓兒不吃腥	烹牛而不鹽，敗其所為也
哪樣桌哪樣菜，哪樣客人哪樣待	蟛蜞裹餛飩，裹戳出
哪有耗子不偷油	捧金飯碗
哪有貓兒不吃葷	捧鐵飯碗
男兒沒性，寸鐵無鋼；女人沒性，爛如麻糖	捧著金飯碗討飯吃
男孩子不吃十年閑飯	捧著金飯碗要飯
男子不分時飯，女子不著嫁時衣	碰翻了五味瓶，鹹酸苦辣都湧上心頭
南方人會吃，北方人會住	砒霜外面裹蜜糖
南甜北鹹東辣西酸	屁眼裏栽蔥，倒蒜
南人吃米北人吃面	拼出吃奶的力氣
嫩薑沒有老薑辣	拼死吃河豚
能吃過頭飯，不說過頭話	憑本事吃飯
能吃又能幹，才算英雄汗	瓶裏釀茶，濃者在後
能存一肚飯，存不住一句話	瓶是借的，酒是賒的

能忌煙和酒，能活九十九	潑翻了五味瓶，酸甜苦辣鹹各色俱全
能煮百人菜，難和百人意	破包子，漏了餡
能裝三老碗大米飯，裝不下一口氣	葡萄不熟，酸得很
你不嫌我籬疏，我不嫌你米碎	七兩爲參，八兩爲寶
你採你的花，我做我的蜜	七十不留宿，八十不留飯
你打幌子，人家賣酒	騎驢吃豆包，樂顛了餡
你裝的是柿子，咱就摘了吃；你裝的是核桃，咱就砸了吃	騎驢吃豆包，漏餡兒
碾穀要碾出米來，說話要說出理來	騎馬吃豆包，撒了餡兒
碾米怕掉糠	騎著驢吃燒雞，這把骨頭不知扔在哪
碾盤上的磨菇，根子硬	乞兒害病想人參
鳥爲食死，人爲財亡	起腳餃子落腳面
寧吃對蝦一口，不吃雜魚半簍	氣不圓，饅不熟
寧吃飛禽一兩，不吃走獸半斤	氣力用不盡，井水挑不幹
寧吃過頭飯，莫說過頭話	砌牆先打基，吃蛋先弄雞
寧吃開心粥，不吃皺眉飯	砌屋三擔米，拆屋一頓粥
寧吃鮮桃一口，不吃爛杏一筐	砌屋三石米，拆屋一頓飯
藕斷絲不斷	千滾豆腐萬滾魚
藕發蓮生，必定有根	千家吃酒，一家還錢
怕鹹不准人家吃鹽	千口吃飯，主事一人
怕噎了嗓子不吃飯	千裏爲官，爲的吃穿
螃蟹夾豌豆，連滾帶爬	千粒米，不成滴；千粒麥，不成白
胖子不是吃的，瘦子不是餓的	千日吃了千升米
胖子也不是一口吃的	千事萬事，吃飯大事
錢有磨盤大，膽比綠豆小	瘸子擔水，一步一步來
強扭的瓜不甜	染坊不開牌子在，賣了糧食有口袋
牆上畫的餅，好看不中吃	讓了甜桃，去尋酸棗
牆頭的冬瓜，兩邊滾	饒你四兩薑，還說我不識秤
牆頭上栽菜，壞名在外	惹不起甜瓜，惹苦瓜
搶熱饅頭吃敲鑼賣糖，各有一行	熱飯不能熱食
蕎麥面的肉包子，皮黑一兜肉	熱鍋炒熱菜
蕎麥皮裏榨油	熱湯潑老鼠，一窩都完蛋
蕎麥皮榨不出四兩油	熱天的冰棍，放不長
瞧見兔子，就不種黑豆啦	熱油苦菜，各隨心愛
巧婦安能作無面湯餅	人不吃肉我不饑
巧婦難爲無米之炊	人不勞動沒飯吃，鳥不覓食餓樹枝
巧媳婦做不成無米的飯	人吃五穀生百病
切糕換粽子，一路貨	人倒黴，喝口涼水都塞牙
茄子不開虛花，真人不說假話	人對眼不說俊醜，瓜好吃不說老嫩
茄子不像茄子，苦瓜不像苦瓜	人多好做活，人少好吃飯
茄子大一個星宿	人多亂，龍多早，母雞多了不下蛋，媳婦多了婆做飯
茄子黃瓜一鍋煮	人多講出理，田多長出米

親戚騎上馬，吃面細籮打；親戚騎上驢，蕎麥去了皮；親戚就地走，菜湯窩窩頭	人多講得出理，稻多打得米
秦椒炒豆腐，外面辣，裏面軟	人多無好湯，豬多無好糠
青菜豆腐保平安	人多瞎搗亂，雞多不下蛋
青菜豆腐，一清二白	人多遮黑眼，兵多吃閑飯
青菜蘿卜分不清	人各吃得半升糧
青菜煮蘿卜，一清二白	人家吃得鹽比你吃的米多
清晨吃晌飯，早呢	人家的芥菜子數的清，自己的瓜果倒弄不明白
清酒紅人面，黃金黑世心	人家碗裏肉肥
清水下雜面，你吃我看見	人老精，薑老辣
清水煮掛面，有鹽在先	人沒名難呼喚，地沒名難送飯
晴帶雨傘，飽帶幹糧	人情不能當飯吃
請酒不吃吃罰酒	人生有酒須當醉，一滴何曾倒九泉
請酒不喝喝罰酒	人是鐵，飯是鋼，一頓不吃餓得慌
窮時不走親戚家，餓時不進蘿卜園	人爲刀俎，我爲魚肉
窮媳婦知米貴	人一走，茶酒涼
窮種瓜，富種花	人嘴不吃飯不行，不說話行
秋後的石榴，一肚子紅點子	日長無好飯，客長無笑臉
囚人夢赦，渴人夢漿	日裏文縷縷，夜裏偷毛豆
蛆棗先紅，破蛋先臭	日裏沿街吃茶，夜裏點燈績麻
日食三餐，夜眠一榻	晌午吃晚飯，早些哩
肉包子打狗，一去不回頭	賞酒不吃要吃罰酒
肉不臭不會招蒼蠅	上床蘿卜下床薑
肉不爛再加炭	燒餅枕頭餓死人
肉不如雞，雞不如魚	少吃多滋味，多吃壞肚皮
肉炒熟，人吵生	少吃鹹魚少口幹
肉肥湯也肥	少一口吃不飽，缺一根草燒不開水
肉骨頭落了鍋，啃定	舍不得白米抓不著雞
肉骨頭敲敲，葷咚咚	舍不得芝麻，捉不住雁
肉鍋裏的鴨子，肉軟嘴不軟	舍不得種子，打不著糧食
肉爛骨頭在	舍命吃河豚
肉爛在鍋裏	舍芝麻，抱西瓜
肉爛嘴不爛	身後名，不如即時一杯酒
肉裏的刺，醬裏的蛆	身無掛體衣，家無隔宿糧
如魚飲水，冷暖自知	身無禦寒衣，家無隔夜糧
軟不吃，硬不吃	生薑斷了辣氣
若要弟兄賢，明算夥食錢	生薑改不了辣
若要斷酒法，醒眼看醉人	生米還沒做成熟飯
若要甜，加點鹽	生米做成熟飯
仁核桃兩棗	生鹽拌韭菜，各人心所愛
三鬥芝麻，倒無一粒落翁	生在蜜罐裏

三頓飯不餓，三件衣不破	省了一把鹽，酸了一缸醬
三頓幹飯養黃了牙	省了柴草，吃了生飯
三分毛利吃飽飯，七分毛利餓死人	省了鹽，酸了醬，省了柴禾，睡涼炕
三分錢醬油，兩分錢醋	省錢易飽，吃了還饑
三個和尚沒水吃	剩飯炒三遍，狗都不吃
三斤半的老母雞，不是一把米養成的	十冬臘月的蘿卜，凍心
三斤嫩薑，不如一斤老薑	十個梅子九個酸，十個官兒九個貪
三顆核桃兩顆棗	十耕蘿卜九耕麻
三年不喝酒，吃穿啥都有	十五個吊桶打水，七上八下
三十晚上吃餃子，沒外人	石板炒豆子，數熟了就蹦了
三世仕宦，方解著衣吃飯	石頭蛋醃鹹菜，一鹽難進
三天不吃飯，充個賣米漢	石頭發芽，公雞下蛋
三月的薺菜，心裏爛	石子裏榨不出油來
嗓子眼裏塞把胡椒，夠嗆	識得秤時沒肉賣
殺私牛，賣私酒，不犯出，乃高手	拾得籃中就是菜
砂鍋裏搗蒜，一錘子的買賣	拾著麥子打燒餅賣，淨賺
砂鍋砸蒜，全砸到底	拾芝麻湊鬥
砂鍋砸蒜，一錘子的買賣	食不言寢不語
山杏核，苦仁兒	食麥人不知米價
傷口上撒鹽	使出吃奶的勁兒
上頓吃不飽，下頓省不了	使人家的錢手短，吃人家的飯口軟
市上哪有沒核的棗	說黃瓜，道瓠子
事要多知，酒要少吃	絲線穿豆腐，提都不要提
是灰比吐土熱，是鹽比醬鹹	私鹽越緊越好賣
是塊肥羊肉，就是燙得慌	死水怕勺舀，坐吃山也空
是粥是水，揭開鍋蓋	四體不勤五穀不分
手捧著金碗討飯吃	送飯罐打了耳朵，不能提
手中沒把米，叫雞雞不來	送肉上砧板
手中有糧，心裏不慌	索著藤藤瓜要動
守多大碗兒吃多大的飯	他拿我不當幹糧，我還拿他當鹹菜
守著餅挨餓	湯是湯，水是水
守著幹糧挨餓	唐胖子掉進醋缸裏，擰酸了
守著井喝不到水	唐僧肉，人人都想吃
受人一飯，聽人使喚	糖大蒜，又辣又甜
瘦煞的羔是羊肉	糖塊掉到蜜罐裏，甜上加甜
熟油拌苦菜，由人心頭愛	討飯的掉了碗
熟油苦菜，由人心愛	討飯怕狗咬，秀才怕歲考
屬公雞的光打鳴不下蛋	討飯碰著荒年
屬老母豬的，吃飽了酒知道睡	討飯三年懶做官
屬長生果的，表是一把柴，瓢是一包油	討飯討得久，總要碰到一餐喜事酒
屬核桃仁的，不敲不出來	討飯無路曬幹瓢
屬石榴的，點多	討食不帶碗
屬鴨子的，肉煮爛，嘴也是硬的	藤連瓜，瓜連藤

數核桃打棗	天不幫忙，地不長糧
數黃瓜，倒茄子	天不打吃飯人
樹上的梨子，解不了樹下人的渴	天落饅頭，也要起早去拾
樹上也不會結蒸饅	天上掉不下餡餅來
霜打過的柿子才好吃	天上掉餡餅
霜打茄子，蔫了	天上飛的野鴨，不能算碗菜
誰吃饅頭不挑大的拿	天生一個人，必有一份糧
水豆腐，不經打	添糧不如減口
水裏加油，漂在面上	甜瓜兒嘴，苦瓜兒心
水蘿卜皮紅肚裏白	甜瓜小時地苦的，葡萄青時是酸的
水蘿卜皮紅心不紅	挑得籃裏便是菜
水米不打牙	挑水的帶洗菜，兩得其便
水米不沾唇	鐵勺子撈面條，湯水不漏
水是故鄉甜，月是故鄉明	鐵嘴豆腐腳，能說不能行
水仙不開花，裝蒜	聽人勸，吃飽飯
睡在樹下等棗子	同桌吃飯，各自還錢
順著好吃，橫著難咽	銅壺不漏水不滴
順著雞毛找雞，順著蒜皮找蒜	偷割稻施舍粥
說話說給知人，送飯送給饑人	偷雞不成蝕把米
頭醋不釀徹底薄	西瓜掉在油簍裏，又圓又滑
頭醋不釀二醋薄	西瓜系在鯮腿上，滾不了西瓜，也跑不了鯮
頭枕著烙餅挨餓	西葫蘆配南瓜
土圪塹裏榨油	惜飯有飯吃，惜衣有衣穿
土裏刨食吃	惜衣有衣，惜食有食
兔子不吃窩邊草	媳婦多了吃冷飯，頭頭多了事難辦
推不倒冬瓜，拿茄子出氣	細米幹柴不漏房
駝子挑水，兩頭不著實	細絲做絹嫌我粗，白米做飯嫌我烏
外頭吹牛，裏頭漏油	細雨落成河，粒米積成窩
外頭偷飯，裏頭失門	呷醋咬生薑
外無救援，內絕糧食	瞎眼雞吃好米
彎刀對住瓢切菜	瞎子吃餃子，心裏有數
晚飯少吃口，活到九十九	瞎子吃蟹，只只好的
碗邊上的飯，吃不飽人	下不了高粱米，喝不到老燒酒
碗裏不見青，腸胃倒鉤心	先吃完的不管，後吃飯的收碗
碗裏拿帶靶兒的蒸餅	先來的吃肉，後來的喝湯
王八看綠豆，對了眼	先說吃，再說穿
王八推西瓜，滾的滾爬的爬	先下米，先吃飯
王老二賣瓜	鮮魚青菜，下市就得買
王婆賣瓜，自賣自誇	掀翻了醋壇子
往傷口上撒鹽	鹹菜燒肉，有鹽在先
忘了自己吃幾碗飯	鹹吃蘿卜淡操心
望著月亮，想吃燒餅	嫌吃嫌穿沒吃穿
唯食可以忘憂	羨人吃飯，不如趕緊淘米

爲別人的豆子，炒爛自己的鍋	現喂雞，不下蛋
爲五鬥米折腰	香油拌藻菜，各人各心愛
爲著別人的豆子，炸了自己的鍋	想吃肉又怕燙了舌頭
喂的雞多，下的蛋多	想吃甜水自己挑
喂的雞多，下的蛋少	想吃羊肉又怕挨一身臊
喂雞能下蛋	小耙家裏吃，大耙送隔壁
溫開水泡茶，慢慢來	小菜一碟，沒人搭理
我打幌子人賣酒	小菜園裏的韭菜，你算哪一菀
無餌不能釣魚，無米不能叫雞	小蔥拌豆腐，一清二白
無縫的鴨蛋不生蛆	小的吃拳頭，大的吃饅頭
無米難下鍋	小黃米敬不得神
無錢吃酒，妒人面赤	小雞吃大豆，夠噲
無錢方斷酒	小雞下大蛋
無求到處人情好，不飲從他酒價高	小麻雀吃米，一幹二淨
無鹽不解淡	小米加步槍
五鬥米折腰	小子不吃十年閑飯
西瓜大的字識不了一擔	曉行夜住，饑餐渴飲
鞋趂拉襪搗蒜	咬苦瓜尾巴
心急吃不了熱豆腐	藥補不如食補
心急等不到豆煮爛	藥不能治假病，酒不能解真愁
心急和不了熱粥	要飽還是家常飯，要暖還是粗布衣
心急碰上熱豆腐	要吃飯是家常飯，要穿衣是粗布衣
心裏沒病，不怕冷年糕	要吃飛禽，鴿子鷓鴣；要吃走獸，免子狗肉
心裏沒病，喝涼水也添膘	要吃羊肉又怕膻氣
心裏沒鬼，不怕喝水	要飯不嫌餓
新米粥，醬蘿卜，郎中先生見了哭	要飯吃，還得有個攔棍的地方
興來時扁擔開花，倒黴時生薑不辣	要飯的打了碗，傾家蕩了產
腥鍋裏熬不出素豆腐	要飯還要學打狗的本事
性急花了錢，粥熱費了菜	要飯也得走對了門
熊瞎子掰苞米，掰一個扔一個	要哄狗，離不得飯餽餽
熊瞎子掰玉米，拾了後面扔前面	要想吃魚，大家織網
熊瞎子劈苞米	夜飯少吃，多活幾十
雪水煮豆腐，好不冷淡	一把火煮不熟一鍋飯
血盆裏抓飯吃	一鬥米養個恩人，一石米養個仇人
鴨子不吃癩稻，肚裏有食	一鬥芝麻拈一顆，有你不多沒你不少
啞巴吃扁食，心裏有數兒	一頓臘八粥，燒掉一冬柴
啞巴吃黃連	一個包子吃了十八裏地，還吃不著餡
啞巴吃黃連，有苦說不出	一個擔裏的果子有酸甜
啞巴吃餃子，心裏有事	一個蛋不能算一只小雞
啞子吃黃連，苦在心頭	一個鍋裏吃飯的人
啞子吃黃連，有苦說不出	一個鍋裏做不出兩樣飯
煙酒不分家	一個和尚挑水喝，兩個和尚抬水喝，

	三個和尚沒水喝
鹽店掌櫃的，鹹人	一個爛桃壞滿筐
鹽多發苦，話多沒有	一個老鼠壞了一鍋湯
鹽多了不鹹，話多了不甜	一個蘿卜一個坑
鹽緊好賣，賊緊好偷	一個螺螄打十八碗湯
鹽鹵點豆腐，一物降一物	一個饅頭起酵，一籠饅頭也起酵
鹽也是這般鹽，醋也是這般醋	一個饅頭也得上籠蒸
鹽王催命不催食	一個女兒吃兩家茶
鹽在哪裏也鹹，醋在哪裏也酸	一個人吃飽了，全家不餓
閻王催命不催食	一根筷子吃蓮菜，挑眼兒
眼看幹飯化成水	一根筷子吃面條，單挑
眼淚泡飯吃	一根筷子吃藕，挑眼
羊肉不會吃，空惹一身膻	一根蘿卜兩頭削
羊角蔥靠南牆，越發老辣	一根藤上結不出兩樣瓜
羊肉好吃怕惹上腥	一棍子掄到茄子地裏
羊肉饅頭沒得吃，空教惹得一身膻	一鍋菜有鹹有淡
一鍋子面爛到底	油鍋裏滴進一滴水
一壺難裝兩樣酒	有柴一灶，有米一鍋
一斤肉包的餃子，好大的皮	有爹無娘酒糟子，有娘無爹香包子
一斤酒裝進十六兩的瓶子	有飯大家吃，飯大家餓
一口吃不成個胖子	有根才開花，有蔓才結瓜
一口吃不成個胖和尚	有話說在面上，有菜切在案上
一口吃成一個胖子	有活爭著幹，有飯讓著吃
一塊羊肉落在狗口裏	有酒不喝偏喝醋
一粒白米四滴汗	有酒不吃要吃醋，有香不聞要聞臭
一粒良種，千粒好糧	有酒不須茶
一女不吃兩家茶	有酒膽沒飯膽
一人開井，萬人飲水	有酒膽，無飯力
一日三頓的炸醬面，一點兒不新鮮	有了大米飯，忘了糠子粃
一樹棗子，哪能個個紅	有米不愁下不進鍋
一樹之果有酸有甜，一母之子有愚有賢	有肉嫌毛，有酒嫌糟
一條藤上的瓜	有肉自然香
一條藤上結的瓜，苦都苦，甜都甜	有五福想六福，有豆腐想吃肉
一條魚腥一鍋湯	有心炒豆，不怕鍋響
一碗豆腐，豆腐一碗	有牙沒烙餅，有烙餅沒牙
一碗飯二匙難並	有鹽同鹹，無鹽同淡
一碗涼水看到底	有魚不吃蝦，有豆腐不吃渣
一碗清水看到了底	有棗一竿子，沒早一竿子
一碗水端平	有粥吃粥，有飯吃飯
一碗稀飯分著吃	又抱西瓜又揀芝麻
一樣米養百樣人	又會哭，又會笑，饅頭糕餅一齊要
一嘴蜜，一肚膿	又賣鹽，又當巡
衣來伸手飯來張口	又是饅頭，又是錘子

衣食足，知榮辱	又想吃大餅，又不願累牙
倚酒三分醉	又想吃又怕燙嘴
銀碗討飯吃	又想吃魚，又怕沾腥
飲酒不談公事	魚吃魚不腥
飲酒不語真君子，觀棋不語大丈夫	魚好吃，腥難聞
飲酒須引大深甌，戴花須帶大開頭	魚肉青菜，各有所愛
飲水不忘掘井人	魚生火，肉生痰，青菜豆腐保平安
飲水牙思源，爲人難忘本	魚是魚味，肉是肉香
櫻桃好吃樹難栽，小曲好唱口難開	玉茭地裏種豆角，捎辦
迎風吃炒面，張不開嘴	欲得官，殺人放火受招安，欲得富， 趕著行在賣酒醋
硬逼公雞下蛋	冤枉老和尚偷肉吃
油多不壞菜，禮多人不怪	園裏選瓜，越選越差
油多了不香，蜜多了不甜	原湯化原食
遠水不解近渴	芝麻稠，不可留，留來留去，少出油
越渴越吃鹽	芝麻掉進針鼻兒裏，趕巧
砸飯碗	芝麻開花節節高
栽起葡萄打不起架	知道他能吃幾碗幹飯
再肥的肉也有骨頭	只見賊吃肉，沒見賊挨打
在蜜罐裏長大	只圖今世有飯吃，不圖下世沒柴燒
在傷口上揉了一撮鹽	只知嘴裏香甜，不知誰送的葡萄
在傷口上撒鹽末，揉辣椒面兒	指冬瓜說葫蘆
在傷口上撒一把鹽	指望公雞下蛋
在自家飯鍋裏偷嘴	中吃不中看
咱筐裏不會爛杏子	中看不中吃
糟鼻子不吃酒，枉擔其名	種瓜得瓜種豆得豆
早晨起來七件事：柴米油鹽醬醋茶	種果得果，種瓜得瓜
早吃好，中吃飽，晚吃少	種麻得麻，種豆得豆
早起沒飯吃，晚上有馬騎	種棉花結不了蒜
早下米，早吃飯	粥鍋裏照影子
早知燈是火，飯熟多幾時	朱門酒肉臭，路有凍死骨
棗不濟儉	豬八戒吃人參果，全不知滋味
棗核兒，兩頭尖	豬鼻子插大蔥，裝象
擇不順當的爛韭菜	豬多肉賤
賊吃賊，越吃越肥	竹籃打水一場空
摘不動瓜去摘花	竹筒倒豆子，都抖落出來
摘桃子	煮夾生飯
張飛吃豆芽，小菜一碟	煮熟的鴨子飛了
張公吃酒李公醉	煮熟的鴨子，肉爛嘴不爛
朝來愁柴，暮來愁米	煮熟了雞蛋遍不成小雞
朝朝寒食，夜夜元宵	煮熟的雞爬起來跑了
找芝麻，挑綠豆	抓住有把的燒餅
照方吃炒肉	專咬咯牙的鐵核桃
這杯苦酒，早晚都得喝下去	裝洋蔥

